

제 1 강

◆ 세계의 풍속과 문화를 공부하는 이유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는 자신이 속한 문화의 여러 특질들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굳이 성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심화되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무관심이나, 적극적으로 우월의식을 갖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문화중심주의를 벗어나는 데는 나와 다른 문화를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문화를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호기심을 품을 수 있는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다.

◆ 세계의 풍속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져야 할 태도

문화란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삶의 총체적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의 풍속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생활의 각 부분이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 방식들을 공부해야 하며, 다른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 말과 행동의 의미 등등을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른 문화를 접하고 알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문화적 가치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를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라고 한다.

◆ 문화에 우열이 존재하는가?

문화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그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그 문화가 생겨난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나 배경,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하나의 행위나 사건, 제도 등을 그 사회의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렇게 본 총체적인 의미의 문화를 서로 비교할 때,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내가 속한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단편적인 사항을 비교하여 특정 문화의 우열을 주장하는 행위는 세계의 풍속과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을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

◆ 문명과 야만이라는 구분

서구사회는 “자문화중심주의”를 근거로 “미개하고 야만적인” 비서구 사회를 식민화하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자문화중심주의에 사로잡힌 서구인들은 자신들만이 세련되고 조화로우며 합리적인 문화와 문명을 수립했기 때문에 인류 발전 단계에서 앞서 있다고 믿는다. 이에 반해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떤 집단의 사회적 행위들도 모두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질서와 조화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서구문화와 마찬가지로 문화와 문명이라고 주장한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오래된 구분이 현대 사회에서는 끝없이 발전하는 과학과 정제된 전통이라는 구분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 서구인들은 과학적이며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이고, 비서구인들은 전통과 집단에 매여 있는 부자유스러운 존재라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문화는 단일한가?

20세기 중반까지는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 즉 한 지역 안에는 한 민족·인종이 살며 하나의 단일한 문화가 통용된다는 발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 전개되었고, 미국 내부에서도 민권 운동과 저항문화 운동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주변화 되어 있던 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문화의 모델은 완전한 동화를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하되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주의가 등장하면서 문제를 삼는 것은 하나의 국민국가 안에서 서로 다른 인종 집단들이나 문화적 가치가 다른 사람들끼리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정치적인 문제였다. 1980년대 이후 지구화 시대의 다문화는 분리와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자본의 손쉬운 이동과 노동력의 순조로운 이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배질서의 필요의 결과기도 하다.

◆ 문화의 속성과 연구관점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문화를 이해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으로 세 가지를 지적해왔다. 첫째,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이 공유하는 심리적 제일성이다. 같은 인류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공통분모가 있으며 이에 기반해서 특수함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문화의 상대성이다. 인간의 보편적 요소인 제일성에도 불구하고 각 문화는 그 문화를 만들고 영위해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연환경과 고유한 역사적 경험 같은 인문환경에 맞추어 형성된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상대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문화의 총체성이다. 문화의 속성 자체가 부분들이 단순히 모여 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기에, 각 부분들이 맺고 있는 유기적 연결을 고려하지 않으면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 문화학습의 전략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고자 할 때 중요한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개방적 자세를 갖는 것으로 이는 타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타문화의 이질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문화 중심적 행위를 지양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나 자신의 문화적 성향을 검토하며 타문화의 다른 관점에서 입장을 바꾸어 사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제2단계는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문화적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해가야 한다. 이렇게 쌓은 문화적 인식과 지식을 기능적 기술로 활용하기 위해 제3단계에서는 어떻게 '문화간-기술(cultural skills)'을 지속적으로 숙련하고, 문화적 수용력을 개발할 수 있고, 타문화 학습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제3단계까지의 과정은 제4단계에서 자신과 타인 사이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1. 자문화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자신이 속한 문화를 타문화의 가치를 판단하는 준거로 삼는다.
- ②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 ③ 적극적인 우월의식을 갖게 되기도 한다.
- ④ 자신이 속한 문화의 특질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한다.

[정답] ④

2.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를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답:]

[정답]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3.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문화는 하나의 인간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나 신념 또는 삶의 의미 체계이다.
- ② 문화는 이를 구성하는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다.
- ③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무관심'을 만들어낸다.
- ④ 문화란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삶의 총체적 체계를 의미한다.

[정답] ②

4.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에 대한 이해로 틀린 것은?

- ① 다른 문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일상생활,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 ② 당연하고 익숙하다고 생각해 온 자기 문화에 대해 '낯설게 보기'를 가능케 한다.
- ③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이 유일한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 ④ 모든 관행이나 풍습에 대해서는 절대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답] ④

5.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 ①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는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존재한다.

- ② 세계의 다양한 문화는 인간 집단들이 각각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 중 특정한 사항을 비교하면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의 우열을 가릴 수 있다.
- ④ 우리가 속한 문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와 관계없이 무조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정답] ②

6. 서구사회는 자신들만이 세련되고 조화로우며 합리적인 문화와 문명을 수립했기 때문에, 비서구 사회를 야만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비서구인들은 단순하고 문화와 문명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뒤쳐져 있다고 정의하고는 비서구 사회를 식민화하는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이렇게 서구사회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문화에 대한 자세, 믿음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 자문화중심주의
- ② 문화상대주의
- ③ 단일문화주의
- ④ 다문화주의

[정답] ①

7. 단일문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한 지역에 하나의 인구집단, 하나의 문화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당연시하는 시각이다.
- ② 단일문화주의는 규모가 작고 비교적 인종적 동질성이 강한 한국에서만 지배적인 시각이다.
- ③ 단일문화주의는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 ④ 단일문화주의에 대한 도전은 증가하는 인종갈등 등 사회적인 압력과 더불어, 인구 구성 자체가 변화하면서 일어났다.

[정답] ②

8. 1960년대 이후 완전한 동화를 강조하는 데서 벗어나 차이를 인정하되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는 문화 모델로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이 아닌 것은?

- ①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
- ② 미국 내부에서의 민권 운동과 저항문화 운동을 통한 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정 확산
- ③ 증가하는 인종갈등 등 사회적인 압력과 인구 구성의 변화
- ④ 재즈, 블루스, 가스펠 등 흑인 문화의 유행과 상업적 성공

[정답] ④

9.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은 문화를 이해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이 세 가지에 관한 아래 설명을 읽고 각각에 올바른 것을 써 넣으시오.

- ① _____: 문화는 다르지만 인류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공통분모가 있으며 이에 기반해서 특수함과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 ② _____: 다양한 문화는 누구나 공유하는 보편적인 내용의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화를 만들고 영위해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연환경과 고유한 역사적 경험 같은 인문환경에 맞추어 형성된 것이기에 갖는 문화의 속성
- ③ _____: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각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문화의 속성

[정답]

- ① (심리적)제일성
- ② 상대성
- ③ 총체성

10. 낯선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을 4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각 단계가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① 타문화에 대한 지식 축적→문화간 숙련 및 기술→개방적 자세→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 ② 개방적 자세→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타문화에 대한 지식 축적→문화간 숙련 및 기술
- ③ 개방적 자세→타문화에 대한 지식 축적→문화간 숙련 및 기술→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 ④ 개방적 자세→타문화에 대한 지식 축적→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문화간 숙련 및 기술

[정답] ③

3장. 일본

1. 일본인의 시간과 공간, 지리와 역사

① 일본인의 시간

- 일본열도에는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함. 기원전 3세기 경, 농업과 청동기, 철기의 사용이 시작. 도래인들이 간사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일본의 고대국가 발전에 기여. 이 지역에서 등장한 유력한 정치적 세력들은 3세기 말부터 거대 고분을 축조.
- 아스카시대 : 야마토 정권이 아스카를 근거로 쇼토쿠 태자의 17개조 헌법 제정과 다이카

개신을 거쳐 710년에 헤이조쿄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의 시기.

- 고대국가는 헤이안쿄 (현재의 도쿄)로 도읍을 옮기면서 율령을 반포하고 제도를 정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척이 발호하고 귀족들 간 경쟁이 벌어짐. 정권 쟁탈전에 무사들을 끌어들이면서 무사가문인 다이랴씨가 유력 정치세력으로 부상.

- 다이랴씨는 간토지역의 무사 가문인 미나모토씨에 의해 축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쇼군이 되어 1185년 동경 남쪽 가마쿠라에 막부를 열고 무가 정치가 시작.

- 전국시대 :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고 1333년 무로마치에 새로운 막부를 열음. 오닌의 난으로부터 와 노부나가 1568년 교토에 입성하여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의 시기.

- 도쿠가와시대 :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가 사망한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이 되어 동경에 막부를 연 이후 메이지유신이 일어나는 1868년까지의 시기.

- 메이지 유신 이후 : 와콘요사이를 내걸고 분메이가이카에 노력하여 국민국가 형성과 산업혁명에 성공.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거쳐 제1차 대전에서 전승국이 되어 열강의 하나가 됨.

-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 : 메이지 천황이 1912년에 사망하고 쇼와 천황이 즉위하는 1926년까지의 다이쇼 천황의 재위 기간. 다수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고 국제협조와 개방적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

- 15년 전쟁 : 5.15 사건과 2.26 사건 등, 정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군부가 1931년에 만주사변, 1937년에는 중일전쟁,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킴. 전쟁이 1931년에서 1945년까지 계속됨.

- 일본은 공식적으로 서력기원을 사용하지 않고 쇼와, 헤이세이 원호를 사용하고 있음. 원호의 사용은 논란 끝에 1979년 법제화된 것으로 히로히토 천황이 사망하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여겨짐.

- 전후 일본에서는 축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48년에는 1년 중 9일, 1966년에는 합계 12일의 축일이 제정됨. 1973년에는 국경일과 일요일이 겹쳐질 경우 그 다음날인 월요일을 휴일로 삼기로 법률이 개정. 2000년부터는 성인의 날과 체육의 날이 그 달의 2번째 월요일로 변경. 이에 따라 매년 두 번은 토요일부터 3일 연휴가 되어 '해피먼데이'라고 함.

- 일본의 국경일 체제의 이면에는 황실과 결부 되어 있음. (예: 건국기념일은 이토 히로부미가 도쿠가와 시대에 태양력으로 환산하여 양력 2월 11일로 정함. 전후에 사라졌다 애국심 고양의 취지로 1966년에 재등장, 녹색의 날은 쇼와 천황의 생일이라 전전에는 '천장절'이라 부르는 국경일인데 1989년 쇼와천황 사망 후 천황이 식물을 애호하고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이유로 자연환경보호의 이슈와 함께 휴일로 지정. 근로감사의 날은 수확에 감사하고 노동의 기쁨을 되새기는 날인데, 11월 23일이 된 것은 일본 황실에서 햇곡식이 나오면 천황가의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니이나메사이 때문임.

- 일본인의 연중행사는 과거에는 농경사회의 생활리듬이나 신앙과 관련. 1872년 메이지정부가 태양력을 도입하며 음력 날짜를 그대로 양력으로 사용. 자녀교육이나 상업적 동기와 관련되어 새롭게 형성된 연중행사도 많음.(예: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 마쓰리는 신사에서 행해지던 종교행사의 일부인데 근대 이후 종교적 목적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놀이와 축제의 성격을 갖게 됨. 현대의 마쓰리는 애향심 고향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의 기능을 함.

② 일본인의 공간

- 일본의 국토 면적은 37만8천 km²로서 미국의 25분의 1, 한반도의 약 1.7배이며 남한 면적의 4배임. 남북으로 길게 초승달 모양으로 펼쳐져 있으며 길이는 3천 킬로미터임. 지역적으로 다양한 기후와 지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생태계가 풍부함.
- 혼슈, 시코쿠, 규슈, 홋카이도 등 4개의 주요 섬과 이즈오가사와라제도 등 3천 3백여개의 섬으로 구성되며, 이를 총칭하여 일본열도라 함. 크게 8개 지방으로 구분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 둘로 나누어 간사이와 간토, 또는 동일본과 서일본으로 구분함.
- 간사이 지역은 16세기말까지 일본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교토는 오랜 동안 고대 국가의 수도로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오사카는 항구로서 유통의 중심지. 현재의 동경을 중심으로 한 간토 지역은 에도 막부 이후 정치적 중심으로 발전.
- 일본열도는 약 1만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면이 상승하여 일본열도가 형성. 국토의 67%가 산지이며 대부분은 숲으로 덮혀 있음. 강은 짧고 급류이며 산간에는 깊은 협곡이 형성되어 있음. 기후는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걸쳐있으며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화산활동이 활발하며 온천도 많고, 지진과 해일의 피해가 큼.
- 일본의 총 인구는 남한 인구의 약 3배인 1억 2천 8백만 정도이며, 세계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임. 인구 밀도는 337명으로 매우 높은 편임. 대도시권에 인구집중이 두드러져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3대 도시권에는 일본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음.
- 출생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자 수가 총인구의 약 23.1%인 약 2,929만 명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급속히 진전.

2. 사회구조: 가족과 친족 마을, 그리고 회사

① 가족생활

- 메이지 유신 이후 호적법과 민법을 제정하며 진통 끝에 가족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마련. 나폴레옹 법전의 근대적 성격을 도입하려는 노력과 일본의 급속한 서구화를 방지하고 고유의 전통을 지키려는 세력 사이의 타협의 산물.
- 전전의 가족은 도쿠가와 시대의 사무라이 가족, 즉 이에를 모델로 하여 형성. 여성과 자녀들의 인권보다는 가장의 권위가 강조. 호주는 구성원을 통솔하고 아내는 법률상의 무능력자.
- 이에는 도쿠가와 시대의 법적 존재로서 규정되었다가 전후에 법적으로 소멸. 이에는 가산을 근거로 가업을 경영하는 집단이며, 가계의 선조를 모시는 집단, 세대를 초월하여 직계적으로 존속하며 이에의 번영을 중시. 이에는 직계가족을 그 구성원으로 하며 이들이 거주하는 가옥, 택지, 하인등의 비혈연자, 죽은 조상까지 그 성원으로 인정함. 가정은 이에의 성원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며, 이를 뒷받침하는 절대적 권위를 가짐. 이에의 성원들은 가장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며 이에의 영속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함. 이러한 이에가 연합된 것은 '도조쿠'임
- 도조쿠는 하나의 본가를 중심으로 여러 분가들로 이루어짐. 이를 구성하는 이에 사이에 질서있는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도조쿠 조직'이라고 함.

② 마을생활

- 도쿠가와 시대에 기독교를 감시하기 위하여 ‘고닌구미’제도와 더불어 구미가 등장. 이는 조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권농과 근검절약이라는 교화기능을 맡기도 함. 1923년 관동대지진 후 구조 및 복구 과정에서 조나이카이의 기능에 주목.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상의하달의 주민통제 수단으로 ‘도나리구미’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 전후 미국정청에 의해 폐지된 근린조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조나이카이 또는 지치카이 등으로 부활. 이러한 근린조직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구성원으로 간주하며 행정의 말단조직으로 기능.

- 근린조직보다 큰 단위로 농촌에는 자연부락인 ‘무라’가 있으며 행정단위인 ‘손’이 있음. 메이지정부의 ‘시정촌제’에 의해 무라가 몇 개씩 합병되어 새로운 촌이 탄생함.

- 일본의 집단주의는 ‘이에’와 더불어 ‘무라’의 결합도 모델로 하고 있음. 전국시대가 끝나면서 무라가 세금의 납부 및 치안의 유지 등과 관련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단위가 되어 한국의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결합력을 가짐.

③ 근대적 조직과 전통적 인간관계

- 근대적 조직이 도입되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인간관계는 중요한 모델로 작용함. 도조쿠의 특징인 위계적 조직,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비호 및 원조와 충성 및 봉사, 은혜 의식등은 근대화 과정에서 건설, 광산, 부두 노동자 조직에서 엿볼 수 있음.

- 중소기업에서는 노사 간에 계약적, 법적 성격보다 개별적 관계가 강력한 경우가 있으며, 대기업에서도 이데올로기 적으로 이러한 의식이 강력하게 존재함. 경영자의 온정주의라는 이상은 회사가 전통적인 이에의 역할을 대신하여 구성원의 충성심을 기대하며, 회사는 종업원 개인 및 가족까지 챙겨주고 책임질 것을 기대함.

- 일본적 경영의 내용인 기업별 노조, 연공서열, 종신고용은 가족주의적 온정주의의 근대적 표현으로 간주됨. 온정주의와 가족주의는 국가의 노동 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미비와 관련이 있음. 강력한 산업별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자와 기업별 노조 간의 타협의 산물임.

④ 일본사회의 변화

- 현대 일본사회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후기자본주의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국제화 움직임에 따라 국제표준과 개방이 강조되고 있음. 개인과 회사와의 관계 역시 종래의 전인적, 몰아적 헌신에서 기능적, 이해타산적 관여로 바뀌어가고 있음.

3. 종교생활

- 일본인들은 세계를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인식하거나 육체와 정신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음. 일상적 생활이나 신도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과 죽음, 청정과 부정의 관념임. 생명이 고갈된 상태인 게가레는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이므로 정화 의례를 통해 깨끗이 해야 악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청정을 회복하면 본래의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본래의 생명력을 최고의 선으로 여김.

- 불교가 44.8%, 신도가 49.6%, 기독교가 0.8%, 기타가 4.8%로 나타남. 신도는 하나의 체계적인 믿음이라기 보다는 여러 정령등을 둘러싼 원시적인 믿음과 관행의 총체로 조상숭

- 배의 관념을 핵심으로 함. 현대 일본인에게 신도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아이덴티티의 일부임.
- 서구기독교와 달리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으며 제설혼합주의를 볼 수 있음. 불교 사찰과 신사처럼 서로 다른 종교시설이 같은 경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의 종교의 사제가 다른 종교의 사제 역할을 하기도 함.
 - 불교 : 6세기에 유입되어 급격히 성장한 불교는 일본화 되어 신도의 구별은 모호함. 도쿠가와 시대에는 모든 일본인들이 불교 사찰에 관련을 갖도록 함. 메이지 정부는 신도를 국가 종교로 하기 위해 불교와 신도를 분리하고자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함.
 - 유교 : 일본을 유교국가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도쿠가와 시대 이후 의무교육을 통해서라는 지적이 있음. 일본에 수입된 유교는 종교적 색채를 상실하고 인간관계와 국가의 통치에 관한 세속적이며 윤리적인 철학으로 변화함. 중국에서는 인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었으나 일본에서는 충이 집중적으로 강조됨. 중국에서 충은 자신의 양심에 대한 성실을 뜻하지만, 일본에서는 군주에게 전심전력하여 봉사하는 의미임.
 - 신흥종교 : 청소년 범죄, 노인문제, 도덕의 변화, 정치적 부패 등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일본의 신흥종교는 나름대로의 접근을 제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소카각카이 등은 한 때 신도 규모가 1천 5백만을 넘었으며 엄청난 조직과 자금력을 가지고 고메이토를 창당, 정치에 진출하여 논란이 됨. 신흥종교의 신도들은 과거 하층 도시민이 많았으나 오음 진리교 사건에서 나타나듯 전형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독교 : 16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됨. 전국시대에는 일부 영주들의 후원을 받음. 전투에서 서구의 군사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짐. 이후 탄압의 대상이 됨.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일본화 되지 않았으며 선교사의 상당수가 외국인임. 기독교의 엄격하고 비타협적인 도덕성이 세속적 욕망에 관용적인 일본사회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 기독교는 일신교로서 일본의 초자연세계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기독교의 사회적 중요성은 기독교 복지기관의 역할에서 나타남.
 - 종교인구는 전후 50년간 서서히 저하하는 경향임. 1945-54년간 종교인구가 50% 이상이었으나, 1975년 이후에는 30%로 나타남.

4. 일본문화론

- 도쿠가와 시대에 들어와 300개의 번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근대적 국민국가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서구에 대한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자존 노력을 전개. ‘니혼분카론’ 또는 ‘니혼진론’라는 독특한 논의들은 국민통합과 문화적 자존 노력의 산물. 니혼분카론은 일본사회의 동질성, 합의, 화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소수는 일본사회의 전근대성을 강조하며 비판적으로 이해하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예 : 일본인의 국민성은 무사도 정신을 원형으로 함, 해양성 풍토 때문에 서구 문명과 유사한 문명을 평행적으로 진화시킴, 응석을 기초로 인간관계가 발전하기 때문에 자아의 관계가 관계 중심적임)
- 니혼분카론 방식의 설명이란 “일본문화는 다른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인의 행위도 “다른 나라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과 같음. 이러한 설명 방식은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함. 이러한 방식의 설명이 가진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점과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간과하면 안됨.
- 문화론적 설명의 비판자들은 자료의 선택적 사용이나 일반화 등에 비판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선택성이란 문화론적 설명의 약점인 동시에 일목요연한 상을 제시할 수 있어 오히려

려 설득력의 원천이 되기도 함. 다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더라도 문화 내의 다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용어해설

야마토 정권

- 일본 최초의 통일정권으로, 3세기 말에서 645년 6월 다이카개신[大化改新]이 일어날 때까지 일본을 지배하였다. 시대구분상 일본 고대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3세기에 여왕 히미코[卑彌呼]가 다스리는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30여 개의 연합국 시대를 거쳐, 4세기 초에는 긴키내[近畿内]의 야마토를 중심으로 통일국가가 생겼는데, 이 통일국가를 지배한 정권이 야마토정권이다.

야마토정권에 이르러 한반도와 중국 대륙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이들을 귀화인 혹은 도래인(渡來人)으로 부른다. 특히 4세기 말에 백제에서 한자와 유교가 전래되고, 6세기 중엽에는 역시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면서 일본의 문화 수준은 향상되었다. 이어 일본의 불교를 중흥시킨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아버지 용명천황(用明天皇)을 대신해 섭정하면서 소가씨[蘇我氏] 등 여러 호족들과 협력해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의 틀을 다져나갔다.

쇼토쿠태자는 고구려 승 혜자(惠慈)와 백제 승 혜충(惠聰)으로부터 불교를 배운 인물로,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사원인 호류사[法隆寺]를 비롯해 각지에 사찰을 세워 일본 불교의 황금기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622년 쇼토쿠태자가 죽고, 645년 6월 황족(皇族)인 나카노 오오에노[中大兄]와 나카도미노 가마타리[中臣鎌足]가 중심이 된 세력에 의해 정권을 전단하던 소가씨가 살해된다.

다음날 고토쿠[孝德] 천황이 즉위하고, 처음으로 연호를 정해 645년을 다이카[大化] 원년으로 삼아 이듬해 1월부터 본격적인 개혁정치를 단행하였다. 이 개혁이 다이카개신으로, 이로써 야마토정권도 막을 내리게 된다.

메이지 유신

- 이는 선진자본주의 열강이 제국주의로 이행하기 전야인 19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과정으로 그 시기는 대체로 1853년에서 1877년 전후로 잡고 있다. 1853년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M.C.페리 제독이 미국 대통령의 개국 요구 국서(國書)를 가지고 일본에 왔다. 이때 유신의 싹이 텄고, 1854년 미·일 화친조약에 이어 1858년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러시아·네덜란드·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칙허 없이 처리한 막부(幕府)의 독단적 처사였으므로 반막부세력이 일어나 막부와 대립하는 격동을 겪었다. 그러다가 700여 년 내려오던 막부가 1866년 패배하였고, 1867년에는 대정봉환(大政奉還)·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메이지 정부는 학제·징병령·지조개정(地租改正)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기치하에 구미(歐美) 근대국가를 모델로, 국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관주도의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여 새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군국주의의 종말은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유발하였고, 1941년에는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비극을 자초

하였다.

형성평가

1. 니혼분카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라)

가. 무사도 정신 나. 동질성 강조 다. 니혼진론 라. 문화 내 다양성 존중

4. 중국

1. 중국에 대한 개관

- 중국이라는 명칭이 확립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 이 명칭은 춘추시대 경에 출현. 그 당시에 중국은 지역의 중심에 있는 나라를 뜻하는 보통명사임. 19세기 중반 아편전쟁 이후 청조의 모든 영토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정착됨. 국가를 가리키는 정식 명칭이 된 것은 1912년 중화민국 건립과 함께 중화민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면서부터임. 오늘날 중국이라고 하면 중국대륙에 대한 합법적 통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영토.
-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나라이며 지리적 환경과 민족구성만 보더라도 엄청난 다양성을 지닌 나라임.

① 지리적 환경

-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부분에 위치함. 세계3위의 대국이며,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인구가 살고 있음. 중국인들은 흔히 지세를 비롯한 자연조건의 차이와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륙을 내지와 변방으로 구분함. 동부지역을 가리키는 내지는 관개를 이용한 집약적 농업경제가 발달하여 인구밀도가 높음. 서부의 변방은 건조농업이나 오아시스 농업을 수반하는 조방적 목축경제가 중심을 이루며 인구밀도가 낮음. 자연조건의 차이 때문에 변방이 내지보다 면적은 더 크지만 인구는 전체의 5%에 못 미침.
- 현재 변방으로 간주되는 지역은 과거 청조의 변경지대에 속해 있다가 청조 영토로 편입된 곳임. 이런 연유로 소수민족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음. 내지와 변방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음. (예 : 내지의 전통적 종교는 지배민족인 한족이 주로 믿어온 유교, 도교, 대승불교와 민간신앙인 반면, 변방에는 소수민족들의 고유한 종교인 라마교, 이슬람교와 기타 민간신앙이 주를 이룸) 근래에는 한족의 대량이입으로 지배민족인 한족과의 혼혈과 문화적 동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서에서 동으로 대륙을 가로질러 흐르는 두 개의 큰 강인 황허와 양쯔강을 중심으로 북방과 남방으로 구분 됨. 황허 유역은 양쯔강 유역에 비해 더 춥고 평평하고 건조하며 밀, 기장과 같은 곡식의 재배에 적합함. 건조한 기후 때문에 가뭄이 자주 발생하며 홍수 피해도 심한 편임. 양쯔강 유역은 산성 토양이 많으며,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 쌀 재배와 이모작을 하기에 적합함.
- 베이징으로 대표되는 북방은 육로교통에 의존한 반면, 남방은 배를 이용한 교통이 발달함. 북방과 남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수나라 건설된 대운하 덕택임. 이 운하는 남방에서 생산된 쌀과 물자를 북방으로 나르는 운송로 역할. 남방 물자의 집산지이자 연안 해운업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는 북방과 남방의 교차점이자 해양 진출의 창구. 당대 후기로부터 북방은 정치 중심지였으며, 남방은 경제 중심지로서 꾸준히 발달함. 베이징과 상하

이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임.

- 남방은 한족이 오랜 세월을 걸쳐 정복과 이주를 통해 지배권을 확립한 곳임. 고립적인 환경을 가진 주거지가 많이 존재함. 그 결과 남방 곳곳에 소수민족의 문화와 한족 방언들이 잘 보존되어 있음.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가 크지 않은 북방과 달리 남방의 방언들은 차이가 큼. 북방인은 대체적으로 남방인보다 키가 더 크고 건장함.

② 민족 구성

- 중국은 한족을 비롯하여 모두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임. 2010년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한족은 전체 인구의 약9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인구수로는 한족이 12억 명을 상회하는 데 비해 나머지 55개 소수민족은 모두 합쳐 1억명 정도밖에 안된다. 주요 소수민족으로는 인구수 1600만 명의 장족을 비롯하여, 회족, 위구르족, 이족, 묘족, 만주족, 티베트족, 몽고족, 토가족, 포의족, 조전족 등이 있음.

- 소수민족의 인구비중은 적지만,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점유면적은 크다. 이들의 집중 거주지가 대부분 티베트, 신장, 내몽고르 포함하는 변방 지역에 위치함. 이 지역들은 목축업과 일부 농업이 발달해 있고 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상품경제가 별로 발달하지 못해 소득수준이 낮음.

- 중국공산당은 민족자치 원칙에 입각하여 소수민족 인구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자치구를 비롯한 소수민족 자치지구를 설정함. 자치구는 모두 5개로 몽고족 자치구, 티베트족 자치구, 장족 자치구, 위그루족 자치구, 회족 자치구가 있음. 이 곳에서는 한어와 함께 소수민족 언어와 문자가 공식 사용되며 민족학교를 세워 자신들의 언어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함.

- 하나의 민족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순수한 민족 집거지는 소수이며,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과 함께 섞여사는 것이 보통임. 결혼과 문화적 동화를 통한 한족화 현상이 강화됨. 한족화는 소수민족의 자발적 적응이기도 하지만, 한족 지배자들이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추진하기도 하였음. (예 : 청조는 구이저우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묘족의 종교행사를 금지시켰고, 전통적인 의상과 머리 모양을 버리도록 강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지방 민족주의 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민족언어와 문자, 민족학교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민족동화를 강력하게 추진함. 민족자치가 법적으로 보장된 오늘날에도 정부가 장려하는 것은 고유의상, 춤, 노래, 축제 등의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음. 종교적 요소 같은 것은 회석되거나 배제되는 경향임.

2. 가족과 종족

- 중국에서 가족과 종족은 국가를 포함하는 모든 조직의 기초이자 모델.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인들의 관념과 행동에 구속력이 있음.

① 전통적 관념과 제도

- 중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아'임. 좁은의미로 지아는 가부장을 정점으로 그의 남계친 자손들과 그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공동생산, 공동소비 생활을 하는 경제적 가족을 가리킴. 맥락에 따라서 같은 조상에 대해 공동의 제사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일종의 종교적 가족을 가리키기도 함.

- 아버지 쪽 혈통을 따르는 부계사회이며, 구성원의 충원 역시 부계혈통에 따라 이루어짐.

아들이 없는 경우 입양을 통해 충원이 이뤄졌는데, 부계집단의 조직화가 잘 이루어진 동남부지역에서는 부계혈통의 전통이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졌음.

- 우리나라에서는 종손이 문종을 대표하는 것에 반해 중국의 종족 혹은 족은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으며 명망이 있는 족장에 의해 통솔됨. 족 아래로는 방 혹은 지라 불리는 하위조직들이 있어 방장의 책임 하여 그에 속한 개별 가족들을 통솔. 족장과 방장은 세습이 아니라 형식상 모두 추천에 의해 선발. 족장은 종족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으로서 전통사회의 가족질서를 유지하는 중심일뿐 아니라 국가를 대신하여 기중 가족들을 관리하는 역할 수행.

- 종족집단은 동족촌락의 형태로 존재. 혈연과 지연으로 결합된 동족집단을 구성. 대부분의 동족촌락은 하나의 촌락이 하나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몇 개의 촌락에 걸쳐 거주하는 대규모의 집단을 형성하기도 함.

- 종족집단들 간에는 종종 살상에 이르는 싸움이 벌어짐. 계투라고 불린 종족간 싸움은 광둥과 푸젠 지역에서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 대개는 농경지, 묘지 등의 경계나 관개용수자원 문제 등 이권을 둘러싼 싸움. 이런 싸움은 세력이 강한 종족이 약한 종족을 착취하려는 것이 발단이 됨.

- 약한 종족들은 강한 종족의 정치적, 경제적 통제 속에 편입. 서로 다른 성씨집단들이 신회적인 공통점을 내세워 동맹을 맺는 경우도 있음. 지역적으로 조직화된 종족집단은 조상숭배를 위한 의례적 집단을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성격을 가짐.

② 사회주의 하의 변화

- 중국공산당에 의해 주도된 사회주의 혁명은 전통적으로 가족과 종족집단이 그 구성원에게 행사해왔던 권위와 기능을 국가가 대체하는 작업임.

- 전통시대에는 국가의 통제력이 기층사회에 미치지 못해 세금과 국가방위가 보장되는 한에서 기층사회의 자율성을 허용. 이는 관부와 기층 백성 사이의 타협임. 향신은 이 양자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함. 국가를 대신해 농민을 교화하고 기층 백성들의 의사를 상부에 전달하는 역할.

-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향신과 지주계급, 가족, 종족집단은 모두 봉건질서의 일부임. 혁명정권은 이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운동을 시행함. 종족 공동소유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고, 사당을 파괴하고, 족보를 파괴하고, 제사를 금지시킴.

- 개혁개방 이후 전통적은 사회관계가 다시 활성화됨. 종족 사당을 복원하고 족보를 다시 간행하는 곳들이 많이 나타남. 중국정부가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내세워 간소화된 의례를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성대한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루고 있음.

3. 남성과 여성

- 중국 전통사회에서 개인보다 가족의 이익을 중시하는데 이런 가치관을 가족주의라 부른다. 이는 가족구성원의 생각과 행위를 가족 이익에 얼마만큼 공헌하느냐에 따라 평가하는 사고방식임. 개별 구성원이 가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사회적 제약이 가해짐.

- 윤리적 윤리도덕에 근간을 두고 가족의 조화와 유대를 강조하는 가족주의는 남성과 연장자의 이익에 공헌하는 이데올로기임. 중국의 전통가족은 세대, 연령, 성이라는 세 가지 관계의 축에 따른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음.

① 전통시대의 여성

- 남성중심주의 가족문화에서 여성은 열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게 된 것은 송대 말기 신유학이 확립되면서 보수적인 관점이 강화되었기 때문임. 명 왕조가 중국 토착문화로의 회귀를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한 후 엄격한 여성적 덕목이 일반 가정에서까지 강조. 이러한 문화는 명청조에 최고조로 발전함.
- 송말에 등장한 신유교는 음/양, 안/밖의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규정함. 유교에서는 양과 음을 우월과 열등의 관계로 파악하였음. 남성은 양의 요소가 많고 여성에게 음의 요소가 많다는 것이 설명임. 음양우주론 속에서 남성이 우월성이 당연시 됨.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유교적 도덕관은 이러한 세계관을 반영함. 안과 밖의 구분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구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 전통사회는 이런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었음.
- 기혼여성에게 집이 생활의 중심이었으며, 집안일이 직업이었음. 어머니는 가사와 자녀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할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강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음. 아들들이 장성한 이후 어머니는 이런 유대의 바탕 위에 가정의 일에 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음. 마저리올프는 가부장적 가족문화 제약 하에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런 가족을 '자궁가족'이라고 부름.

② 가족혁명과 여성

- 19세기 말부터 서구사상의 충격과 산업발달로 인하여 여성차별적인 유교적 가족문화는 도전받음. 19세기 말 개혁적 정치가들에 의해 가족제도의 개혁이 공론화되고, 20세기 이후 지식인 엘리트층 중심으로 보수적인 가족문화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짐.
- 1950년 공포된 혼인법은 부모의 강압에 의한 결혼, 남존여비,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는 봉건적인 혼인제도의 폐지를 명문화함. 혼인의 자유와 일부일처제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남녀의 권리 평등, 부녀자와 자녀의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보호를 천명함. 공산당의 노력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대, 연령, 성에 따른 차별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놓음
- 여성노동의 사회화가 여성을 봉건적 가족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함. 대약진 운동을 계기로 집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 여성노동자의 기여가 커짐에 따라 성별분업의 세목들이 바뀌기 시작함. 문화대혁명은 여성들이 생산뿐 아니라 정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함. 정치적 집회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강하고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시됨.
-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는 전통적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음. 사회주의 혁명이 가져다준 경제적, 정치적 참여의 기회와 주부의 역할을 모두 지켜야 하는 이중적 부담의 고통이 나타남.
- 개혁개방 시대의 경제적 풍요와 소득 격차는 여성에 대한 관념과 여성의 지위에 새로운 변화와 문제점을 야기. 최근 여성성을 강조하는 담론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쏟아져 나옴. 마오쩌둥 시절 찬양의 대상이었던 중성화된 여자는 웃음거리로 전락. 최근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들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과 가사에 전념하는 여성의 늘어남. 향락산업이 발달하면서 성매매등의 성의 상품화 현상, 인신매매성 결혼 등의 문제들이 중국이 성평등과 관련하여 이룩한 성과들을 퇴색시키고 있음

4. 민간신앙

① 혼성성과 실용성

- 중국인들에게 초자연적 세계는 중요한 관심사였음. 주나라 때부터 조상숭배를 비롯한 다양한 신들에 대한 믿음, 종교적 의식이 있었음. 중국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무수한 현지 종교와 신과 의식을 흡수. 민간신앙은 국가적 종교였던 유교, 불교, 도교와의 관계에서 경쟁과 보완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 중국의 민간신앙은 혼성적인 것으로 그 속에는 다양한 종교에서 흡수한 많은 요소가 섞여 있음.
- 민간신앙의 또 다른 특성은 실용성임. 도교의 도관에 가보면 다른 신앙체계에 속한 신들이 한 곳에 모셔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이론상으로 보면 다른 신앙체계에 속한 신들을 같은 장소에 모시는 것이 문제가 있으나 실용성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에게 이론적인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님. 여러 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효능을 자신들이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김.

② 현재지향성

- 중국인들의 상상세계 속에 존재하는 귀신은 인간과 거의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 귀산과 인간의 근접성은 귀산이 산 사람과 사랑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극적으로 표현됨.
- 중국인의 사후세계는 현실세계의 구성을 반영함. 사후세계는 인간세상과 마찬가지로 직업이 있으며, 의식주를 필요로 함. 제사를 지낼 때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 준다든지, 장례식에서 종이돈과 종이로 만든 말, 집 등을 태우는 풍습은 죽은 조상이 저승에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믿음에 근거함.
- 중국인에게 사후세계는 현실의 관료체계를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상상됨. 저승은 현실의 관료체계처럼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 옥황상제는 황제와 같은 존재이며, 옥황상제의 의관은 진한시대의 황제와 같은 모습입니다. 옥황상제 아래로는 중앙관료에 해당하는 성황신, 토지신, 조왕 등이 있는데 이는 현실세계가 투영된 결과이다.
- 중국인들은 현세에 살았던 영웅들을 신격화하여 신으로 섬기는 전통이 강하다. 민간에서 믿는 많은 신들은 현세에 살았던 결출한 인간들의 혼백임. 신화에 나오는 염제, 우임금, 후직 등도 인간세상에서 커다란 공적을 쌓아 신의 반열에 오른 존재들임. 가장 유명한 사례는 관우 신앙임. 관우를 숭배하는 신앙은 중국대륙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한국, 일본, 미국 등 전세계 퍼져 있음. 관우는 과거 급제에서부터 사업 성공, 질병 치유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만능신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 관우는 국가적인 신앙의 필요성을 절감한 여러 왕조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신으로 위치가 높아짐.

3. 국가와 민간 신앙

- 중국의 지배 엘리트는 민간신앙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 옴.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신앙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고 국가의 종교적 상징체계 속에 편입시켰지만, 다른 한편 미신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공격함.
- 중국공산당 역시 민간신앙에 대해 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공산당 지도자와 지식인에게 민간신앙은 구사회의 잔재로 비취짐. 이러한 이유에서 문명화된 의례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1940년대 말 텐진지역을 장악한 공산당 지도부는 민간숭배의 대상인 관제묘와 토지묘, 절에 대한 파괴를 시행. 의례를 가정이라

는 사적 공간에 국한시키며, 점차 민간신앙이 퇴색됨.

－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민간신앙과 전통의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으며, 묘제는 미신적 믿음에 근거해 있다는 이유로 금지. 장례의 절차는 간소화되고 전통적 매장 대신 화장이 도입.

－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많은 지역에서 민간신앙과 의례의 활성화 현상이 나타남. 중국 정부가 비판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민간신앙과 의례가 성행하는 것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가 약화된 현실과 관련이 있음. 국가적 관심이 경제성장이 맞춰짐에 따라 종교 신앙과 문화 활동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고, 이 틈에 사적인 신앙과 의례에 대한 욕구가 다시 발현 됨. 다양한 전통문화 요소를 국가통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문화정책도 이런 현상을 촉진 하는데 기여함.

용어해설

문화대혁명

－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주도된 사회주의에서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대중운동이었으며 그 힘을 빌어 중국공산당 내부의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권력투쟁이었다.

농업국가인 중국에서 과도한 중공업 정책을 펼쳐 정책 국민경제가 좌초되는 실패를 가져왔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주의 정책의 일부를 채용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류사오치(유소기)와 덩샤오핑(등소평)이 새로운 권력의 실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권력의 위기를 느낀 마오쩌둥은 부르주아 세력의 타파와 자본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이를 위해 청소년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각지마다 청소년으로 구성된 홍위병이 조직되었고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휩쓸어 중국은 일시에 경직된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다.

대약진운동

－ 중국은 제2차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58년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하여 제기된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 주도하에 경제의 대약진과 인민공사(人民公社)를 설립하는 전국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삼면홍기(三面紅旗)는 ‘총노선’ ‘대약진’ ‘인민공사’ 등 3가지 경제정책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이었다. 중국의 발표에 의하면, 제2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58년의 농공업생산 총액은 전 년비 48% 증가를 보였다고 하고, 그 후 계속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성장지수는 과장된 보고에 의한 것이었으며 59년부터 계속 3년간 자연재해가 있었고, 구(舊)소련이 60년 이래로 경제원조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데다 중·소관계가 악화된 점 등의 원인으로 대약진정책은 중도에서 좌절되었다.

두 번째의 대약진은 화궈펑[華國鋒]이 집권, 사인방(四人幫)을 체포하고, 77년 5월 9일 중국 공산당 제10기 3중전회(三中全會: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공업은 다칭[大慶]을 배우자. 농업은 다자이[大寨]를 배우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혁명을 계속 추진할 것을 외치면서 크게 추진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래서 예젠잉[葉劍英] 등 원로들이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가 이미 죽은 후이기 때문에 톈안먼사건[天安門事件]으로 물러났던 덩샤오핑[鄧小平]을 다시 끌어내어 마오쩌둥의 좌익노선을 점차 배제하면서 수정주의 노선을 택하였다.

마오쩌둥

- 자 루즈[潤之]. 후난성[湖南省] 상탄현[湘潭縣] 사오산[韶山] 출생.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8세 때 초등학교에 입학, 1909년 동산[東山]고등소학에 들어갔다. 1911년 10월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혁명군에 입대하였다가 1912년 제대한 뒤 제1중학에 입학하였으며, 다시 제1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대학 공부나 외국 유학을 하지 못한 그는 이 학교에서,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중국의 봉건사상 비판에 힘썼던 교사 양창지[楊昌濟]를 만났고,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19년 5·4 운동 발발 후 후난 학생연합회를 설립하고 《상장평론[湘江評論]》을 펴냈으나 곧 금지당하고, 베이징으로 도망쳐 러시아 혁명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1920년 상하이[上海]에서 천두슈[陳獨秀]를 만났으며 다시 창사로 돌아와 1924년까지 창사 제1사범학교의 부속소학교 교장 겸 사범부의 어문(語文) 교사가 되었다. 1920년 겨울 양창지의 딸 양륜후이[楊潤慧]와 결혼하였고, 1921년 7월 상하이의 중국공산당 창립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후난성 대표로서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 출석하였다.

1924년 국공합작(國共合作)이 되자 공산당 중앙위원, 국민당 제1기 후보, 중앙집행위원, 선전부장 대리, 중앙농민운동 강습소장, 정치주보 사장 등을 겸임하였다. 1926년 장제스[蔣介石]의 숙청으로 상하이에 갔다가 1927년 우한[武漢]으로 가서 중국공산당 중앙 농민부장이 되었고 국공분열(國共分裂) 뒤 농홍군(農紅軍) 3,000명을 조직하여 징강산[井岡山]에 들어가 근거지로 삼고 주더[朱德]의 군대와 합류하였다. 이듬해 공농홍군(工農紅軍) 정치위원이 되었고, 1930년 홍군 제1방면군 군사위원, 중국 공농혁명위원회 주석에 올랐다.

1931년 장시성[江西省] 루이진[瑞金]의 중화 소비에트정부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이 되었고, 그 인민위원회 주석으로 뽑혔다.

1945년 4월 중앙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정치 보고를 통해 연합정부론을 발표하였고, 중앙위원회 주석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인 1945년 8월 충칭[重慶]에서 장제스와 회담하여 화평건국의 제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그는 국민당과 1946~1948년의 내전에서 승리하였고,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우고 국가주석 및 혁명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뽑혔다. 1949년 12월 소련을 방문하여 1950년 2월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과 기타 협정을 맺었다. 마오쩌둥은 1965년 10월 이후에는 당내에서 완전 고립되어 연금상태에 있었으나, 1966년 문화대혁명을 통해 ‘마오쩌둥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홍위병을 앞세운 문화대혁명을 통해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실력자들을 물리치고 다시 권력을 잡았다.

1968년 10월 마오쩌둥은 1959년부터 국가주석으로 있던 류샤오치[劉少奇]를 실각시켰고, 1969년 마오쩌둥과 린바오[林彪]체제가 확립되는 듯하였으나, 1971년 9월 린바오는 반(反)마오쩌둥 운동에 실패하여 죽었다. 1970년 헌법수정초안을 채택하여 1인 체제를 확립하고 중국 최고지도자로 군림하였다.

그의 생애에서는 중국의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고, 중국을 통일하여 외세에 의해 국토를 유린당한 중국인들의 굴욕감을 씻어주며, 관료제도를 견제하고 대중의 정치참여를 유지하여, 중국의 자립을 달성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개혁 정책인 대약진 운동은 실패로 끝난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1981년 덩샤오핑이 정권을 잡은 중국 정부에서는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내란이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형성평가

1. 다음 중 중국의 지리적 조건과 문화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가. 중국의 내지는 변방에 비해 인구밀도가 훨씬 높다.

나. 중국의 변방에는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한다.

다. 중국의 남방은 황허 유역이 중심이 되며 경제가 발달해 있다.

라. 중국의 북방은 언어의 지역적 차이가 크지 않다.

2. 다음 중 중국의 가족과 가족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나)

가. 중국의 가족은 부계혈통에 따른 가계 계승을 그 기본 원리로 한다.

나. 중국 전통사회에서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간주된 것은 핵가족이다.

다. 보통 분가할 때 제사를 책임지는 장남에게 따로 한 몫을 준 다음 나머지 재산을 형제들이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국의 전통이다.

라. 중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가족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하였다.

3. 다음 중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열악한 지위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다)

가. 삼종지도 나. 전족 다. 자궁가족 라. 동양식

4. 다음 중 중국의 종족을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요소가 아닌 것은? (가)

가. 신사 나. 족전 다. 사당 라. 가보

5. 다음 중 중국 민간신앙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

가. 혼성성 나. 실용성 다. 현세지향성 라. 배타성

5. 동남아시아(1): 도서동남아

1. 동남아란 무엇인가

① 동남아라는 명칭이 갖는 의미와 그 역사

– 동남아(Southeast Asia)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최근 일임.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이 전쟁 수행 상의 필요로 동남아 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들이 ‘동남아’라고 명칭하며 이 지역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활발히 시작한 이후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됨. 즉 동남아라는 지역 명칭이 일반화되는 과정에는 미국의 국제전략적 필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15세기 이전까지 유럽인에게 동남아 지역은 인도의 갠지스강 너머에 있는 미지의 땅이며 금과 은이 풍부한 것으로 상상됨. 콜럼버스가 대서양쪽으로 항해를 떠난 이유도 인도 너머 금과 은이 풍부한 장소가 있다고 믿고 항로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음. 동남아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유럽의 동양학자들이 이 지역에 부여한 명칭은 ‘인도저편’이라는 표현임. 유럽의 동양학자들에게 동남아는 인도의 공간적 연장으로, 동남아 문화는 인도 문명의 부속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함.

– ‘동남아’, ‘남양’, ‘바람 아래에 있는 땅’, ‘인도 저편’이란 용어는 타자에 의해 부여된 명칭들임. 동남아인 고유의 지역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동일한 지역집단에 속한 것으로 인식할 필요나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줌. 1967년에 결성된 동남아

국가연합(ASEAN)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지역협력체의 형성을 동남아 국가 스스로 추진한 최초의 시도임.

② 다양성 속의 통일성

－ 동남아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문화적 다양성 또는 혼종성임. 하지만 독자적인 문화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사성과 동질성이 존재함. 동남아 문화의 공유된 실체를 찾으려는 일군의 학자들은 그것을 동남아 원문화나, 인도 문화의 광범위한 영향에서 발견하고자 함.

－ 리이드(A. Reid)는 동남아의 원문화가 특정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함. 연중 강우량이 풍부하고 기온이 높은 열대 기후의 특성을 지님. 생태적 유사성 때문에 의식주 문화에서 공통점이 많이 발견됨. (예 : 주상가옥, 오락, 악기, 문신, 정령숭배, 양변 친족제,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지위, 명예와 은혜의 관념)

－ 동남아의 독자적인 원문화의 존재를 주장하는 입장에 반해, 유럽의 동양학자들은 인도 문명이 동남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폭넓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 힌두, 불교 문화가 동남아 지역에 전파되는 과정은 서기 1, 2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16세기까지 이루어지는 데 이 과정을 동남아의 인도화로 명명.

－ 인도문명의 전파는 군사적 정복에 의해서가 아닌 상업적 교역활동을 통해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동남아 지역을 방문한 인도 상인, 브라만 사제, 불교 승려의 역할이 컸으며, 동남아의 왕족과 귀족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적극적. 인도 문명의 영향은 지배계급의 고급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동남아의 많은 지역에 힌두사원과 불교사원이 산재해 있고, 신왕과 시바신에 대한 숭배가 퍼져있음. 산스크리트 문자가 크레트, 태국, 미얀마 문자의 모체가 되어 있으며, 인도의 대표적 서사문학인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가 동남아 춤과 음악, 부조와 벽화 등에 주요 소재로 활용 되고 있음.

③ 동남아 문화의 분화

－ 동남아의 원문화나 인도문명의 영향은 동남아 문화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요소이나 현대의 동남아는 매우 다양한 문화적 모습을 보여줌. 동남아의 문화적 다양성은 이 지역이 동서교역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 무역로를 통해 인도문명 뿐 아니라, 중국문명, 아랍문명, 서구문명이 들어옴으로써 혼성적이고 중층적인 문화를 형성.

－ 오늘날 동남아 문화는 대륙동남아와 도서동남아로 구분하여 살펴볼수 있음. 대륙동남아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포함함. 도서동남아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를 포함함. 대륙동남아와 도서동남아 모두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12-13세기 이후 대륙동남아에는 상좌불교가 퍼져나가고 도서동남아에는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종교적으로 분화되어 감. 대륙동남아의 불교문화, 도서동남아의 이슬람문화는 두 지역의 문화적 성격을 구분하는 두드러진 현상임. 정치체계에 있어서 대륙동남아는 농업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적인 국가, 도서동남아에서는 해상교역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적 국가가 성장한 역사적 차이가 존재함.

－ 16세기 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들이 동남아의 특산물인 향료를 얻기 위해 이 지역에 진출한 것을 기점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 약 400년간에 걸쳐 유럽의 식민지배가 확대. 초기에는 말라카, 마닐라, 자카르타 같은 무역거점 도시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19세기부터는

유럽의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영토지배에 나섬.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 모든 지역이 서구의 식민지가 됨.(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스페인과 미국: 필리핀, 프랑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지배)

- 서구의 식민지배는 동남아 지역의 도시화, 상업화, 서구적 행정체제와 교육제도 도입 등 근대화 과정을 촉진시킴. 현재의 동남아 국가 영토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식민지배와 함께 기독교 전파도 함께 진행됨. 스페인이 지배한 필리핀에서는 가톨릭화가 체계적으로 추진. 불교도와 무슬림에 대해서는 종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선교활동을 자제함.

- 본격적 식민통치가 시작된 19세기 중엽 이후 중국인과 인도인의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짐. 동남아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숫자는 전체 인구 5억 중 5%를 차지함.(1990년 기준) 중국과 동남아 지역 간 교류는 11세기 이후 해상무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2. 양변친족제와 여성

① 양변친족제의 특성

- 동남아 친족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형태는 양변(bilateral) 친족제임. 동남아에서 모계와 부계 친족제도 발견되지만 양변제가 가장 폭넓게 퍼져있는 친족형태이며 동남아 원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됨. 동남아 여성의 지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양변제와 관련되어 있음. 양변친족제는 필리핀, 자바, 보르네오, 술라웨시, 수마트라, 말레이시아 반도 같은 도서 동남아 전 지역에 일반적으로 나타남. 가부장적이고 부계적인 가족운리를 갖는 이슬람, 불교, 가톨릭, 유교가 깊이 침투하였지만 친족 구성원리로서 양변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음.

- 양변친족제는 재산과 지위에 대한 권리와 혈통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계승되는 것을 의미함. 동남아의 친족명칭은 혈연에 대한 이러한 양변적 인식을 반영함. 친족 명칭에서 세대 그리고 직계와 방계는 구분되지만, 아버지 쪽 친척과 어머니 쪽 친척은 구별되지 않음. 개인호칭에 있어서 동남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성이 없고, 단지 개인의 이름만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혈통의 계승을 단선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반영.

- 가족형태에 있어서 핵가족이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지만, 직계가족도 나타남. 양변제에서 직계가족의 형성은 가계의 혈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보다는 가족의 발전주기에 따른 현실적 필요에 대응한 결과임. 직계가족의 형태가 시간적으로는 지속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성원은 끊임없이 바뀌는 순환적 직계가족임.

- 양변제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쪽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과 인척을 포함하는 사회적 연결망으로서 개인친속이 종족집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 상호부조, 혼인, 장례와 같은 중요한 통과의례의 수행, 방어, 복수를 행하는 데 개인 친속 관계가 동원됨. 6촌 이내는 가까운 친척,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을 먼 친척으로 간주함. 보르네오섬의 이반 족의 경우 한 개인이 6촌 이내의 가까운 친척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

- 개인 친속에 따른 사회적 연망은 지역간 협력을 구하는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함. 동남아 사회에서 마을 구성원의 대부분이 양변적 친척관계나 인척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발견됨. 이반족 장옥 커뮤니티에서는 장옥에 거주하기 위해 이미 살고 있는 사람과 혈연관계나 인척관계가 있어야 함.

② 혼인과 이혼

- 동남아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낯선 사람보다는 친척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6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도 종종 성립함. 친척간 혼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간 혈연관계는 여러겹으로 중첩되어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함.
- 신혼부부는 경제적 형편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신랑의 부모집이나 신부의 부모집, 또는 새로운 장소에 거주지를 선택함. 실제로는 처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모녀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가사 일을 친정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부인이 원하기 때문임.
- 동남아 사회에서는 이혼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여성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며 이혼 후 생활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용이하게 때문임. 과부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이 없으며 재혼 또한 용이하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임
- 말레이 이혼사례에 대한 연구는 높은 이혼율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이혼을 먼저 요구하였는지의 남녀비율이 동등하게 나타남을 보여줌. 무슬림인 말레이의 이혼은 이슬람법의 규정을 받음. 남편은 부인의 동의 없이 이혼이 가능하지만 부인은 이혼을 요구하는데 법적 절차가 따름. 이러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 말레이 여성들은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함. 동남아 양변제 사회에서의 높은 이혼율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남녀관계를 반영함.

③ 모성과 가부장적 성담론

- 동남아 여성은 농업, 수공업, 상업과 같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결혼과 상속 시에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 또한 동남아 가족은 모중심적이라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어 있음. 동남아에 전파된 이슬람, 불교, 힌두교, 가톨릭, 유교가 모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갖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어머니 역할이 가족생활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함.
- 말레이에게 가족의 의미는 한 술 밥을 먹는 사람임. 요리와 음식 공유는 가족 통합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임. 부엌은 집과 가족을 상징하며, 그 공간은 여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집이 곧 여성이라고 말해짐.
- 말레이에게 모유는 어머니의 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모유를 먹는 아이는 피를 공유하는 것이 됨. 모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혼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관념에도 반영되어 나타남.
- 동남아 사회 전반에서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가 돈독하며 어머니가 친척관계망의 중심임. 자녀들에게 어머니는 애정과 존경의 대상이며, 여성의 정체성을 무엇보다 모성애에서 찾음.
- 모성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 관념은 이슬람 같은 외래 종교의 가부장적 여성관과는 대조적임. 말레이 무슬림 여성은 남자가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에 비해 무책임하며 욕망을 자제하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인식. 이들은 월경을 여성의 산력과 건강, 여성성을 상징하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임. 가부장적 공식담론과 일상적 실천 사이에 괴리와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은 동남아 여성의 성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주목해야 함.

3. 동남아 이슬람

- 동남아인의 일상생활 속에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과 의례가 깊이 배어 있음. 출생, 성년식, 혼례, 장례와 같은 통과의례, 윤리와 가치관, 현세와 내세에 대한 관념과 예술적 표현 속에 종교의 영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최근 근대화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 동남아 사회도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이들의 삶 속에 종교가 차지하는 의미는 지대함. 동남아의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전통적 신앙과 의례의 모습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음.
- 동남아에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 기독교, 유교와 같은 세계의 주요 종교가 혼재함. 현재 동남아 지역의 종교 분포를 대별한다면 대륙동남아의 불교권과 도서동남아의 이슬람권으로 나눌수 있음. 기독교는 필리핀 중부와 북구, 동남아의 고산지대나 오지에 거주하는 소수 원주민 집단에 많이 나타남. 힌두교는 동남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종교인데 이들 지역 대부분이 불교 또는 이슬람으로 개정. 북베트남에서는 중국의 영향으로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음.
- 동남아의 종교적 다양성과 지역적 분화 현상은 외래 종교가 동남아 지역에 시기를 달리 하면서 유입된 역사적 과정의 산물임. 외래 종교는 동남아의 고유한 신념과 의례와 결합함으로써 제설혼합적 종교의 성격을 띠게 됨.

① 이슬람과 일상생활

- 13세기부터 아랍 상인과 인도 무슬림 상인에 의해 수마트라, 자바, 말레이반도 같은 도서와 해안 지역 중심으로 이슬람이 전파. 이슬람으로의 개종과정은 수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개됨. 제설혼합적인 종교와 의례의 형태를 낳았음. 동남아에 들어온 초기 이슬람에서는 율법중심의 정통 이슬람보다는 수피즘이라 불리는 신비주의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하였음. 지역에 따라 개종의 시기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
- 모든 무슬림은 신앙고백, 하루 다섯차례 기도, 성지순례, 라마단 기간 중의 단식, 회사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 종교적 의무와 함께 할랄과 하람의 구분이 존재함. 하지만 이슬람 전통이 오래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동남아 무슬림은 종교적 의무와 계율에 대해서 느슨한 태도를 보임. 기어츠는 자바 무슬림을 크게 산뜨리, 아방안, 뿌리야이의 세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 사이에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목함. 산뜨리는 순수한 형태의 이슬람을 강조. 아방안은 명목상의 무슬림으로 종교적 의무와 계율 준수에 대해서 느슨함. 뿌리야이는 무슬림이면서도 힌두교적 우주관과 귀족적 매너와 취향을 가지고 있음.
- 보다 교리와 계율에 충실한 이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슬람 개혁 운동이 1970년대 이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하게 전개됨. 이들 사회에서 이슬람 개혁운동의 이념과 방법에 동조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슬람화가 심화되고 있음.

② 이슬람과 의례

- 자바인과 말레이는 친척과 동네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슬라마탄 의식을 자주 행함. 슬라마탄은 마을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중요한 의례임. 슬라마탄은 축하, 애도, 기원 모든 경우에 열림. 슬라마탄 의식에는 코란 낭송, 공동식사, 향을 피우는 것이 수반됨. 기어츠가 1950년대 자바에서 관찰한바에 의하면 슬라마탄에 나오는 음식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큰 슬라마탄 의식에서는 힌두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림자 인형극과 가물란 연주가 수반됨.

- 장례와 상례는 자바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통과의례중 하나임. 장례 절차는 다른 통과 의례에 비해 철저하게 이슬람식으로 행해지며 모딘이라는 종교관리가 장례의 전체 과정을 주관함.
- 혼례는 혼인서약, 버르산딩, 슬라마판으로 구성됨. 혼인서약은 이슬람적 색채가 강함. 하지만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버르산딩과 슬라마판임. 버르산딩은 힌두교의 영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종교지도자나 이슬람 개혁주의자는 혼례에서 버르산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갈등이 있음.
- 연중 행사로 열리는 의례는 무슬림 명절을 따름. 라마단이 끝나고 열리는 아이덜휘트리 축제는 동남아 무슬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임.

③ 주술과 정령숭배

- 동남아의 민간신앙 속에는 자연의 정령, 잡귀, 죽은 자의 망령, 조상신, 지역 수호신, 성자의 혼, 다양한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숭배를 포괄함. 말레이의 스망앗과 태국의 판은 인간의 혼을 가리키는 표현임.
- 정령숭배와 함께 신성한 사물이 갖는 주술적 힘에 대한 믿음도 널리 퍼져 있음. 자바무슬림 남성들은 크리스라는 칼을 지니고 다니면 자신의 몸을 악령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음. 조상이 묘나 이슬람 성인의 묘를 방문하여 신성한 힘을 얻고자 함. 최근 이러한 순례가 각광받으면서 여행패키지를 관광업체가 운영함.
- 주술과 정령숭배에 대한 동남아 무슬림이나 불교도의 민간적 전통은 이를 미신이라고 경멸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존재를 다루는 방식으로 종교와 대등하게 인식됨. 동남아의 전통적인 이슬람이 주술과의 공존을 피하였다면 최근 이슬람 개혁운동에서는 종교와 주술을 엄격히 분리하고 후자를 억압함.

4. 관광과 전통의 재창조

- 20세기 초 서구의 관광안내책자, 사진, 엽서 등에서 나타나는 동남아의 이미지는 신비스럽고 육감적인 동양이라는 타자의 이미지를 보여줌. 이러한 이미지는 동남아 관광을 유인하는 상징적 기호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됨.
- 1960년대 이전까지 동남아 방문객은 주로 서구의 소수 엘리트 계층이었으나 이후 동남아 관광은 대중관광의 성격으로 바뀜. 현재 동남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아시안인의 비중이 서구인을 압도함. 동남아 각국 정부는 관광산업이 외화를 버는데 중요한 국가산업으로 인식하여 1970년대 이후 관광산업 진흥에 적극적으로 나섬.
- 동남아 정부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주목한 부분은 문화관광임. 문화관광은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과 독특하고 이국적인 종족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관광객의 취향과 요구에 부합하도록 전통문화를 무대화하고 상품화, 재창조하는 변화가 발생. 관광에 의해서 전통문화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남.
-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중부에 사는 토라자족은 독특한 가옥형태와 장례식으로 유명한 종족집단임. '조상의 집'인 툽꼬난은 거주자의 높은 사회적 신분과 유명한 조상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풍부한 의미로 가득찬 공간이었는데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툽꼬난은 종족문화를 표시하는 상징물이 되었음. 더 이상 원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관광객이 잠시 머무는 모델하우스가 되었음.
- 이들 문화에서 따우따우라고 불리는 실물 크기의 목조인형이 있음. 이는 석회암 절벽에

작은 동굴을 파서 시체를 안장하고 그 앞의 베란다에 따우따우를 세워놓는 매장관습이다. 따우따우에 대한 외부인의 관심이 커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를 훔쳐다가 파는 일이 발생하여 원래 따우따우는 없어지고 무덤앞에 모형틀을 세워놓아 관광객의 호기심을 끌고 있음. 원래의 따우따우는 장물로 압수되어 경찰서 창고에 있거나 세계 미술시장에서 매매되고 있음. - 또라자 족의 장례식은 많은 소와 돼지를 잡아 손님들에게 나누어주고 선물을 교환하는 거대한 축제인데 이 역시 외부인에게 보이기 위한 무대적 성격을 갖게 됨. 전통문화는 원래 있었던 사회적 맥락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시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음.

용어해설

라마야나

-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로 된 대서사시. 7편, 2만 4000시절(詩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하바라타》와 더불어 세계 최장편의 서사시로 알려져 있다. BC 3세기경의 시인인 발미키(Valmiki)의 작품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단순한 편자(編者)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의 성립 연대나 기원은 BC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 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BC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전 7편 중에서 제1편과 제7편이 첨가되었다고 전해진다.

작품의 내용은 코살라국의 왕자인 라마의 파란만장한 무용담(武勇談)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정절(貞節)의 화신이라 할 왕자비(王子妃) 시타의 기구한 수난, 동생 바라타의 지극한 효성, 원왕(猿王) 하누마트의 활약, 악귀(惡鬼) 라바나의 포악 등을 엮어서 일대 서사시편으로 완성해 놓았다. 제1편과 제2편에서 역사적 인물인 라마를 비슈누(Viu:힌두교의 3主神의 하나)의 권화(權化)로 설정해 놓고 수많은 삽화를 곁들임으로써, 이 역사시에 종교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라마 숭배를 왕성하게 하여 후세의 문학과 종교 및 사상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작품의 문체는 기교적으로 매우 세련되어 있어, 그 뒤로 발달한 미문체(美文體) 작품의 모범이 되었다.

마하바라타

- '바라타족(族)의 전쟁을 읊은 대사시(大史詩)'란 뜻으로 오랜 세월을 걸쳐 구전되어 오는 사이에 정리·수정·증보를 거쳐 4세기경에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18편 10만송(頌)의 시구(詩句)와 부록 《하리바니사 Harivanisa》 1편 10만 6000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성평가

1. 다음 중 동남아의 원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나)

가. 정령숭배 나. 할랄과 하람 규정 다. 닭싸움 라. 양변친족제

2. 다음 중 이슬람을 공식종교로 삼고 있는 국가는? (가)

가. 말레이시아 나. 필리핀 다. 싱가포르 라. 미얀마

3. 다음 중 불교와 가장 깊이 관련된 의례에 해당하는 것은? (라)

가. 슬라마탄 나. 아이덜피트리 다. 로이 크라통 축제 라. 카티나 의례

4. 자바에서 영적 탁월함의 표시로 세련되고 부드럽고 절제된 언행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

가. 아목 나. 카사르 다. 할루스 라. 고통 로용

6. 동남아시아(II): 대륙 동남아

1. 대륙동남아 개관

① 지리와 명칭

- 대륙동남아(Mainland Southeast Asia)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5개국. 인도와 방글라데시, 중국, 도서 동남아와 경계를 이룸. 평원지역엔 버마족, 타이족, 비엠티족이 거주, 산악지역에는 친족, 카렌족, 리수족, 몽족 등 소수 종족이 거주.

- 대륙동남아를 '인도차이나(Indochina)'라고 일컫기도 함. 19세기 초반 프랑스에서 현재의 대륙동남아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등장. 프랑스가 19세기 후반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아우르는 인도차이나연방을 창설하며 이 3개국을 한정함.

- 대륙동남아는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등 국경을 맞닿고 있어 애들 지역과 연관짓는 지리적 개념이 새롭게 등장 (예: 대메콩유역지역, 조미아)

- 대륙동남아라는 용어에는 동남아적 문화적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도서 동남아와는 달리 농업과 불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 이해가 포함

② 역사적 전개

- 대륙동남아의 최초 국가는 캄보디아 땅에서 기원후 1-2세기경에 세워진 푸난(Funan)으로 알려짐. 말레이계 사람들이 세운 국가로 산스크리트를 궁중언어로 사용. 힌두교를 신봉.

- 푸난의 뒤를 이어 크메르인들이 세운 첸라(Chela)가 등장, 9세기 초에 자야바르만(Jayavarman) 2세는 첸라의 세력을 통합하고 앙코르왕국 건립. 앙코르왕국은 대륙동남아의 패권국가로 성장.

- 앙코르왕국이 강성대국으로 군림하던 시기 미얀마의 내륙평원에서는 버마족이 세운 버강(Bargan)왕국이 대륙동남아 서부지역의 패권국가로 자리잡음. 대륙동남아의 동쪽에서는 비엠티족이 국가의 틀을 세워나감.

- 버강, 앙코르, 다이비엠티는 고전적 국가형태로 받아들여짐. 13-14세기 동일하게 해체의 길로 들어서며 13세기 중반 이후는 혼란의 시기. 몽골의 침입과 타이족의 남하 때문임.

- 대륙동남아는 13-14세기 혼란의 시기에 소국들이 난립, 15세기후반과 16세기에 몇 개의 주요국가에 복속. 서쪽에서는 파웅우 왕조가 몬족과 샨족 세력을 제압하며 중심국가로 성장. 중부에서는 아유타야가 타이족의 여러 군소왕국과 앙코르왕국 지역을 복속. 동부에는 비엠티족의 왕조들이 참파세력을 압도.

- 19세기에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팽창에 의해 미얀마는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영국에 의해 영토를 잃음. 대륙동남아 동쪽에서는 프랑스가 식민지를 확장. 대륙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로 전락되지 않은 국가는 태국임. 라마4세와 라마5세가 근대적인 개혁을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주권을 지킴.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륙동남아의 국가들은 독립을 획득하였으나, 미얀마는 소수종족들의 반란에 직면. 베트남은 프랑스의 재진출과 좌우의 분열로 남북분단을 맞음.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베트남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짐.

- 냉전 이후 대륙동남아에도 새로운 기운이 불어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캄보디아는 민주화의 길로 나아감. 라오스는 대외개방정책을 실시. 태국은 대륙동남아의 중심국가로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을 선도. 2000년 이후 동남아공동체 건설에 박차를 가함.

2. 가족과 성

① 가족과 여성

- 양면친족제가 일반적 친족제도임. 대륙동남아에서 핵가족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환경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의 수월성 때문임. 천혜적 자연환경과 저노동 투입형 경제활동은 핵가족과 신거제가 발달하는데 우호적인 조건임.

- 성씨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일정한 규칙이 없음. 가문과 혈통이 중요하지 않고 개인의 친속관계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정해짐. (가부장적 유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베트남에서는 성을 표기)

- 베트남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 대륙동남아와는 다른 형태의 친족제도가 발전.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베트남에서 유교이념은 지배층의 레토릭이며 일상생활에서는 동남아적 전통이 뿌리깊음

- 불교적 의례가 중심인 대륙동남아 국가들에서도 제도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 실제 생활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높고 가정에서의 권위도 높음.

② 또다른 성

- '카터이(Kathoe)'는 제2의 여성이라고 불림. 'lady boy'로 표현함. 카터이 중에는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받는 이들도 있음. 미얀마의 '어차옥', 필리핀의 '바끌라'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임. 이들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며 남성 연인을 둔다는 점에서 이성애자로 부르는 것이 타당.

- 태국에서 카터이 숫자에 대한 통계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 태국은 일상적으로 카터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임. 이들은 전근대 시기에 종교의식과 주술적 제례를 담당. 왕실에서 궁중무용단으로 활동. 20세기 초 대중적 무용극에서 활동. 2차세계대전 이후 카바레 공연을 하면서 대중화.

- 카터이가 용인되는 이유로 불교의 관용적 태도를 들 수 있음. 불교 교리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음. 사회적으로는 용인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음. 또한 지나친 관광상품화와 섹스산업에 대한 문제가 있음.

3. 종교생활

① 불교와 일상생활

- 대륙동남아에 널리 퍼져 있는 불교는 상좌불교임. 상좌불교는 부처의 율법을 원래의 형태로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에서 출발한 분파.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승가에 가입하여 불교의 계율을 엄격히 수행해야함.

- 불교의 전파는 왕권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왕은 자신을 부처의 화신 또는 보살로 신격화

- 상좌불교의 이상은 엄격한 계율준수와 도덕적 완벽함을 통해 모든 고통으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것. 승가의 존속은 세속적 사회에 의존함. 대륙동남아 불교국가에서 절은 속세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 않고 일상적 생활공간에 근접해있음. 승가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사회복지의 기능을 담당함

② 불교와 의례

- 까티나 의례는 승려들이 약 3개월간 절 안에 머무르며 명상과 정진을 하는 하안거가 끝나는 시점에 일반 신도들이 승려에게 새 승복을 시주하는 의례. 10월 중순경에 행해지는데 공덕을 쌓는 데 가장 중요한 행사로 인식됨.

- 동남아 불교국가에서는 사춘기 연령의 소년들이 사미승으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음. 대개 1-2년 머물다가 사회로 복귀함. 태국북부의 경우 출가의례는 정령승배적 의례와 절에서 수행되는 불교적 의례로 구성

- 동남아 불교국가의 축제는 계절적 주기, 불교적 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태국의 경우 불교력으로 신년을 맞이하는 송끄란 축제, 석가탄신과 입적을 기리는 축제, 까티나 의례, 로이 끄라통 축제가 있음.

- 의례의 수행에서 불교적 요소와 민간신앙적 요소가 혼재하는 모습은 대륙동남아 불교의 대중적 전통이 갖는 특색임.

③ 기타종교와 국가통합의 문제

- 대륙동남아에서는 불교뿐 아니라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도 나타남. 유교는 베트남에서 발견. 불교, 기독교, 토속종교를 혼합한 신흥종교인 까오다이교도도 있음.

- 기독교는 대륙동남아의 산악 지역에 사는 소수종족들이 믿고 있음.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종족 출신들은 식민지 행정당국의 관료와 군인으로 등용. 이로 인해 반식민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불교도 중심의 버마족과 마찰과 갈등이 벌어짐.

- 이슬람교는 태국 남부의 말레이계들이 주로 신봉하는 종교. 태국의 통합 정책에 불만을 품은 남부의 이슬람 세력은 오랫동안 반정부 활동을 벌임.

④ 세계화와 동남아 그리고 한국

- 관광은 대륙동남아인과 세계인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초국적기업도 대륙동남아에 활발하게 진출. 세계화는 대륙동남아의 전통적 삶의 양식을 해체하며 세계적인 표준에 맞게 동질화시켰지만 대륙동남아의 상황에 맞게 지역화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함.

- 대륙동남아를 비롯한 동남아가 한국과 맺고 있는 관계는 더욱 깊어져감.

형성평가

1. 대륙동남아의 가족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

가. 양변친족제

나. 핵가족의 형태가 일반적임

다. 성씨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일정한 규칙이 없음

라. 신거제는 잘 나타나지 않음

2. 까티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가. 제2의 여성이라고 불림

나. 태국은 일상적으로 까티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임

다. 법적인 권리도 동등하게 인정되고 있음

라. 불교의 관용적 태도가 이들의 인식에 대한 영향을 끼침

7. 남태평양

1. 남태평양의 문화와 환경

① 남태평양과 오세아니아

- 17,18세기 유럽인 탐험가들과 무역상인들은 남태평양을 남해라고 부름. 오늘날 보통 남태평양 국가들은 SISs(small islands contires)라고 하여 남태평양 작은 도서국가를 의미하며 호주, 뉴질랜드는 포함시키지 않음. 오세아니아는 대양주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호주나 뉴질랜드를 주축으로 도서국가까지 포함하는 국제정치학적 지역을 의미함. 호주의 원주민들과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문화적으로 남태평양과 가깝기 때문에 오세아니아에도 포함되고 남태평양 문화를 다룰 때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화와 국제정치의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분류방식의 혼란은 하와이, 마셜 군도, 괌, 사이판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국적은 미국이지만 지리와 문화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문화에 속함. 그러므로 남태평양은 국제정치학적으로 호주, 뉴질랜드와 남태평양 도서국가를 포함하는 오세아니아와 구별.

- 남태평양은 수십 개의 군소 도서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세 개의 문화영역으로 구분됨. 몇 개의 국가가 있는지를 세는 것이 쉽지 않은데, 독립국가처럼 보이지만, 부속령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때문임. (예: 뉴탈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왈리스 툰투너 제도 - 프랑스령. 관, 북마리아나 제도, 아메리카 사모아 - 미국령, 토켈라우, 핏케언섬 - 뉴질랜드령) 강대국 부속령을 제외한 독립국가들은 모두 14개에 불과함.

- 지구상 가장 작은 국가가 이 곳에 있는데 니우에라는 나라는 인구가 약 1600명에 불과하며, 파푸아 뉴기니는 인구 6,732,000명으로 가장 큰 국가임. 오세아니아 지역의 모든 원주민의 인구는 약 1,500만명 정도이며, 멜라네시아 사람들이 77%, 폴리네시아인이 9%, 미크로네시아 인들이 5%를 차지함. 아시아계가 7%, 유럽인계가 2% 섞여 있음.

- 남태평양 서쪽에 위치하여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호주와 가장 인접한 국가들을 멜라네시아라고 함. 멜라네시아에 속한 국가들은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뉴칼레도니아와 바누아투이고, 피지는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의 경계선상에 위치함. 폴리네시아는 하와이, 사모아, 통가, 프렌치 폴리네시아, 쿡 제도, 니우에, 투발루와 뉴질랜드령 토켈라우를 포함. 미크로네시아는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팔라우와 미국령 괌, 북마리아나 제도를 포함하는 문화영역임.

② 세 개의 문화 영역

- 남태평양의 세 문화영역은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는 각각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세 문화 영역의 경계는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중첩되기 때문에 문화적 연속성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

- 멜라네시아는 남태평양 토지 면적의 98%, 인구의 77%를 차지하는 거대한 지역. 파푸아 뉴기니에만 870여 개의 종족집단과 언어가 존재할 정도로 다양성을 지닌 지역임. 멜라네시아 문화는 폴리네시아나 미크로네시아에 비교할 때 계층화가 덜 진전되고, 상대적으로 평등주의적이고 고립 분산적인 소규모 사회들로 구성되어 있음. 세습적 지위보다는 성취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되며, 중앙집권적 정치조직이나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음

- 폴리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에는 추장제가 발달. 계층화된 위계적 사회조직을 이루고 있

음. 추장의 권위는 신비화 되어 있으며, 모든 계층과 지위는 세습됨. 추장제가 발달하여 인근의 다른 추장제 사회와 정치적 경쟁관계가 나타나면 전쟁이나 결혼 동맹의 방식으로 정치 조직간 융합과 분열이 이루어짐.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서양인들이 폴리네시아 지역에 진출하였을 때 이 지역은 부족 연맹의 단계에 있었고, 서구의 침략자들은 이 중 어떤 한편을 지지함으로써 모든 종족을 통치할 수 있었음.

- 폴리네시아와 멜라네시아의 중요한 차이는 친족관계에 있음.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에는 부계사회, 모계사회, 선계사회가 뒤섞여 있음. 그러나 사촌관계는 차이가 명확히 나타남. 폴리네시아인은 부계와 모계, 직계와 방계 사촌들 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음. 피지와 멜라네시아 지역에서 평행사촌인 친사촌과 이종사촌 간에는 친형제 자매와 같이 대하여 혼인하지 않지만, 교차사촌인 이성인 외사촌과 고종사촌 간에 혼인은 바람직한 것으로 선호됨.

- 멜라네시아와 폴리네시아에서는 경제행위와 자원의 활용이 상이함. 풍부한 토지자원을 지니고 있으면서 수백개의 상이한 종족들이 오랫동안 공존하고 있던 평등한 멜라네시아에서는 호혜적 교환관계가 지배적. 세계화의 영향도 덜 받음. 폴리네시아와 미크로네시아는 전통적인 위계 사회로 모든 잉여생산물들이 최고 정치지도자에게 집중되며, 대추장의 중요한 역할은 잉여생산물을 평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임. 세계화에 따른 외부 세계의 충격에 적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남태평양의 주요 관습과 전통

- 남태평양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호혜성이며, 빅맨과 추장의 리더십, 마나와 금기에 대한 관념, 카바 마시기와 문신, 그리고 생계경작 활동과 의식주 생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① 호혜성과 의례적 교환

- 남태평양 원주민들에게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의 개념이 없으며, 사적 소유권 제도와 관념이 도입된 것은 식민지배 이후임. 원주민들의 호혜성은 의식주 생활과 각종 의례와 축제, 정치과정 등 모든 사회관계에서 발견됨. 호혜성은 상호 존중과 상호 부조를 토대로 집단 간의 도덕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는 공동체적 사회관계임.

- 호혜적 사회관계는 친족관계에서 시작됨. 같은 친족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혈연적 문화적 연대감이 작용하며 상호부조와 공동체적 의무를 실천해야함. 혼인과 장례와 같은 의례를 치를 때 친족집단은 상호 의례적 선물에 대한 의무를 지며, 여자교환을 통해 집단 간에 특별한 사회적 결속과 동맹관계를 다짐.

- 호혜성의 원리는 경제생활에서도 지속됨. 대부분 남태평양 국가들의 토지소유제는 친족집단에 의한 공동소유제도가 강력하게 유지. 모든 땅은 특정 종족 혹은 부계집단, 모계집단 소유이며 어떤 개인의 배타적 소유가 될 수 없음. 잉여생산물도 공동으로 소비되고 의례과정을 통해 친족구성원들에게 배분됨. 말리노브스키가 연구한 뉴기니의 쿨라라는 원정향해와 의례적 선물교환제도는 호혜적 교환이 이웃한 섬들과 다른 사회 간에도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을 잘 보여줌. 쿨라 제도에 의해 이들 섬 간에는 호혜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지속됨.

- 호혜적 관계는 친족집단 외부로도 확대되어 같은 종족이나 지역집단들에게 적용되기도 함. 현대의 남태평양 사회에서는 경제나 교회생활, 기타 국가의 공식적 비공식적 행사와 비장정치에서 호혜성 원리가 작동함.

- 폴리네시아 국가들에서는 교회와 추장, 국가 간에도 전통적인 명예와 지위 및 권위에 대

한 상호 존중을 토대로 의례적인 선물교환이 지속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유대 관계로 지속할 수 있음.

② 빅맨과 추장

– 남태평양은 근대적 국가형태 이전 단계의 부족사회나 부족연맹체 단계 사회를 오랫동안 지속해 옴. 멜라네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은 부족사회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폴라네시아 사회에는 정교한 위계질서와 권위체계를 지닌 부족연맹체를 형성. 두 지역은 정치적 지도자의 유형도 상이한데 이를 빅맨과 추장으로 비교함.

– 빅맨이란 멜라네시아 사회의 지도자를 말함. 뉴기니나 솔로몬 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빅맨은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지도자로 선택되고 추앙받는 지도자임. 후천적 능력에 따라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 지도자가 빅맨임.

– 추장은 거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의 소지자. 추장의 지위는 조상 대대로 세습됨. 추장의 권위는 신성화 되어 있어 의례 행위를 통해 추장의 마나는 숭배됨. 이러한 추장제는 폴리네시아와 같이 고도로 위계적이고 계층적인 사회에서만 가능하며 봉건적인 정치조직에서의 세습적 리더십이 형태임

③ 마나와 금기의 신앙

– 남태평양 주민들에게 마나는 신비하고 두려운 영적 힘임. 나마는 남태평양 여러 섬에서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초자연적인 힘, 행운과 복, 효험, 숨겨진 힘, 신적인 능력, 실재하는 힘과 효력과 같은 의미가 대표적인 마나의 속성임. 모든 의례에서 항상 마나에 대한 강한 신념과 효력을 주문하고 외음. 마나는 높은 지위와 명예, 권위와 권력을 지탱하는 관념임. 누군가 지위와 권력을 지니고 있을 때 그는 마나의 힘을 빌어 능력을 지니게 된다 ㄱㄴ 믿음. 마나는 조상에 대한 숭배, 조상신에 대한 신념체계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마나는 조상신과 추장, 주민들 간의 불가분의 관계와 유대를 표현하는 매개가 됨.

– 금기를 지칭하는 터부라는 영단어는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타푸에서 기원한 것임. 타푸는 성스러운 것, 숭배해야 할 것, 금지해야 할 것, 만지거나 다가가면 안되는 것을 의미함. 뉴기니와 멜라네시아 지역 및 피지에서서는 탐부라고 함. 이 금기의 관념은 마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마나가 풍요와 성공, 승리, 번성을 가져가 주는 것이라면, 나푸는 파괴와 파멸, 위험을 가져다 줌. 폴라네시아에서 추장의 몸과 머리는 타푸임. 타푸를 어기면 해를 당하거나 즉시 죽임을 당한다고 믿으며, 주민들은 타푸를 어김으로써 발생한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이야기 함.

– 마나와 타푸라는 신념체계는 추장제와 위계적 지위체계, 조상신에 대한 토착 종교를 지속하는 중심 개념. 모든 권력과 권위는 이러한 신비한 힘과 금기에 따라 보소회도 지속됨.

3. 남태평양의 성과 섹슈얼리티

① 남성과 여성

– 마가렛 미드는 남태평양의 뉴기니 섬과 사모아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만 들어지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미국과 달리 유아기 때부터 성적 억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모아 사회를 연구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여성해방과 자유로운 교육을 주장하였음.

– 뉴기니 세 부족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모든 사회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함. 아라페시인들은 여성성이 남녀 모두에게 강조됨. 반면 먼더구머족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성의 문화를 이상형으로 가르침. 챔블리인들은 서구사회와 정반대의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함. 서로 상이한 문화적 특성에 따라 무엇이 이상적인 남서이고 여성인가에 대한 생각은 달라지며, 육아방식과 의례, 가족생활도 달라짐.

② 친족관계와 섹슈얼리티

- 전통적인 남태평양 사회에서 친족관계와 섹슈얼리티는 사회를 지탱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임. 남태평양의 다양한 섬들에서 상이한 부족집단들은 모계제, 부계제, 양면제에 이르기까지 다른 형태의 친족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피지, 사모아, 하와이 같은 폴리네시아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적이며 위계적 차이와 함께 성차별도 심하게 나타나는 문화임. 폴리네시아의 추장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일생의 통과의례와 마을에서의 각종 공동체적 축제와 의례 생활을 통해 각각의 지위와 역할이 정해지고 강화됨. 대개 추장이나 지도자는 남성이고 모든 친족집단의 수장들은 남성 연장자로 구성됨.

③ 의례적 동성애

- 남태평양 주민들의 관습중에서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동성애 관계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체현되는가를 잘 보여줌.
- 뉴기니 바루아족의 성인식은 집단적으로 동성애 의례를 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성인식의 모든 단계는 여성으로부터 남성을 분리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됨. 모든 생명은 정자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인식에서는 위대한 전사들의 정자를 신참자들에게 먹이는 의식을 통해 유년기를 벗어나 진정한 남성을 만드는 의례를 행하게 됨.
- 베이트슨이 연구한 뉴기니 이야트물족은 네이븐이라는 의례를 행함. 이 의례는 조카의 위업과 성년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외삼촌과 마을사람들이 베푸는 의례임. 조카가 처음으로 전쟁에서 머리사냥, 즉 살인을 행했을 때 의례가 베풀어짐. 남자는 여성을 하고, 여자는 남장을 하고 네이븐이 행해짐. 특별하고 기이한 네이븐 의식을 통해 베이트슨은 이야트물 사람들의 분열적 기질과 에토스가 의례를 통해 어떻게 연기되는지 연구함.

4. 남태평양의 의례와 축제

① 카바 마시기

- 남태평양 원주민들의 삶은 의례생활의 연속임. 남태평양 주민들의 의례생활에서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관습 중 대표적인 것은 카바 마시기임.
- 카바는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할 것 없이 모든 남태평양의 섬들에서 즐겨 마시는 의례적 음료임. 카바는 마취제 성분이 있는 허브나무의 뿌리를 갈아 물을 섞어 즙을 만든 것임. 카바 마시기를 할 때 카바를 만드는 과정과 절차는 전통적 의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됨. 카바를 나누어 마시면서 추장과 주민과 조상이 하나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 최근에는 카바가 술이나 마약과 같이 남용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됨.

② 돼지축제와 조상신

- 뉴기니와 남태평양 섬들에서 돼지는 특별한 동물임. 뉴기니 고산지대에서 돼지는 사람들

과 함께 생활함. 혼인과 장례, 축제와 제의에서 돼지가 선물과 희생 제물로 사용됨.

- 뉴기니의 첼바가 마링족은 몇 년에 한 번씩 수백 마리의 돼지를 한꺼번에 도살하여 잡아 먹는 돼지 축제를 행함. 라파포트의 조사에 의하면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첼바가 주민들은 원시농경과 돼지사육을 하면서 생활함. 돼지는 이웃집단과 전쟁을 할 때나 병에 걸렸을 때, 조상신에게 제의를 올릴 때 같이 중요한 때에 제물로 바쳐진다. 마링족과 인근 종족은 전쟁을 통해 승리한 집단이 카이코 축제를 벌임. 카이코 축제를 통해 인간과 돼지, 환경 간에 균형상태가 지속될 수 있음. 지역 집단 간의 위계질서도 유지되고 음식, 선물, 여자의 교환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유지시킴.

③ 집단 의례와 싱싱 축제

- 남태평양 사회에는 많은 통과의례와 축제가 행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뉴기니의 대규모 축제가 싱싱임.

- 뉴기니에서 축제라는 말은 싱싱인데, 이 말은 피진 영어(pigin english)로서 노래하는 축제의 모습을 표현함. 싱싱이 열리는 동안 주민들은 음식잔치를 벌이며 부아이라는 빈랑 나무 열매와 조개껍질을 갈아 만든 것을 섞어 씹음. 싱싱은 남녀가 짝지어 종횡을 이루며 춤을 추고 발을 구르고 노래부르는 과정으로 진행됨. 싱싱은 그 화려함이 장관이며, 싱싱이 끝날 때는 집단적인 혼음이 행해지기도 하고 공식적인 짝짓기가 이루어지기도 함.

④ 하물의례와 천년왕국운동

- 남태평양은 수세기 동안 심각한 문화적 충격과 강압적인 문화접변을 경험하였음. 유럽인들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신념체계를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됨. 이 과정에서 토착종교와 의례, 기독교가 결합하여 말세적 종교운동과 의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물의례(cargo cults)임.

- 하물의례는 주로 멜라네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적 의례임. 서구문화와 접촉하면서 원주민들은 죽었던 조상들이 환생하여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을 보면서 광적인 의례를 행하기 시작함. 극심한 문화변동과 혼란의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비참한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추종, 종교지도자들은 기독교적 천년왕국운동과 토착의례를 결합한 광적인 의례운동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원함.

- 하물의례는 19세기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절정을 이룸. 원주민들은 서구인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선박이나 비행기를 기다리는 의식을 행함. 뉴기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예언자 운동, 바이랄라 광란, 타로 의례등은 모두 이러한 유형의 종교운동임.

5. 관광, 문화변동과 세계화

① 남태평양의 문화변동

- 18세기 이후 남태평양의 군소 도서국가들은 급속하게 유럽인들에 의해 정복되었고, 무역상인들과 선교사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음. 선교사들에 의해 남태평양 국가들이 기독교화 되었음. 원주민 마을에는 피지나 사모아, 통가의 조상신당이나 뉴기니의 탐바린 같은 영혼의 집이 전통의 상징처럼 남아 있지만 주민들은 매일 교회에 가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음.

- 남태평양의 기독교화는 전통과 관습의 많은 변화를 초래함. 조상신을 숭배하는 토착적

신념들은 원시적 관습으로 매도됨.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아시아계 주민들과의 문화적 종교적 갈등도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의 정치와 지방 정치에서도 점차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 남태평양 사회에서 급격한 기독교화와 서구화에 대한 반동도 동시에 일어남. 전통을 수호하고 다른 외부의 가치관과 제도를 배격하려는 극단적인 원주민운동이나 전통주의 정치가 등장함.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개발을 주창하는 세력과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세력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발.

－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국제적인 인구 이동도 문화변동의 요인이 됨. 매년 수천명의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호주, 뉴질랜드, 아메리칸 사모아 등지로 이주하고 있음. 이들은 정기적인 송금을 통해 본국의 친척들과 강력한 유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휴가때 고향을 찾기도 함.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선진국 대도시로 이주하는 일련의 이주과정을 통해 문화변동은 가속화됨.

② 남태평양의 관광산업과 폴리네시아 문화센터

－ 자원이 없는 남태평양 도서국들은 관광산업과 해외원조자금, 이민자들의 송금으로 경제를 지탱함. 관광 수입을 목적으로 남태평양의 전통과 관습들은 급속히 상품화되었으며 관광자원으로 개발됨. 이러한 전통과 관습의 상품화는 원주민들의 생활과 의식, 정체성의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 개발과 전통 사이의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함.

－ 관광산업의 대표적인 모형이 하와이 오후아 섬에 위치함 폴리네시아 문화센터임. 이 곳은 14개 도서국가의 문화와 의례, 공연 예술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한 살아있는 민속 박물관임. 이러한 오락형 민족형 모형문화는 남태평양에 급속히 확산되고 외국인들의 눈요기와 체험관광거리가 되고 있음. 관광산업을 통해 남태평양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낙원’으로 재현되며, 원주민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 종교적 의례와 생계방식을 반복적으로 무대화하고 공연해야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됨.

③ 세계화와 군소 도서국의 위기

－ 세계화의 영향은 오지 마을까지 미치고 있음. 돈이 필요 없었던 자급자족형 생계경제에서 소비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음. 일부 엘리트 계층은 호주, 뉴질랜드, 영국으로 유학을 가며, 많은 이들이 노동이민을 통해 본국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고 있음. 청소년들은 술과 마약을 즐기기도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함. 파푸아뉴기니 같은 국가는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최악의 치안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솔로몬 제도나 피지 같은 나라에서는 종족갈등과 쿠데타도 발생하고 있음. 미크로네시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에서는 미국, 프랑스의 군사기지가 만들어지고 핵실험이 진행되기도 하는 등 심각한 환경 파괴와 위기상황이 발발함.

－ 남태평양의 군소도서국가들은 외부의 충격과 세계화의 영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의 사회들임.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제공하는 국제원조자금에 의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도 함. 이러한 외부 원조는 저농문화에 기반한 자율적 발전이 아닌 문화와 환경의 파괴를 수반하는 경제 중심의 개발을 초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하기도 함. 이들의 유일한 자원인 토지가 외국인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하며, 관광산업으로 인해 문화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이 오기도 함.

④ 전통의 불활과 문화정치

-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수백 년 동안 유럽인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식민주의와 기독교로의 개종을 경험. 최근에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에 급속히 편입. 서구 열강의 군사기지 및 관광산업화로 인해 전통적인 문화체계가 위기에 처해있음. 원주민들은 외부의 변화에 대해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전통을 부활시키고 종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임.
- 198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멜라네시아 지역에서는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및 바누아투 등에서 ‘멜라네시아’ 방식으로 문화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정치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남. 멜라네시아 방식은 조상 대대로 공유하여 왔던 토지공동체와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적 문화를 회복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민족주의적인 토착운동을 통해 종족의 번성과 전통의 지속을 강조하는 문화정치 슬로건임.
- 피지와 사모아, 통가 등 폴리네시아 국가들은 추장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위계질서와 리더십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자 함. 피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의미하는 ‘바누아 방식’이 서구식 제도와 관습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함. 원주민들의 토착주의 운동과 전통의 정치를 통해 서양인들뿐 아니라, 식민지 시기에 유입된 인도인과 아시아계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원주민들의 정치적 우위와 주권, 토지소유권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지속되고 있음.

용어해설

하물의레

- 멜라네시아 ·뉴기니의 각지에서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종교적 사회운동.
- 서구의 백인문명과의 접촉에 의한 전통적 사회 ·문화의 붕괴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민족문화의 통합감각을 회복하기 위하여 백인들이 가져온 놀라운 재화(財貨)의 획득과 지상낙원의 도래를 기원하여, 그것을 그들의 신화상(神話上)의 주제와 그리스도교의 메시아니즘과의 혼합에 의한 관념으로써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그 본질적 성격이다. 신화의 주제는 조상(문화영웅)이 재화를 가지고 배 ·비행기를 타고 와, 현재의 세계에 종말상황을 가져다주고, 백인들을 쫓아내어 지상낙원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때때로 무력투쟁으로까지 발전하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반(反)식민지 변혁운동도 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형성평가

1. 다음 중에서 남태평양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라)
가. 뉴기니 나. 사모아 다. 타히티 라. 칼리만탄
2. 다음 중 남태평양을 대표하는 관습과 거리가 먼 것은? (다)
가. 호혜성 나. 카바 마시기 다. 명예살인 라. 추장제
3. 남태평양에서 오랫동안 현장연구를 한 인류학자가 아닌 것은? (가)
가. 레비스트로스 나. 말리노브스키 다. 마거릿 미드 라. 마셜 살린스
4. 다음 중 남태평양의 문화 영역이 서로 다른 섬은? (다)

가. 뉴기니 나. 뉴칼레도니아 다. 사모아 라. 솔로몬 제도

5. 다음 중에서 폴리네시아에 속하지 않는 곳은? (라)

가. 통가 나. 하와이 다. 사모아 라. 사이판

8. 인도

1. 인도사회 이해를 위한 토대

① 인도사회를 바라보는 눈

- 18,19세기 유럽의 동양학자들은 유독 인도의 종교와 철학적 유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이들은 힌두교, 불교, 힌두철학 등 인도의 고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함. 이러한 고대의 경전을 기초로 인도사회를 이해하거나 해석하려는 오류도 범함.
- 19세기 영국 식민정부는 정치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인도사회를 원함. 이를 위해 이들은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단순히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산물로 취급하고자 함. 이들은 인도의 기본적인 사회구조원리를 카스트제도로 보며, 영국 식민정부는 인도사회를 카스트체계에 ㄷ·라 살아가는 종교적 신비로움에 빠져 있는 동양사회로 외부에 알리게 됨.
- 유럽인들이 카스트제도와 힌두교를 중심으로 인도사회를 신비롭게 만들려는 태도는 문명인인 서구인은 인도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임. 프랑스 인류학자 듀몽은 18,19세기 동양학자들의 내용과 자신의 현지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인도사회를 위계적인 사회로 이해하고자 함. 의례적인 위계질서는 카스트에 따른 정과 부정의 대립에서 비롯된다고 주장.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인도사회는 다른 사회와는 다르다는 신비적 기대를 하게 함으로써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함.
- 인도사회는 흔히 알려져 있듯이 신비롭고 종교적인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도인 역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처럼 부와 권력도 추구하면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살고 있음.
- 인도는 일찍이 인공위성과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 국가이며, 초국가적 시대에 들어서는 질적으로 최고 수준의 정보산업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정보산업과 생명공학으로 대표되는 화려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종교적으로 신비한 사회라는 양극적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 사회임.

② 다양성과 통일성

- 인종, 언어, 종교, 카스트 등은 인도사회를 다양하게 만드는 중요요인임. 신체적 특징에 따라 흑인종계통, 호주원주민 계통, 동북아시아인 계통, 백인종 계통 등으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됨. 인도에는 약 1,600개 이상의 언어가 있으며, 전국적 공용어 역할을 하는 힌디어 입법과 사법 분야의 언어인 영어를 포함하여 18개의 공식적 언어가 있음.
- 인도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음. 2001년 인도 센서스에 따르면 힌두가 전체 인도 인구의 80.5%, 무슬림 13.4%, 기독교 2.3%, 시크 1.9%임. 전체 인구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부족민 대부분은 애니미즘을 신봉하고 있음. 일찍이 기독교로 개종한 부족들과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힌두 민족주의 집단의 개별 부족에 대한 힌두화 영향으로 최근에는 힌두교를 따르는 상당수 부족들이 있음.
- 인도에 약 3,000개 이상의 세분화된 카스트가 존재함.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

라 및 불가촉천민의 범주로 분류. 브라만,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상층 카스트이며, 수드라는 하층 카스트, 청소부와 세탁부등은 불가촉 천민으로 구분됨. 힌두 카스트체계는 힌두에만 적용되지만 무슬림과 시크등 다른 종교 집단에서도 카스트와 유사한 체계가 발견됨.

- 인도사회의 통합성은 인도사회의 정치적 단일성, 성지순례 전통, 화해와 공존의 전통에서 비롯됨. 정치적으로 인도는 단일 헌법이 전 인도의 영토에 걸쳐 통치권을 행사. 인도문화는 조화와 관용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힌두교의 탄력성에 발견됨. 힌두교는 지방수준의 신과 부족들까지 허용하는 다양한 신앙들의 복합체로 볼 수 있음. 힌두교의 개방성은 타 종교인을 개종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도 내 다양한 종교들은 함께 공존 가능. 근대 이후 인도사회에서 힌두와 무슬림간의 극단적인 종교갈등은 정치적 권력 등 세속적 목적 달성을 위한 힌두 보수주의 정치집단의 의도적인 상징 조작임.

2. 카스트와 사회문화적 세계

① 의례적 부정과 청결

- 카스트의 어원은 ‘종’, ‘인종’, ‘종족’을 의미하는 포르투갈어 ‘카스타’에서 유래함. 16,17세기 인도의 서해안에서 무역을 하던 포르투갈 상인들은 인도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나누는 각 개별 집단을 카스타로 명명.

- 카스트라는 용어는 바르나와 자티라는 두 종류의 인도 토착 용어와 명확한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음. 바르나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개의 범주로 나뉘져있으며, 전통적 직업과 관련이 있음. 흔히 우리사회에 알려져 있는 카스트 개념은 바르나에 가까움.

- 바르나 체계로 인도인의 일상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1950년대 이래 인도 촌락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 일상적인 인도인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사회조직의 원리는 바르나가 아닌 자티임을 밝혀냄.

- 자티는 바르나 아래 수준의 다양한 하위 집단. 인도 전역에 적용되는 바르나 질서와는 달리 한정된 지역권 내에서 그 기능과 의미가 있음.

- 자티는 해당 구성원에게 공유되는 성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함께 결혼하고 식사를 하여도 부정을 타지 않는 집단임. 모든 카스트에게 개방되어 있는 농업과 장사를 제외하고 대체로 개별 자티는 전통적이고 세습적인 특정 직업에 종사함.

- 자티와 바르나에서 공통되는 특성의 하나는 상이한 자티들 간 또는 바르나 간에 의례적 정결과 부정함의 정도에 따라 위계질서가 생성된다는 것임. 브라만처럼 최고 정결한 카스트는 위계질서 상 최상에, 그리고 불가촉천민처럼 오염이 심한 카스트는 최하위에 놓이게 됨.

- 불가촉천민은 부정을 일으키는 근원을 제거하는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있음. 북부인도에 대다수가 살고 있는 차마르 자티는 죽은 소를 치우는 일을 함. 죽은 소는 극도의 부정 덩어리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소의 주인은 불가촉천민인 차마르를 부르게 됨. 세탁을 하는 도비, 청소를 하는 방기 등도 불가촉천민임.

② 일상생활 속의 카스트

- 상층 카스트는 하층 카스트와 식사, 혼인,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면 오염된다고 믿음. 서로 다른 카스트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이 존재함. 카스트에 따른 의례적 위계질서는 카스트에 따른 좌석배치, 언어 사용에서도 발견됨. 카스트와 직업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카스트에 따른 전통적 경제활동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힌두 자즈마니 체계’가 있음.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이들이 필요로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능공 카스트간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관계를 말함. 자즈마니체계는 농업 외 취업기회의

확대, 현금 경제 및 농업의 상업화로 점점 사라짐.

- 대도시에서도 카스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신의 카스트와 관계없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도시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낮은 카스트와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함. 귀가 후 의례적 목욕을 하는 등 낮동안 불특정 다수와의 신체적 접촉으로 이룰 수 있게 된 부정함을 제거하고자 함.

③ 사회변동과 카스트

- 근대 이후 인도사회에 수많은 카스트들이 자신들의 카스트 지위를 높이려함. 근구화의 영향으로 인도사회에서 교육, 경제, 정치 등 모든 영역이 이론상으로는 카스트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됨에 따라 상층 카스트의 독점물이었던 교육이 하층 카스트에게 개방. 그 결과 일부에게도 새로운 직업과 높은 임금의 수혜가 돌아감. 낮은 카스트들은 브라만이나 지역의 지배적 카스트의 생활양식을 모방하려는 노력을 해옴. 이를 스리니바스는 ‘산스 크리트화’라 명명.

- 카스트와 직업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남. 전통적 직업을 상실한 다수의 기능직 카스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노동자나 소작농으로 전락. 이 가운데 일부는 농업으로 생계를 해결하기 어려워 도시임금노동자가 됨.

- 독립 이후 인도사회에서 카스트와 불가촉성의 개념은 공식 폐기되었지만 인도인의 일상 생활에서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함. 카스트 체계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부정 또는 오염의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

- 의례와 직업의 측면에서는 카스트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있지만 현대 인도 정치에서 카스트의 역할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인도 독립 후 불가촉 천민과 인도 내 부족출신자들은 낙후된 계급으로 분류되어 취업과 입학 등에서 정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됨. 보상정책이 실시된 이후 불가촉천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호전되고 있음. 1989년에는 ‘여타 낙후된 계급’이란 이름으로 수드라 바르나들 역시 동일한 보상 수혜를 입게 되었음. 인도 전체 인구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수드라에 대한 보상정책의 실시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로 구성된 상층 카스트들의 극심한 반발을 가져옴.

3. 가족과 혼인 및 여성의 지위

① 결합가족의 지속과 변화

- 인도의 결합가족은 부계혈통과 부거제를 강조하는 가족형태임. 전형적인 결합가족은 혼인한 아들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며 공동취사, 공동 생활 및 소비, 공동 재산 관리, 공동 의례 생활을 하는 거임. 결합가족에서는 형제들 간의 관계가 중요시 여겨짐.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인류학자는 결합가족의 형태가 순환적으로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함. 결합가족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형제들이 핵가족으로 해체했다가 개별 핵가족의 기혼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서 다시 결합가족 유형으로 복귀됨.

- 다른 학자들은 인도의 가족형태가 구조적 결합가족에서 기능상 결합가족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함.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결합가족이 핵가족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핵가족이 여전히 결합가족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은 결혼 후 거주방식에 변화를 가져옴. 혼인한 부부는 부모와 떨어져 자신의 직장이 있는 곳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거제 거주방식이 부거제를 대체하

지만 여전히 가족의 의무를 다해야함.

- 근대화나 산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문화요소인 결합가족을 의도적으로 유지시키는 인도 가정도 있음. 이들은 결합가족이 경제 및 산업 근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음.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일부 카스트의 결합가족은 자신들의 사업에 구성원들의 자본을 결집하여 투자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성격의 상품을 취급함으로써 사업에 성공.

② 다양한 인도 혼인

- 인도의 혼인은 카스트 내혼, 즉 동일한 자티 내부에서 이루어짐. 인도의 혼인방식은 다양하지만 편의상 북부 인도형과 남부 인도형으로 나뉨.

- 북부지방은 북부 히말라야와 남부가 시작되는 빈디아 산맥 사이를 지칭함. 북부 인도에는 촌락외혼이 요구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마을 밖에서 찾아야함. 마을 사방으로 약 4마일 내에서는 촌락외혼의 규칙이 적용됨. 북부인도에는 양혼이 지배적임.

- 북부 인도의 가족조직은 부계적이며, 부거제적임. 가족의 모든 지위와 재산은 남자에게 계승되며, 혼인 후 신부는 신랑의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함. 북부인도의 대부분 카스트는 자신의 씨족, 어머니의 씨족, 친할머니의 씨족, 외할머니의 씨족을 피해 배우자를 구함. 최근 이런 규제는 완화되어 자신의 씨족과 어머니의 씨족만 피해 혼인하는 사례가 많음. 북부 인도에서는 사촌 간 혼인을 수치스럽게 생각함.

- 북부 인도지방의 혼인은 다른 집단들 간의 혼인관계를 통해서 공간적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 혼인 유대를 확대하도록 하는 원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형사취수는 하층 카스트에서 가능함. 남부 인도에서도 케랄라의 나야르 카스트처럼 모계 혈통을 따르고 있는 소수의 사례 외에 부계제적 가족 형식이 지배적이며 씨족이 외혼단위로 작용하고 있음. 북인도와 달리 촌락외혼 규칙이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한 세대 안에서 혼인을 금하는 규칙이 남부인도에 적용되지 않음.

- 남부지방에서는 특정 대상과의 혼인이 권장되는 우선혼이 실시. 가장 선호되는 혼인 유형은 조카와의 결혼임. 다음으로 선호되는 혼인은 고모의 딸과의 혼인이며, 또 다른 원혼은 외삼촌의 딸과의 혼인임. 사촌혼이 일반적으로 선호됨. 북부와 달리 양혼이 지켜지지 않으며 형사취수는 금기시. 남부지방의 혼인은 집단의 범위를 중심으로 끌어 모으는 구심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③ 신부지참금

- 인도에서 신부지참금 관련 여성 살인사건은 매우 흔히 일어나며 인도의 혼인제도와 신부지참금 관습과 관련되어 있음. 신부값 문제는 인도의 혼인제도와 하층카스트의 상층카스트 관습 모방 등 사회문화적 요인임.

- 일반적으로 신부지참금은 북부인도에서 큰 사회적 문제임. 북부인도의 혼인 규칙 가운데 양혼의 이념과 신부지참금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양혼이란 신부가 자신의 자티 내부에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최소한 동등한 남자와 혼인하는 것을 말함. 신부집단은 혼인을 통해 지위를 향상하고 신랑집단은 현금, 폐물, 비싼 의복 및 가구를 받게 됨. 신부 집단은 의례적 지위가 높은 동시에 직업, 학력, 집안 배경이 좋은 신랑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물질적 재화를 소비해야함. 신부측이 제공한 물질에 만족치 못하거나 혼인 생활 중 지불받기로 약속받은 신랑 측이 받지 못하는 경우 신부를 타살하거나 자살을 유도하기 때문에 사회적 악의 하나로 부각됨.

- 신부지참금 문제는 근대 이후 새롭게 나타난 산물임. 이는 혼인에 따르는 ‘칸타단’과 ‘스트리단’이라는 전통적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함. ‘단’으로 알려진 의례적 증여에는 ‘닥쉬나’라는 소액의 현금 증여가 부수적으로 따름. 일반적으로 북부 혼인에서는 닥쉬나와 함께 신부 자체가 신랑에게 의례적 선물로 주어짐.

- 스트리단은 혼인식에서 신부의 친정 식구들이나 혼인 후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하나의 증여를 의미. 영국 식민시기동안 확산된 교육기회, 각종 국가 관료직의 확장, 현금경제의 확립, 물질주의 풍조 때문에 칸다난의 부수적 절차였던 닥쉬나가 고액의 신부지참금으로 둔갑.

④ 여성의 이중적 지위

- 인도여성의 이중적 지위는 인도사회의 친족과 혼인의 특성과 관련. 딸과 아내라는 여성의 이중적 지위는 인도사회의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이해되어야함. 초경 전 딸은 ‘칸나’로 불리며 정결하게 여겨지나, 생리의 시작은 오염과 동시에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여성의 출가는 딸의 지위에서 특정 부계혈통집단 구성원의 아내의 지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됨. 남편에 종속적인 지위를 갖는 기혼여성은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정절을 지키는 헌신적인 아내가 될 것이 요구됨.

- 시집은 여성의 성욕은 통제되어 남성중심사회 유지에 위협요소가 되지 않아야 함. 시집은 여성들은 가족구성원 중 시아버지 및 시아주버니처럼 남편의 연장자 남성과 공간적으로 함께 있지 못하며 파르다로 얼굴을 감출 것이 요구됨.

- 인도 여성의 이중적 지위의 특징은 여자 형제가 출가 후 친정 남자 형제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에서 나타남. 출가 후 친정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여자형제 역할을 시작함.

- 남매관계는 나아가 외삼촌과 조카 간의 관계, 외척관계로 발전됨. 외삼촌은 조카의 출생 의례와 혼인의례에 의례적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여자 형제가 많은 남성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음.

- 여성은 출가 전후를 통해 칸나로서의 신성한 지위와 남매관계에서의 특정한 의례적 수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가짐. 출가 후 종속적인 아내의 지위로 인해 시대 혈통집단의 내부적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약화됨.

4. 축제와 여가생활

① 힌두축제

- 인도 축제는 내용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됨. 가족의 복지, 생산성 및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들이 있음. 모든 인도 축제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대표적인 의례 참가자는 집안의 기혼 여성임. 디왈리와 카르바 조트가 가족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대표적인 축제임.

- 쉬바와 비슈누 특히 비슈누의 화신들인 크리쉬나와 라마신들은 신을 경배하는 축제들의 주인공임.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와 신을 경배하는 축제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움. 대표적으로 신을 경배하는 축제는 비슈누 신의 화신인 람 신을 경배하는 다세라와 홀리카와 비슈누를 경배하는 홀리가있음.

- 인간들 간의 상호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축제들이 있음. 이 축제는 선물교환을 통해 친족과 친구 간의 끈을 보다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함. 주요 목적은 각종 의례적 상황에서 선

물을 주고받는 친족원, 카스트 동료, 친구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보다 단단히 만들고자함. 오누이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축제인 ‘락샤 반단’은 전국적으로 치러짐.

② 영화와 크리켓

－ 인도인에게 영화는 가난, 계급, 카스트 차별 등 현실세계로부터 생기는 각종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는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 1980년대 이래 현재까지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제작하는 나라이며, 볼리우드가 이는 몸바이는 인도영화산업의 메카임. 2000년대 초 볼리우드 영화의 관객수는 약 36억명이며, 인도영화산업발전은 인도의 대중음악의 발전에 기여.

－ 인도영화가 내수시장을 확고히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인도인의 독특한 문화적 취향이 인도 영화에 담겨있기 때문임. 인도영화는 힌디어로 양념 또는 향신료를 의미하는 ‘마살라’ 영화로 불림. 이는 인도영화에 노래, 춤, k랑, 액션, 코미디, 미녀, 남성영웅, 해피엔딩 등 각종 양념이 뒤섞여있기 때문임.

－ 2001년 개봉한 영화 ‘라간’은 크리켓과 민족주의간의 결합을 영화산업이라는 오락산업으로 도입하여 대성공을 거둠. 인도의 탈식민시기 민족주의라는 잠재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영화. 영국은 일찍이 식민지 인도에서 크리켓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통합수단이자 피지배자들을 분리시키는 수단으로 생각. 봄베이에서 시작된 크리켓은 초기부터 종파적 성격을 띠고 시작됨. 영국인과 시합하기 위해 인도팀이 구성되어야 했으며, 이를 통해 인도국가가 발명됨.

－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인도의 경제개방과 세계화에 따른 대중 매체 개방과 확산 등 인도사회의 전지구화과정은 크리켓을 상업적 욕망과 민족주의적 열정에 접목. 2008년 문을 연 ‘인도프리미어리그’는 인도 크리켓이 글로벌 스포츠 시장을 선도하게 함으로써 인도인을 크리켓에 도취하게 만들. 국가 간 대회인 테스트매치에서 적성국가인 파키스탄과의 크리켓 경기는 충성없는 전쟁임.

용어해설

애니미즘

－ 물신숭배(物神崇拜)·영혼신앙(靈魂信仰) 또는 만유정령설(萬有精靈說)이라고도 번역되는 애니미즘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아니마(영혼)에서 나온 말이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가 《원시문화》(1871)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하였는데, 애니미즘적 사고방식은 ‘야만인의 철학’으로써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종교의 근본원리가 되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다.

타일러에 의하면 애니미즘적 사고방식은 꿈과 죽음의 경험에서 추리되어 성립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가령 잠자고 있는 동안 몸은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도 멀리 떠나 있는 꿈을 꾸다거나, 또는 죽음 직후에는 외관상 아무 변화는 없으나 살아 있을 때의 상태와는 다른 것을 느낀다. 그래서 육체와 유리되어 활동하는 원리, 즉 영혼을 상정(想定)하게 되었다. 수면과 가사(假死)는 영혼의 일시적 부재(不在)상태이며, 죽음은 그 영원한 부재상태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영혼은 독립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숭배하는 데서 종교가 비롯되었으며, 동물이나 나아가서는 자연물에까지 영혼을 인정함으로써 신의 관념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같은 타일러의 학설은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

도 하고, 또한 원시인에게서 꿈이 것처럼 중대한 경험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두고 논란도 있었으나, 이원론(二元論)의 사고양식을 설명하는 양식으로서 아직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보통 사람이 낮을 잃으면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다고 믿는데, 무당이 행하는 병치료법은 그같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환자의 육체에 되돌려주는 일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인디오 사회에서는, 인간과 특정의 동물이 낮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 신앙을 흔히 보게 되는데, 그 상대 동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고 믿고 있다.

형성평가

1. 다음 중 ‘자티’의 성격을 설명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다)

가. 바르나의 하위 집단이다.

나. 내혼집단이다.

다. 인도 전역에서 동일하다.

라. 동일 직업집단과 관계가 깊다.

2. 근대 이후 인도사회에서 낮은 카스트가 높은 카스트의 생활관습의 모방을 통해 지위상승을 위한 노력과 밀접한 개념은? (다)

가. 지배적 카스트 나. 동양주의 다. 산스크리트화 라. 파티브라타

3. 다음 중 북부 인도의 혼인과 친족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다)

가. 형사취수 나. 양혼 다. 사촌혼 라. 네 종류 씨족 기피

9. 중동 북아프리카

1. 중동과 북아프리카 세계 개관

－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하나의 지역권으로 묶는 것은 지리적 요소도 있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문화의 영향이 강함. 20세기 초까지도 건재함을 과시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토로 묶여 있었다는 정치경제적 여가가 작용함. 그 이전 시기에는 이슬람의 창건자 무함마드의 사후 급속히 확장된 이슬람 제국의 영토였다는 점. 그 전 시기에 지중해 일대를 덮었던 로마제국에 속했던 땅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들이 눈여겨봐야함. 오늘날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하나의 문화적 지역권으로 보게 하는 데는 지중해라는 바다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큰 영향을 끼친 변수임.

① 지중해 세계 속의 ‘오리엔트’

－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아시아 대륙부분과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중심부에 나일 문명 발흥지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발흥지를 끼고 이음. 나일 문명과 팔레스타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일대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 사이에 비교적 잦은 교통을 통해 사람과 문물의 교환이 있었음. 시나이 반도를 지나 요르단의 짧은 사막을 건너는 육로도 비교적 간단함. 나일강 하구에서 지중해 동부 연안을 따라가면 페니키아, 오늘날의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일대가 나옴. 이후 지중해 문화권 전체가 공유하게 될 유일신 종교를 낳게 됨.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지중해에 이웃한 유럽 지역과 비교해 대조되거나 비교될만한

지리적 특성이 없음. 역사적으로 대규모 이슬람 제국의 영토에 포함되었던 고들이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인식됨.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지중해에서 사하라 사막지대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영역에서는 터키 부근부터 흑해 연안 아래로, 다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부근까지 경계를 이룸.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지중해 세계의 동쪽과 남쪽을 차지하며 ‘오리엔트’라는 이름을 얻기 시작함. 반대편 서쪽과 북쪽에는 그들을 ‘오리엔트’라고 부르는 ‘에우로파(유럽)’가 자기 지역권 의식을 만들어가기 시작함.

② 지리적 특성과 생활양식

–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의 영향을 받아 지중해성 기후라는 환경을 구성함. 내륙으로 들어가면 각 지역의 다른 특성들이 있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나일 등 큰 강 유역에는 최초의 농경문화들이 나타났고, 이후 비옥한 정착농경지대를 이룸. 강수량 자체가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물에 의존하는 식량생산의 비중이 큼. 풍부한 잉여식량이 절대 권력을 탄생시킴.

– 아라비아 반도 깊숙이 들어서거나 이집트 나일강 서쪽연안을 넘어 대륙안으로 나아가면 거대하고 건조한 스텝과 사막지대가 나타남. 터키와 이란의 상당부분도 건조한 지대임.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의 70% 이상은 연중 강우량이 400mm 이하인 건조한 지역임.

– 일년 내 건조하고 가을에서 봄 사이에 안개비가 내리는 기후 속에서 집약농경이 어려운 대신 목초지가 형성됨. 가장 널리 퍼진 전통 생활 방식은 목축업임. 스텝과 사막지대에 흩어진 오아시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농경도 곡물에 의존하기 보다는 대추야자와 올리브처럼 기온이 높고 일조량 많은 지역의 과수재배 형태에 의존. 안정적 식량은 하천을 확보한 곳에 집중 생산.

– 유목민들은 우유, 치즈, 고기등을 주식으로하여 장거리 이동. 건조하고 높은기후에 적응하는 양과 염소가 가축의 중심을 이룸. 유목민들은 기동성을 중시하며, 텐트를 설치하고 이동하며 나뭇의 영토성을 확보. 식량확보의 불안정성은 유목민 부족간 경쟁과 전투의 빈도를 높임.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는 목초지가 마르고 가축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며 물과 식량을 찾아 다투는 일이 빈번함.

– 정착 농경민들은 밀, 호밀, 보리, 수수, 귀리 등을 주식으로 하며 발달된 관개체계에 의존해 다양한 작물들을 기름. 큰 강어귀의 대규모 농경은 고도화된 관료제와 농업기술, 기록문화와 복잡한 사회체계를 발달시킴. 국가체계가 일찍 나타난 나일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대규모 집약농경지대에서 출현.

– 강력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적한 지역의 소규모 정착 농경 집단은 유목민 집단이 벌이는 약탈의 표적이 됨.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오래되면서 두 가지 생활양식을 지닌 집단들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 농경민들은 곡물을 제공하는 대신 유목민들은 다른 유목민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막아주며 목축활동의 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호혜적 협약을 이룸.

③ 다양한 종교와 종족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묶는 중요한 요소는 이슬람 문화임. 이슬람이 퍼짐에 따라 가장 눈에 띄는 언어는 아랍어임. 하지만 이슬람 외에도 종교가 다양하며, 종족적 구성 또한 다양하다.

– 이집트의 신들인 오시리스, 이시스, 라 등에 대한 신앙이 발달했으며, 조로아스터교 신앙도 고대 오리엔트 전역에 큰 영향을 끼침. 바알암몬은 지중해 전역에 퍼진 바알 신앙의 근

거가 됨. 지중해 전역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그리스인들의 다신교적 전통도 영향을 미침. 풍요와 다산의 주신인 바쿠스에 관한 신앙 풍속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발전. 사막의 척박한 환경 속에 자연에 절대 의존해야하는 이들에게 태양과 별에 대한 숭배사상이 발전. 초월성, 신비주의적 경향들도 고루 발달.

- 여러 신앙의 전통이 유대교에서 비롯된 유일신 사상이 다시 기독교로 진화하면서 동로마 제국시기를 거쳐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에 퍼지는 과정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음. 기독교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중요 종교였음. 622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 지역을 근거로 발흥한 이슬람 유일신 종교가 짧은 시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정복.

- 7세기경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유목민들은 대부분 이슬람을 믿게 됨. 10세기경 일부가 아라비아 반도의 기근을 피해 이집트를 거쳐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감. 사하라에 낙타를 유입시키고, 종족혼합화 이슬람의 전파, 아랍어 전파를 통해 북아프리카 일대를 아랍화 시킴. 아라비아 반도 북동쪽과 터키 일대의 구 동로마제국 영토에는 이디쉬어를 사용하며 유대교를 신앙하는 유대인이 거주.

-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주민의 대수를 구성하는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만의 언어와 함께 이슬람 종파중에서도 시아파로 대표되는 종교적 차별성을 민족구분의 한 요소로 사용. 중앙아시아 유목지대에 도래하여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결성. 수세기 걸쳐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을 지배해온 투르크족은 소아시아 지압의 기존 주민이었던 아르메니아인, 그리스인, 페니키아인, 흑해 연안 주민들과 섞여 터키 민족을 구성. 시리아, 터키, 이라크 접경지대에 흩어져있는 2천만명 이상의 쿠르드 족이 있음.

2. 가족과 친족 - 부족사회의 신화

- 중동 아프리카 사회는 혈연적 집단주의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강한 지역임. 한 편 앗사비아(assabiya)라 불리는 부족의 단결력을 우선시하는 지역의 부족 중심적 사회조직과 이슬람 문화의 전통은 근대국민국가 형성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여겨짐. 이슬람 발흥 이전부터 지중해 사회에는 혈연적 집단주의와 가부장제 문화가 일반적인 문화적 형태의 하나로 자리잡음. 이슬람은 오히려 광범위한 통합적 정체성을 만드는 기반으로 작용.

- 부족 단위로 나뉜 사회에서는 특별한 계기를 만나면 일시에 거대한 제국으로 통합됨. 이런 성격은 후기 근대 이래 지역권별로 다시 연합되어가는 정치경제 조약, 혹은 연맹체의 형성에는 유리한 기반이 될 수 있음.

① 결혼 - 사촌혼 관습

-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사촌혼 풍습은 널리 퍼져있음. 가까운 친척을 최우선 순위로 1차부감 혹은 신랑감을 찾는 것은 아랍인들만의 특징이 아님. 아랍인과 유대인, 페르시아인, 그리고 베르베르인들이 사촌혼 풍습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족내혼 경향이 이슬람 출현 이전부터 일반화되어 있던 부족사회의 조직양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줌.

② 부족의 생존논리

- 사촌혼 관습은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건조한 지역의 유목민들이 만들어낸 적응양식임. 유목민들의 이동 중에 생존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혈연집단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함.

- 유목민 집단의 생존가능성은 자기 방어와 필요시 다른 집단을 공격할 수 있는 전투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큼. 그래서 부족 사회 사람들은 개인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명예로 여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갈등상황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움직이는 부족집단의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생존자원 관리 방식의 하나임. 전투를 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전투 구성원은 남성들임.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부족의 딸이 다른 부족으로 시집을 가서 그 부족의 전투원이 되게 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중요함.
- 대가족 집단의 자원관리 문제도 중요함. 아들 간 균등 재산상속을 하는 지역 풍습을 적용할 경우 세대가 두 세대만 내려가도 가족과 땅의 규모가 작아짐. 사촌간 결혼을 최우선의 조건으로 하는 결혼 풍습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갈등의 상황에 대비해 일상적 자원의 혈연집단 내 관리를 통해 유목민의 부족집단을 재생산하고 유지시키는 중요 기제로 작용.

3. 이슬람의 무게

① 종교가 만드는 일상의 리듬

- 이슬람은 중동·북아프리카 문화의 근간을 만든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임. 이슬람은 정치와 법과 경제와 일상의 모든 것을 이슬람 계율과 계율이 제시하는 정신에 따라 실행하고자 한 무슬림의 세계를 만들어냄.
- 이 지역의 하루는 모스크 참담에서 외쳐대는 기도예의 부름으로 시작됨. 새벽부터 시작된 기도는 낮 기도 두차례를 거쳐 석양 무렵 한 번, 밤의 초입부 기도 한 번으로 하루를 마감함.
- 일주일의 리듬은 모스크에 모여 기도하고 이맘의 설교를 듣는 금요일을 중심으로 돌아감. 금요일은 정식공휴일이며 목요일이 장이 서는 날임. 목요일의 장터에서 경쟁하던 부족들이 만나게 되는데 시장은 '평화협정'과 '휴전'의 장소가 됨.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아침까지는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씻기 위해 공중목욕탕에 가는 시간임.
- 이슬람의 중요 종교적 절기들은 각 계절과 한 해의 리듬을 주도함.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라마단 기간이 있음. 라마단 기간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슬람 문화권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 가족, 전 공동체 구성원들이 금식하는 기간.
- 본래의 종교적 금기 명령은 현실적 전통과 타협. 밤 동안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양은 보통 기간을 능가함. 일종의 축제 시기가 됨. 라마단이 끝나는 날에는 온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풍성한 음식의 잔치를 벌이는 아이드-알-피투르(aid-al-fitur)라는 축제를 벌임.

② 금욕주의와 신비주의

- 이슬람도 외견상 상당한 금욕주의가 강조됨. 종교생활에 있어서 욕망의 절제는 물질에 대한 욕구와 쾌락에 대한 욕구를 다스림으로써 초월적 신 앞에서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됨. 외형적 금욕주의의 반대편에서 발견되는 이미지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비롯한 민간설화에서 나타나는 쾌락추구와 환상, 신비주의적 경향의 모습들임.
- 이슬람 문화에서 물질적 욕망과 성적 욕망을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경계.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반대되지 않음. 남성의 성적 욕망은 다산을 장려하고 남아출산의 기회를 높이려는 문화에서 장려되는 요소임.
- 공개적으로 많은 패물을 내보이는 것은 부정적으로 여겨짐. 하지만 차도르 안에 숨겨져

있는 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음. 거주하는 집도 길에서 보아 차이가 날만큼 화려하게 꾸미고 규모를 드러내는 것은 외형적 평등주의 분위기에 배치됨.

- 공개적이고 외형적인 차원에서의 금욕주의는 알라신에 대한 신앙의 표현양식에서 동일하게 적용됨. 선지자 무함마드가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신비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성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중시하는 것도 공식적인 이슬람의 특성임.

- 신비한 일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특별함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는 이슬람 발흥 이전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에 퍼져있던 토속종교들의 신비주의 경향과 합쳐져 이슬람적 신비주의를 낳음. 종파 조직 형태에 따라 수피즘 혹은 마라부티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슬람 신비주의 경향들은 신도들이 특별한 날에 특정 장소에 모여 음악을 연주하며 입신상태에 빠지도록 한다든지 기적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에 중요 의미를 부여.

- 이슬람 신비주의 신앙형태 속에서 욕망과 쾌락 추구를 담은 종교적 표현들이 더 큰 자유를 얻음. 이 같은 금욕주의와 신비, 쾌락주의 경향의 공존은 원리주의적 종교 정화운동에 의해 새롭게 탄압되는 시기를 겪음.

4. 중동·북아프리카의 전통과 현대

- 중동·북아프리카 사회의 문화에서 전통의 요소들은 빠르게 약화되어감. 대중매체의 광범위한 확산과 기술혁명은 문화와 일상의 전지구화를 진행시킴.

-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통적 요소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0년 말부터 튀니지를 비롯해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 중동 전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랍의 봄’은 전통문화와 정도 단절을 이룬 새로운 세대의 뉴 미디어에 의존함.

- 각 가구별 1대 이상의 텔레비전이 있는 정도로 대중매체가 광범위하게 보급.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위성 텔레비전 수신 장치와 인터넷 활용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 국가의 공식 미디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함.

- 알제리에서 탄생해 세계전역으로 퍼진 대중음악 장르인 ‘라이’는 썸 마미와 같은 대형 가수를 배출. 그들의 음악을 유럽 전역과 미주지역까지 유행시킴. 라이는 아랍의 민중적 전통 음악 색채와 스페인 대중음악 색채를 결합. 주된 악기는 신시사이저를 사용함으로써 태생 자체가 하이브리드 문화적 성격을 지님.

- 시골마을 시장을 휩쓰는 주요 일용품 중 중국과 베트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대외 주변 쇼핑물과 큰 차이가 없음. 한국 자동차가 이라크와 알제리에 판매되는 숫자가 급증함.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이 겪을지도 모르는 테러의 위험과 뉴스들은 한국의 정쟁을 좌우함. 석유가격은 가정 소비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침.

용어해설

라마단 기간

아랍어(語)로 '더운 달'을 뜻한다. 천사 가브리엘(Gabriel)이 무함마드에게 《코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로 여겨, 이슬람교도는 이 기간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를 드린다. 다만, 여행자·병자·임신부 등은 면제되는 대신, 후에 별도로 수일간 금식해야 한다. 이러한 습관은 유대교의 금식일(1월 10일) 규정을 본떠 제정한 것인데, 624년 바두르의 전승(戰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달로 바꾸어 정하였다. 신자에게 부여된

5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이며, '라마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식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뿐만 아니라 담배, 물, 성관계도 금지된다.

라마단의 마지막 10일간은 가장 최고로 헌신하는 시간으로 이슬람교도들은 그 기간 사원 안에서 머물게 된다. 보통 27번째 되는 날을 '권능의 밤(Laylatul-Qadr 또는 Lailatul-Qadr)'이라고 하여 밤새워 기도한다. 라마단이 끝난 다음날부터 '이드알피트르(Eid-al-Fitr)'라는 축제가 3일간 열려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주고받는다.

라마단은 해마다 조금씩 빨라진다. 이슬람력은 윤달이 없이 12개의 태음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력보다 11~12일이 적기 때문이다. 해마다 라마단이 다가오면 전문가단이 구성되어 초승달을 관측하고, 최고종교지도자가 초승달을 육안으로 관찰한 후 라마단의 시작날짜를 공포하며, 같은 이슬람국가라도 교리에 따라 하루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많은 이슬람교도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달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라마단을 시작하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초승달이 보이는 날짜를 따르는 신자들도 있다.

형성평가

1. 다음 중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흥한 종교가 아닌 것은? (나)

가. 조로아스터교 나. 마니교 다. 수피즘 라. 기독교

2. 중동·북아프리카의 부족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개념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다)

가. 평등주의 나. 명예 다. 추장제도 라. 질투와 자존심

10. 아프리카

1. 아프리카 역사와 개관

-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는 문명의 발생지로 오랜 인류 역사의 한축을 이루고 유럽과 교류. 사하라 사막의 장벽은 아프리카 대륙을 오랜 기간 미지의 땅으로 남겨둠. 유럽인들이 상상한 아프리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동물과 사람들이 사는 곳임. 상상되는 모습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달라졌지만 아프리카의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상상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짐.

-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는 미국, 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유럽, 뉴질랜드를 포함할 정도임. 면적은 3,036만km²이고 인구는 8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 아프리카는 지구상 알려져있는 모든 언어의 3분의 1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 곳. 백인과 아랍계,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계와 흑인등 모든 인종이 살고 있음.

- 자연환경은 열대우림지대, 초원지대, 사막, 북쪽의 지중해성 기후와 남쪽의 온화한 기후가 적도를 기준으로 남부 양쪽에 대칭으로 전개됨.

- 인류의 기원지임. 현생인류의 조상격인 인과(hominid) 동물 화석의 상당수가 아프리카에서 출토.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를 잇는 지구대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 발굴. 여성을 통해서만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체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현생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는 주장도 있음.

① 흑(흑) 아프리카

- 아프리카 대륙은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둘로 구분됨. 사하라 사막 북쪽의 북아프리카는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랍문화에 가까움. 이슬람과 아랍어로 대표되는 아랍문화와 아랍계의 인종구성은 사하라 사막 남쪽과는 다른 문화를 발전시킴. 모코로, 알제리, 튀니지는 마그레브라 불리며 동부의 이집트나 리비아와는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짐.
-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은 '흑아프리카'로 불림. 이 표현은 이 지역에 사는 아프리카인들의 피부색을 상징하기도 하고 미지의 대륙이라는 의미도 내포함. 빈곤과 기아, 내전 같은 암울한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함. 근래에는 지리적 개념인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sub-Saharan)'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임.
-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는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로 구분.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등은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로 구분하기도 함.

② 아프리카의 문화영역

- 아프리카의 다양한 자연환경은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킴. 전통적인 아프리카문화는 자연환경에의 적응과 이를 활용하는 생계양식을 중심으로 발전. 생계양식은 크게 목축과 수렵채집을 주로하는 지역과 농경지역으로 나뉨. 목축 생계경제는 동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아래 사바나 지역에서 주로 행해짐. 수렵채집경제는 칼라하리 사막 일대와 열대우림지역 일부에서 발견됨. 목축과 수렵,채집 경제지역의 문화는 코이산 문화, 동아프리카 '소 복합(cattle complex)' 문화, 동부 수단 문화 영역으로 분류.
- 코이산 문화를 대표하는 쿡산(Kung San)족은 부시맨으로 알려짐. 여성들의 채집과 남성들의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함. 규모가 작은 집단을 형성해서 살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이동함. 목축을 주로 하는 '소복합' 문화는 동아프리카 사바나와 스텝 지역에서 관찰됨. 소 복합 문화 영역은 남아프리카 동쪽 끝에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를 거치는 좁고 긴 지역에 걸쳐 있음. 동부 수단 문화 영역은 동부에서 중서부 아프리카의 카메룬과 차드에 이르는 지역임. 이 지역 사람들은 반농, 반목축 생계경제를 영위
- 농경 기초 문화영역은 강수량이 적절한 지역임. 콩고, 기니만, 서부 수단 문화 영역이 농경에 기초한 문화를 발전시킴. 콩고 문화 영역은 아프리카 심장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열대우림지역임. 기니 만 문화 영역은 서 아프리카의 남쪽 국가인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등을 포함하는 지역. 이 지역의 농경은 식용작물과 현금작물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강력한 왕국이 출현함.
- 아프리카 언어권은 네 가지 어족으로 구분됨. 아프로아시아, 니제르 코도파니안, 니로-사하라, 코히산 어족으로 분류되는 아프리카 언어는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언어는 800여개에 달함. 인접 언어 간의 유사성 때문에 언어학자에 따라 730여개로 분류하기도 함.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어느 한 민족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해 과거 식민지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함.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에서 수단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 국가 공식 공용어 외에도 특정 언어가 한 지역의 교통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가 대표적 사례임.

③ 노예무역과 아프리카의 수난

- 대서양 노예무역은 인류 역사에 잊지 말아야 할 미극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는 유럽

인들은 서아프리카 해안과 희망봉을 잇는 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함. 해안가에 자신들의 요새를 세우며 교역을 시작. 단순 교역에 머물던 유럽과 아프리카의 교역은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노예무역으로 발전.

- 아프리카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으나 아프리카 노예는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출산력 있는 여성을 선호.

- 아프리카에서 노예는 전쟁의 포로이거나 채무자가 대부분. 일부는 범죄자도 있었음. 아프리카 노예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며 자녀들은 자유인의 신분임. 노예의 일상생활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대서양 노예무역 이전에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잡아간 사람들은 이슬람 상인임. 이들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며 무역을 함. 기마병을 동원해 대규모 노예사냥을 벌임. 붙잡힌 노예들은 지중해와 수에즈를 가로질러 유럽과 아랍지역으로 팔려나감. 대서양 노예무역은 16세기 이후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 농장이 확장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확산.

- 대서양 노예무역은 16세기 초반 한 해 1,000명 미만이었으나, 17세기 말 브라질과 서인도제도의 플랜테이션 농장이 증가하며 매년 3만 명이 넘는 규모로 늘어남. 16세기-18세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려간 아프리카인은 약 1,1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추산됨.

- 노예무역은 아프리카 해안의 정치세력들을 전쟁으로 몰아감. 유럽인들에게 무기를 획득한 세력들이 영토를 확장해가자 다른 세력도 노예를 팔아 유럽인으로부터 무기를 들여오려 함.

④ 식민통치와 독립

- 유럽 열강들의 아프리카 지배는 베를린 회의를 통해 체계를 갖추.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식민지를 가짐. 식민지 경영의 기본 원칙과 지배체계에 차이가 보임. 영국은 아프리카 전통문화 존중 명분으로 간접통치한 반면, 프랑스는 직접 통치.

- 유럽의 아프리카 식민지배가 남긴 해약 중 하나는 아프리카인을 분열시키며 서로에 대한 증오를 키웠다는 것임. 일부 식민정부는 아프리카인 중 특정 민족이나 집단을 선정해 식민 통치에 활용. 독립 이후 민족 갈등의 원인이 됨.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비극적 갈등은 벨기에 식민통치가 만들어낸 유산.

- 유럽 열강은 아프리카 식민지에 세금을 징수하고 자원을 약탈. 비옥한 농경지를 차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토에는 네덜란드에서 건너온 이주민들과 후대에 영국에서 이주해온 백인들이 정착. 현재의 케냐, 짐바르베, 앙골라, 모잠비크 등에도 영국과 포르투갈 이주민들이 농장을 경영.

- 유럽인은 비옥한 농경지의 농장 경영을 통해 아프리카 농민을 임노동자로 전환시키고 아프리카 농민들 간의 분화를 만들어냄. 유럽의 이민자들은 식민지에서 자신의 높아진 신분을 확인하는 방편으로 본국 상류층들이 행하는 관습을 아프리카에 들여와 자신의 전통으로 삼음.

- 아프리카 식민지들은 1957년 가나의 독립을 시작으로 1960년에서 1964년 사이에 20개국 이상, 1966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 1970년에 나머지 몇 나라가 독립. 199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공식적 식민지배를 받던 나마비아가 독립.

2. 아프리카의 가족의 혼인

① 출계율과 종족집단

- 아프리카 친족집단은 부계혈통, 모계혈통, 공계혈통, 그리고 이중혈통으로 구성. 친족집단은 씨족과 종족 단위로 형성.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종족집단임. 아프리카 친족집단이 갖는 정치적 역할은 수단의 누에르족에서 잘 드러남. 수단의 부계종족집단은 중시조를 중심으로 여러 하위집단으로 나뉨. 이들 집단이 서로 협력과 견제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함. 이러한 종족집단체계를 분절적 종족조직이라 부름.

② 컴파운드와 가족

- 아프리카의 부계확대가족은 부모와 그 자식들이 혼인한 후에도 함께함. 자식들 중 일부는 혼인 후 인근 지역에 살면서 많은 것을 공유함.
- 컴파운드는 아프리카의 가족생활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 여러채의 집으로 이루어지거나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는 건물 형태인 컴파운드에는 가족 외에 친척, 방문객, 고향 사람, 노예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음. 혈연이나 인척관계가 없더라도 컴파운드 구성원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지님.
- 컴파운드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함. 나이지리아 요루바 사람들은 사각형 형태의 컴파운드를 주로 건축함. 컴파운드 중앙에는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의례를 행하는 공간이나 모임 공간으로 사용. 일부자처제 사회에서 부인들은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컴파운드 내 방이나 건물에서 따로 생활.

③ 일부다처제와 동복 자녀 간의 유대

- 아프리카의 확대가족을 특징짓는 다른 요소는 복혼임. 복혼은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가 존재함. 대부분은 일부다처제임. 한 남자가 여러 번 혼인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 이상 걸려 진행됨.
- 부인들 간의 위계는 혼인 순서에 의해 결정. 생물학적 나이가 어리더라도 일찍 혼인한 여성이 가족 내에서 권위를 가짐. 첫째 부인은 부인들 간의 갈등이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권위와 책임을 가짐.
- 부인들은 각기 자신의 방이나 건물에서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 부인들과 그 자녀들은 따로 식사를 준비. 남편의 식사는 부인들이 교대로 책임짐. 농사를 지을 때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이 있을 뿐 부인들 간의 차이는 없음.
-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가족의 기본단위를 이룸. 나이지리아의 요루바 사회에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동복자녀로 밀접한 유대를 형성. 오모이야, 오바캉은 가족의 기본단위로 작동함. 친족간의 갈등이 생기면 오모이야 간에 결속하고 갈등의 내용에 따라 오바캉 범주로 협력하기도 함.
- 일부다처제 사회에서 부인들은 나이가 들고 자녀가 독립해 나가면 남편을 떠나이기도 함. 남편이 죽으면 재산은 자녀의 유무나 수에 상관없이 부인들에게 균등 분배. 남편의 1 후예는 친정에 돌아가 살기도 하며, 자식들은 어머니나 외가 쪽 친척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
- 일부다처제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관이 없음. 일부다처제는 출산율과도 관련이 없음.

3. 주술, 종교, 의례

① 아프리카 종교의 특징

- 아프리카 종교는 민족마다 신의 이름도 다르고 신에게 바치는 의례도 다양하지만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다는 믿음이 유사함. 세계를 창조한 신이 신들의 위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지님. 창조신화에 등장하는 대부분 창조신들은 세계를 창조한 후 인간과 세상을 떠나 인간 삶에 관여하지 않음. 서아프리카 가나에 살고 있는 아산티 왕국에서는 세상을 창조한 신이 물건도 만들어주고 인간을 도와주었으나 인간이 신을 귀찮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표현됨.

- 아프리카 신들의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창조신은 수많은 하위신 또는 역적 존재를 두며 이들에 의해 보좌를 받음. 마이지리아 요루바 민족의 오리샤나 가나 아칸 족의 보숨은 하위신을 집합적으로 부르는 표현. 창조신을 제외한 대부분 신은 강, 별, 나무, 산, 하늘 등 자연요소와 관련. 조상들이 죽은 후에 신이 된 경우도 있으며 조상신은 친족집단의 최고원으로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됨.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에서 조상들은 살아있는 죽은 자로 불림.

- 아프리카 종교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이음. 아프리카 신화에 따르면 죽음은 원래 인간세상에 없었으나 나중에 들어 온 것임. 인간의 삶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음. 아프리카인들은 조상들의 세계가 있고, 인간은 죽은 후 조상들의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난다고 믿음. 이러한 믿음을 의례로 표현하는 것이 장례식.

-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에서 독특한 것은 조상들의 세계가 인간이 살고 있는 현세와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겹쳐있다고 믿는 것임. 사후세계로 떠난 조상은 이 세상 동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데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도 함. 요루바족의 이름 중 바바툰데는 조상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임

- 아프리카 종교에는 전문적인 성직자가 다양하게 존재함. 전토이대의 왕국이나 도시국가에서는 특별한 종교적 임무를 갖는 사제들의 집단도 존재함. 요루바족의 경우 특정 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집단인 결사체를 형성.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입사의례를 행함. 특정한 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은 내부의 위계질서에 따라 지도자의 위치를 계승. 혈연이나 집단 내부의 위계를 기준으로 지도자의 지위가 전해지며 왕국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이러한 종교집단의 지도자들이 성직자 역할을 수행함.

- 일상생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간과 신을 중재하는 주술사는 아프리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신이나 조상과의 영적 소통을 통해 인생의 생로병사나 길흉화복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조언함. 주술사는 불행의 원인에 따라 영적의 의례를 처방하거나 특별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약을 제조하기도 함.

- 친족집단은 하나의 종교집단으로 기능. 집안 대대로 섬겨온 신을 섬기는 것은 친족원의 의무. 왕과 추장 같은 정치지도자도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함. 요루바족의 경우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 의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② 주술(magic)과 마력(witchcraft)

- 아프리카 종교의 특징은 주술과 마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것임. 아프리카인의 주술적 사고가 논리적 관계가 없는 사건을 인과관계로 풀어나가며 불행의 원인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것으로 평가. 하지만 과학적 사고를 하는 현대인의 논리체계나 주술적 사고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음

- 마력에 대한 믿음은 아프리카의 주술적 사고를 잘 보여주는 사례임. 수단인 아잔데족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아잔데족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재앙이 닥치면 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했는지 알아내려

함. 주술사는 점술을 통해 의심스러운 사람을 지명함.

- 마력을 통해 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제한됨. 마력은 어떤 물리적인 도구나 의례를 통하지 않고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술사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님. 지목받은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도 없음.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탁은 대부분 불가능한거이어서 마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화해를 도모함.

- 마력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마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지목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친척과 이웃을 돕고 보살핌. 마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지목 받았을 때 불행에 처한 친척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화해함으로 자신의 혐의를 벗어남. 마력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이 공동체의 질서와 협력을 유지함.

- 아프리카 종교에서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여러 신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과 의례를 통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 아프리카 주술사들은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을 위해 의례를 처방하거나 부적을 만들어줌. 서아프리카에서 주주(juju)로 불리는 부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주술적 공격을 막는데 사용되기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지기도 함. 주주는 의례적으로 중요한 여러 상징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약초를 이용하기도 함.

- 실제 마력을 믿는 아프리카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마력의 공격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지진의 위험 속에 살면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처럼 실제 자신에게 닥칠 재앙의 확률은 낮다고 생각함.

③ 아프리카의 기독교와 이슬람교

-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아프리카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하기 전에 초기 기독교는 북아프리카 동부의 에티오피아에 퍼져있음. 본격적인 선교는 19세기 유럽의 식민지배와 함께 진행되었고 오늘날 기독교는 신자 수에서 아프리카의 최대 종교가 됨. 아프리카 내륙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는 아프리카 성직자들의 역할이 컸음. 아프리카의 일부 성직자들은 아프리카의 전통종교나 문화의 단절을 개종의 조건으로 강조하지 않음. 이러한 차이는 일부다처제나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축제와 의례 등을 어느 수준에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1920년대 들어 기독교 교단의 분열로 나타남.

- 나이지리아에는 다양한 독립교회들이 있는데 여성이 창립하거나 지도자인 경우가 많음. 요루바어로 '기도하는 사람' 또는 '기도의 주인'이라는 뜻의 '알라두라(Aladura)' 교회는 여성이 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알라두라 교회는 1918년에 유행한 독감에 신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작.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이들은 집회 때마다 요란한 박수와 춤, 방언기도, 성령체험을 강조함. 또 다른 독립교회인 '체루빔과 세라핌 교회'나 '셀레스티알 교회'도 예언이나 환상을 강조하며 질병의 치료를 중시함.

- 아프리카 독립교회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프리카 전통종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함. 외형상 기독교로 개종한 아프리카인의 종교적 실천이나 그가 갖고 있는 의미 논리는 아프리카 전통종교와 같기 때문임. 기독교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통종교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주장의 말은 기독교나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아프리카인의 종교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줌.

- 아프리카의 이슬람교는 기독교에 비해 아프리카의 문화적 전통을 단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음. 사하라 남아프리카에 이슬람교가 전파된 것은 무역상들에 의해서임. 아프리카 동부지역에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전파함. 이슬람교는 아프리카 통치자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감. 동아프리카의 경우, 17세기 이래 아랍 상인들에 의해 이슬람교가 전파 됨.
- 이슬람교가 급속도로 전파된 것은 19세기 무렵임. 이슬람교는 사하라 남쪽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나감. 서아프리카의 경우 19세기 강력한 지하드를 통해 확산. 목축지대 이슬람 세력의 기마병은 전쟁을 통해 영역을 넓혔으며 이슬람교도 동시에 전파. 사바나 지역에서 맹위를 떨쳤던 기마병은 열대우림지대에서 힘을 발휘 못했고, 서아프리카 대부분 열대우림지역은 이슬람 지하드 공세에서 벗어남.
- 동아프리카 해안지역은 아랍과의 무역이 활발. 아랍어와 현지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스와힐리어가 지역어 교통어로서 세력을 얻음. 스와힐리문화는 동아프리카 해안지역의 독특한 문화. 수단의 경우 근본주의 이슬람 세력이 정권을 잡으며 남부의 기독교지역과 내전을 겪게 되었으며 강력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으로 발전.

4. 아프리카 축제

- 축제는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일 뿐 아니라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이중의 의미를 가짐. 성스러운 제의 후에 따라오는 잔치는 풍부한 음식과 노래와 춤을 동반하기 때문임. 이러한 축제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분석이 행해짐. 공동체가 동일한 축제를 연행하며 기존의 사회 질서나 체계를 다시 확인하고 정당화하는 측면이나, 공동체 성원의 일체감과 정체성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축제의 연행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 또는 재생산하고 있음.
- 아프리카 축제도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되어온 기능과 의미를 모두 갖고 있음. 요루바족은 일 년 중 크고 작은 축제를 벌임. 마을이나 도시 전체가 함께 지키는 축제부터 친족집단인 종족단위에서 행하는 축제,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지내는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축제가 있음.
- 에디(Edi)축제는 나이지리아 이페 왕국에서 지켜지는 축제. 철의 신인 오군신을 섬기는 올로조 축제가 끝난 후 17일이 되는 날 시작하여 일주일간 지속됨. 황국을 위해 자신과 아들을 희생한 모레미(Moremi)라는 용감한 여성을 기리기 위한 것임.
- 에디축제는 모레미의 모험과 아들의 죽음을 재현하는 의례들로 구성됨. 첫째날은 왕궁과 집에 횃불을 밝힘. 왕은 추장과 씨름대결을 하는데 추장이 패함으로 왕에 대한 충성을 표시함. 둘째 날은 모레미 아들의 시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 모레미 아들을 찾는 시늉을 함. 이는 아들이 죽지 않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슬픔을 위로하려는 것임. 셋째 날은 왕궁에서 공식적으로 횃불에 불을 붙임. 왕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됨. 모레미를 섬기는 사제들이 행진하며 노래를 부르고 커다란 장대를 높이 든 채 횃불에 불을 붙임. 모레미의 전설이 사람들에게 의해 재현됨. 이페 왕국의 추장들도 왕에게 나아가 충성을 맹세함. 왕궁 밖에는 요루바족들이 참여하는 의례적 행사가 열리는데 각 집단이 '엘루로'라 불리는 소녀를 무동 태워 노래와 춤을 추며 마을을 돌아다님. 젊은이들은 서로 성적으로 희롱하는 노래를 부르며 즐김.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엔 공식적 의례가 없이, 친지들과 잔치를 벌임. 일곱째 날에는 에디축제의 절정인 '텔레'가 왕궁을 나가는 의례를 함.
- 텔레는 왕국의 모든 죄와 불행, 질병, 죽음 같은 부정한 것을 다 지고 모레미 사제들의

안내를 받으며 왕궁을 나와 마을을 돌다가 숲으로 들어감.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질병과 불행을 에디에 얹어 함께 떠나 보냄. 텔레와 함께 숲으로 간 사제들은 모레미 사당에서 의례를 치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을로 돌아옴.

- 20세기 초반에 에디 축제를 관찰한 서구의 탐험가, 선교사, 학자들은 기독교의 메시아 또는 구세주 신앙에서 표현되는 대속의 개념이 에디 축제에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기도 함. 아프리카 축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축제의 내용과 형식에 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일상의 활력을 충전함.

5. 아프리카의 대중문화와 문화의 세계화

① 대중문화

- 도시생활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전통문화와 다른 새로운 대중문화를 만들어냄. 아프리카 도시는 다양한 민족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며 다원적인 문화 환경을 제공함. 서구문화가 들어오는 주요 통로로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는 장이 되었음.

- 아프리카 전통문화에 새로운 문화 장르를 식민통치를 통해 아프리카인에게 소개됨. 연극이나 영화 같은 극예술 분야는 기독교 선교단체에 의해 소개. 아프리카 전통문화와 결합된 연극은 현지인의 언어나 크레올(Creol)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구연문학 전통을 소화하기 쉬움. 이들의 공연은 관객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관객 반응에 따라 즉흥적 대사를 삽입하는 등 아프리카 구연문학의 전통적 형식이 활용.

- 산업적 측면에서 2000년 이후 나이지리아의 영화산업이 팽창. 나이지리아 영화 산업은 놀리우드(Nollywood)라고 불림. 나이지리아 비디오 영화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며 판매.

- 음악은 아프리카 대중문화에서 가장 발달한 영역. 아프리카 대중음악은 서구음악의 단순한 수입이 아닌 적응, 혁신, 절충, 종합의 과정을 거치며 아프리카만의 독특한 음악 장르를 만들어냄. 아프리카 대중음악가들은 서구의 악기를 수용한 후 이를 연주하며 아프리카 전통 악기 연주를 응용. 악기 구성에서 서구악기와 아프리카 악기를 협연함으로써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기도 함.

② 문화의 세계화

- 아프로비트의 창시자 펠라 쿠티와 그 아들인 페미 쿠티는 유럽과 북미의 젊은 세대들을 사로잡았고, 아프리카 대중음악가들의 음반은 세계 음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

- 아프리카 문화의 확산은 오래 전 아메리카 대륙으로 잡혀간 노예에 의해 시작됨.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칸돔블레나 움반다, 산테리아 같은 신흥종교로 발전. 미국에서는 1960년대의 민권운동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아프리카에 두려는 흑인들이 아프리카 종교로 개종

- 요루바 종교의 성지인 나이지리아 도시 이페에는 아프리카 종교의 사제가 되려는 외국인들이 입사식을 치르기 위해 방문함. 성지에서 입사식을 거행하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영적 능력이 배가될 것이며 영적 권위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

- 아프리카 문화와 서구문화의 만남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 오늘날 세계회는 아프리카 문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음. 국경을 넘는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은 유럽과 미국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으로 진출. 무역을 위해 중국에 체류하는 아프리카인도 늘어남. 이들은 이주한 가족과 친척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와 아프리카를 새로운 차원에서 연결시키

며 교류하게 함.

형성평가

1. 아프리카 대륙의 문화는 무엇에 의해 크게 둘로 구분될 수 있는가? (라)

가. 나일강 나. 콩고강 다. 열대우림 라. 사하라 사막

2.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지형적 특색에 의해 불리는 이름은 무엇인가? (가)

가. 아프리카의 뿔 나. 동아프리카 다. 사바나 지역 라. 스와힐리

3. 목축을 주로 하는 지역의 문화로 소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때문에 생겨난 이름은 무엇인가? (다)

가. 목축문화 나. 농경문화 다. 소 복합 문화 라. 코히산 문화

4. 아프리카의 거주 단위로 혈연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회조직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다)

가. 가족 나. 종족 다. 토크운드 라. 씨족

5. 초자연적 힘을 빌리기 위해 의례나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주술의 한 형태는 무엇인가? (가)

가. 마력 나. 요술 다. 신탁 라. 점술

6. 성인식처럼 개인이 사회적으로 성숙해나가며 새로운 사회적 신분을 공인받는 의례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나)

가. 세시의례 나. 통과의례 다. 정화의례 라. 속죄의례

7. 기독교가 아프리카에 전파되면서 아프리카의 전통종교와 융합되어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신앙을 믿는 아프리카의 교회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다)

가. 오순절 교회 나. 성령교회 다. 아프리카 독립교회 라. 초교파 교회

8. 아프리카 종교를 토대로 신대륙에서 형성된 신흥종교가 아닌 것은? (나)

가. 칸돔블레 나. 자마 다. 산테리아 라. 움반다

11. 유럽

1. 유럽으로 들어가기

- 그리스와 로마문명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유럽문화는 기독교의 발전과 쇠락, 봉건제의 발전으로 토대가 다져지면서 제국으로 발전. 전통 가톨릭은 프로테스탄트 혁명을 거치면서 프로테스탄티즘 문화권과 양분. 동방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유럽은 다시 그리스정교 문화권에 들어감.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유럽 각국 간에 경제적 격차는 커져갔으며 삶의 양식 또한 다양해짐. 이후 유럽은 신대륙을 찾아 떠나면서 유럽대륙을 넘어 문화적 영향력

을 행사. 프랑스대혁명 이후 시민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고 치열한 이념투쟁의 격전지가 됨.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문화적 다양성과 얽혀 인종주의, 전쟁, 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야기함. 외면적 변화는 유럽인들의 일상적 삶의 양식을 급격히 변화시킴.

-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의 언어를 필두로 하여 유럽에는 모두 30여개의 국가에서 70여개의 언어가 사용됨. 스위스의 경우처럼 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3개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처럼 공식적으로 한 개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지역별로 지역방언이 비공식적 언어로 통용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언어는 더 많음.

- 비공식적 지역방언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비교적 고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지만 지역민들의 일상적 대화나 지역방언으로 쓰여진 소설, 시 등에 대한 지역 수준의 콘테스트, 지역축제가 벌어질 경우 모든 계층에서 이해가능할 정도로 일반 지역민들의 지역 방언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2. 기독교의 발전과 지중해 문화

① 기독교와 유럽문화

- 유럽 기독교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온 16세기 종교개혁은 종교적 영역을 넘어 유럽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루터는 교황 레오10세의 면죄부 판매에 반기를 들었고, 신앙을 통한 개인의 구원, 권위적인 사제중심이 아닌 평신도가 동일한 사제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톨릭을 반대함.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은 루터보다 철저히 일상생활 전체의 신성한 종교성을 강조

- 천 년 이상 유럽을 지배한 가톨릭이 유럽문화의 형성과 발전이 미친 영향은 지해하지만 북부의 프로테스탄티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유럽문화에 영향을 미침. 가톨릭이 사제단의 권위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하며 금서목록을 지정하는 등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성직자들이 독점한 것에 반해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의 관계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 모든이들이 성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교육을 실시. 이는 근현대 유럽 문화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문자해독률이 급격히 증가해으며, 인쇄술 발전은 문자해독률의 증가와 더불어 지식을 빠른 속도로 전파시킴.

- 종교개혁 결과 서부 유럽은 둘로 분할되어 중부 및 북서부 독일, 스칸디나비아반도, 네덜란드와 스위스 일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등이 로마로부터 분리,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플랑드르, 아일랜드, 독일 남부와 서부, 스위스 중부와 남부 등은 가톨릭 지역으로 남아 있음

- 가톨릭 지역과 프로테스탄트 지역으로의 분리는 종교적 경향의 분리뿐 아니라 유럽인들의 일상생활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침. 현재까지 가톨릭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보수적 경향의 문화현상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 프로테스탄트 지역은 진보적 경향을 가진 사회 문화현상들의 사회적 용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500년경 선진지역이었던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계속 가톨릭으로 남아 있게 되면서 발전 속도가 지체. 1500년경 상대적으로 뒤져있던 스코틀랜드와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종교개혁 진영으로 넘어가며 문화적 발전이 가속화.

② 라틴 문명과 유럽문화

- 소집단적 결속력을 강조하는 경향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침. 이탈

리아는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정치적 분리를 주장하기도 함. 북부지역 사람들은 남부지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세금을 축낸다고 생각하며, 남부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사서 지나친 이윤을 얻어내고 있다고 생각. 스페인은 현재 4-5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각각의 고유한 지역언어를 사용. 바스크지역 같은 경우 스페인에서 독립하기 위한 유혈투쟁을 벌이기도함.

- 유럽남부지역 사람들의 지역적 분리주의 경향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결사체' 활동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함. 프랑스의 경우처럼 자발적인 결사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치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1901년의 '결사체법' 제정으로 보다 활성화.

- 지역축제는 대부분 이러한 결사체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주민참여가 이루어짐. 현재 지역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속감과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함.

- 이를 지중해적 사회성이라고 부름. 비교적 도시화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농촌적 경향이 상당한 정도 남아있는 지역에서 결사체적 활동이 두드러짐

3. 가족·여성·성

① 결혼·출산·이혼

- 18세기 후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인공적인 피임은 출산률 감소로 이어지고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통제력을 증가시켜 인구감소의 효과와 여성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성의 억압을 정당화했던 원죄의 실체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됨

- 성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증대되면서 개인적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 지역적 특성이나 종교적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결혼커플의 감소, 동거의 증가, 독신 증가, 결혼 출산율 감소, 결혼 외 출산률 증가, 높은 이혼율, 1인 부모증가 등 사회현상이 보편화됨.

- 이러한 경향은 68 학생혁명을 계기로 유럽사회가 본격적인 현대기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는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대, 가톨릭의 종교적 영향력의 감소,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과 더불어 보편화단계에 이름.

- 프랑스 경우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지역보다 진보적 가족개념이 유지. 독일이나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보수적 가족과 성개념이 유지되는 나라. 전통적 가족유형은 기본적으로 가톨릭 보수층에 의해 유지. 결혼과 가족개념을 동일시. 낙태는 금기사항이고, 남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여자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성역할 분담도 분명함.

- 1970년대 낭만적인 결혼이 유행하면서 배우자 간 사랑에 기초한 동반자 관계가 중시. 반수 이상의 가족은 전통적인 유형을 유지함. 여성 개개인의 경제활동 욕구와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의 증대로 전통적인 가족규범은 불안한 위협을 받고 있음. 국가에서 육아와 관련된 보육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서 개인의 노력에 의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활동욕구와 가족적 규범이 상충하는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프랑스의 이혼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동거형(Concubigate)의 가족형태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 1999년에 'PACS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동거혼 커플이 일반결혼 커플들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릴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결혼이 힘든 동거부부를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실제 핵심은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임.

- 성당과 시청에서 혼인식을 두 번 해야하는 번거로운 결혼식과 달리 ‘팍’은 양자가 서명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부부로서의 효력이 발생. 결혼보다 팍을 선호하는 이유는 헤어짐이 쉽기 때문임. 프랑스에서 부부가 헤어지려면 합의이혼이라도 6개월이 지나야하며 수속기간만 4개월이 소요됨.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자료 등의 문제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례가 많음 이에 반해 팍은 일방적으로 법원에 계약파기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면 됨.

- 동거형 가족형태 이외에도 이혼·별거·재혼 등으로 새로 생겨난 가족들이 재결합된 가족이 있는데 이들은 100만명 정도 추산되고, 일반적으로 자녀수가 많음. 이혼율이 높아지며 프랑스 가정 중 100만 명 정도가 배우자 이전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전체 가정의 6%를 차지하는 편부모 가정에서 편모가정이 80%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 아버지 없이 자란 청소년이 사회적 적응과 저항의 강도가 강하며, 성취욕이 강하고 대의적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독신과 동성애 커플도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 이 중 여성이 2/3을 차지함.

- 부모자식 관계도 독립적임. 18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간주되어 유럽인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오고 재정적 도움을 받지 않음. 일정 연령의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듯이 부모도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음. 가족관계로 야기되는 개인의 생존의 문제는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해결.

- 최근 실업률이 높아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독립의 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 보임. 켄거루 세대가 급격히 늘고 있음. 켄거루 세대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이상 진학하는 비율이 증대하기 때문임. 1970년대에 비해 최근에는 학업을 마치는 시기가 5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나타남.

② 여성의 사회적 지위

- 우리나라와 비교해 유럽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발전한 것은 오래되지 않음. 여성 참정권을 획득한 시기는 독일이 1919년, 영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48년.

- 유럽내 국가별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수준은 다름. 북구유럽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과 거의 동일하나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격차가 커짐. 지역별로 여성의 지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경제적 발전수준, 종교의 영향, 교육수준 등 관련해서 설명가능. 여성에 대한 전통적 관념은 20세기 넘어오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긴밀한 상관관계 속에서 나라별로 다른 양상으로 발전. 교육수준의 증가, 사회적 지위의 상승, 사회활동증가로 인한 경제적 지위 향상,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의 개정 등 지역적 차이를 좁혀감.

- 독일의 경우 가부장적 자경 속 경제적 종속으로 야기되는 여성의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법령이 정비. 1977년에 이혼 성립을 과실원칙에서 기본요건원칙으로 개정. 배우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과정에 이른 상태만으로 이혼이 가능. 1976년에는 성명법이 개정. 결혼 후에도 부부 공동의 성이나 남편 또는 자신의 성을 선택 가능.

-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취업률은 90%를 상회함. 이는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스웨덴 여성은 출산 후 휴직기간 동안 출산 직전 임금의 70%를 받음. 첫 자녀를 낳은 지 30개월 이내에 두 번째 자녀를 낳는다면 보수와 상관없이 첫 아이를 낳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직수당을 받음. 그렇기 때문에 첫아이를 낳기 전에 좋은 직장을 확보해야 함.
- 스웨덴의 가족형태는 직계가족형태를 이루고 있어 세대간의 지식의 전수를 중시여기고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 스웨덴은 종교적 영향과 가족구조, 진보주의적 사회경향등이 맞물려 여성의 지위향상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줌

4. 축제 속에서 융합되는 전통과 현대

- 유럽에서 연희되고 있는 전통적 성격의 축제를 보면 삶의 의의를 전통성에서 찾고자 하는 욕구를 알 수 있음. 50년대 기점으로 대중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일상에 찌든 사람들은 전원을 찾아 떠나고 자신의 근원적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남.
- 전통축제의 대부분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들에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힘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함. 이들이 축제 속에서나마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함.
- 유럽 축제에서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융합되면서 전통이 새롭게 해석되고 재창조됨. 다양한 집단들 간의 정치적 분파와 경제적 이해관계등의 사회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됨.

① 신에 대한 속죄의식: 스페인의 ‘불꽃축제’

- 스페인 사람들은 ‘축제에 미친 사람들’로 불릴 정도로 축제에 열광함. 악마와 신화적인 인물들이 카니발의 풍속대로 가장행렬을 펼치는 사모라(Zamora) 지방의 설날부터 시작해서 광장에서 나무를 세워 불을 붙이고, 요란하게 폭죽을 터뜨림. 스페인 전 영역에서 일 년에 10만여 회 이상의 축제가 열림. 대부분의 축제가 가톨릭이 전파되기 이전 이베로족과 켈트족, 그리스, 로마, 아시아 등에서 유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스페인에서 축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1982년 월드컵 이후임. 1938년에서 1975년까지 약 40년간 프랑코 총통의 독재통치시대에 지방문화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검열도 심함. 1982년 당시 63억 달러 정도에 이르던 관광수입이 10년 뒤엔 204억 달러로 급성장한 배경에 지방문화와 축제문화가 있음
- 스페인의 대표적인 전통축제로 ‘불꽃축제(Fas Falls)’는 3월 중순에 발렌시아에 연희되는 축제. 오랜 전통을 가진 축제로 매년 700여 개의 다양한 크기의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 3월 19일 성 요셉 축제일에 태워 없앴. 봄의 도래를 기념하는 전형적인 카니발이 변형된 것. 일반적으로 다른 축제는 카니발(사육제) 기간에 열리지만, 이것은 사순절 기간에 열림.
- 발렌시아 지역 목수들이 수호성인인 성 요셉 축일(3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나무 조형물을 깎아 전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나무조각들을 태운 것에서 유래. 기존의 새봄맞이 행사와 가톨릭 문화가 결합하여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 전통축제로 변화. 1970년경부터 축제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 1930년이 지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 프랑코 총통시대의 검열로 위축되었던 40년대를 지나, 50년대부터 불꽃축제는 변성하여 조형물은 200여개를 넘어감. 조형물의 소재는 정치인, 현직 국왕이나 수상, 유명 배우나 가수임.
- 나무나 마분지로 만든 조형물을 축제의 마지막 날 태우는 것이 하이라이트인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 큰 조형물인 경우 실제 주택건축비보다 더 들어간 자품들이 불

로 태워지기도 함. 세속적인 것을 태워버림으로서 신에 속죄한다는 의미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규모는 상식을 넘어섬.

② 전설과 지역정체성의 결합: 프랑스의 ‘타라스크 축제’

–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이면서 지방문화가 활성화. 이렇나 현상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계 속에서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지방민이 자신이 고유한 문화전통을 보존개발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임.

– 신화와 전설, 가톨릭적 전통이 혼합되어 현재 전통축제이자 민속축제로서 성대히 벌어지고 있는 ‘타라스크 축제’는 프랑스 남부의 보크뤼스 동부 지역의 아를르 문화권에 위치한 인구 13000명 정도의 마을에서 벌어지는 축제임. 이 축제는 타라스크라는 신화적 동물을 성녀 마르트가 굴복시킨 것을 축제로 재현한 것으로 6월에 연회됨.

– 타라스크는 거북선 모양의 등, 사자와 황소, 사람의 얼굴을 뒤섞은 듯한 두상, 용의 꼬리를 붙인 듯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이 짐승을 당해낼 수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 성녀 마르트에게 제압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옴. 유럽에서 용은 부정적인 악의 화신으로 묘사. 이 축제는 이러한 것의 전형적인 예임. 현재 이 축제는 이 지역의 전통놀이이자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는 황소놀이와 융합과적을 거쳐 연회. 과거 주민들을 괴롭히던 괴물과 그것을 제압하는 가톨릭 성녀, 황소를 잡으려고 뛰는 소몰이(encierro)놀이가 합쳐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성의 축제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결국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기능함.

③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갈등의 해소: ‘프랑스 수레 축제’

– 19세기 말 프랑스 전역은 ‘백색당’과 ‘적색당’이라는 두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양분. 전쟁을 겪고 20세기 중·후반기를 넘어오면서 결성된 다양한 결사체들을 중심으로 지방축제들이 활발하게 연회되기 시작.

– 저지대 프로방스 지역의 마을에서 연회되는 ‘생-엘로와 수레 축제’와 ‘마드렌드 수레 축제’는 프랑스 근대 정치갈등과 경제구조, 역사, 종교 등의 요소들을 융합한 성공적인 주민자발적 축제. 과거 대토지소유주들의 축제였던 생-엘로와 추제는 가톨릭적인 전통과 보수적인 정치적 경향, 왕당파주의 등 경향을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그 전통을 유지하는 축제.

– 마드렌드 축제는 20세기 넘어오며 가톨릭과 결별하고 공화주의적 경향, 정치적 좌파경향,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의 경향을 견지하며 프랑스의 혁명정신과 진보적 경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과거에 소작농이나 소규모 토지경작 농민들의 축제.

– 현재 이 두 개의 수레 축제의 참여자들의 경제적 생계조건은 과거와 달리 차이가 없음. 20세기 중반을 넘어오며 이 지역에 널리 전개된 수로공사의 영향으로 수량이 풍부한 곳으로 바뀌면서 경작 작물이 건조작물에서 야채과일경작으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음

– 축제연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렬에서 이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재현 됨.(생-엘로와 수레축제에서는 대지주농경형태, 마드렌드 수레축제에서는 현재의 화려한 야채과일 경작형태를 표현함)

④ 기획축제와 지역발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페스티벌’

– 에든버러 축제는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지역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고양의 효과가 큼. 유럽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의 대표적인 예로 손꼽힘.

- 이 축제가 고안된 이후 에든버러 시는 일 년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으며, 8월의 축제는 에든버러 페스티벌이라 불리며 시 전역에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프린지(Fringe)공연임. 자발적인 소규모 단체들의 공연으로 공연에 대한 어떤 심사도 받지 않음. 장래성이 큰 신선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 축제는 예술공연과 전시를 주로 하는 현대적 개념의 축제. 조작적으로 창출된 축제가 어떻게 고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지 잘 보여줌.
- 현대사회에서 연회되고 있는 축제들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설명될 수 없음. 축제 연회 현상은 현재의 사회문화, 정치 경제적인 삶을 구성하는 부분의 하나임. 축제는 현대화의 영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연결시키는 매개로서 또는 현재의 사회문제를 예술로 승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 기제로 작용.

⑤ 황소놀이에 열광하는 동물애호가들

- 유럽인들의 황소놀이는 20세기 중후반기에 발전한 놀이이지만 유럽남부지역에만 한정되어 연회됨.
-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로마에는 황소숭배사상이 있었고 이는 미트라이즘을 토대로 하는 것임. 미트라(Mithra)는 페르시아 근원인 태양신이며, 미트라이즘은 태양숭배가 황소숭배를 연결시키는 것임. 잔인한 입사의례나 정화의례를 치르는 혼합적 종교로서 미트라이즘은 황소희생이 큰 비중을 차지함. 황소의 피는 새로 영세 받은 사람들이 정화목욕에 사용됨. 황소의 살은 힘과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으로 소비. 불굴의 용기가 필요한 전사들은 고회에서 추출한 정액을 마심.
- 인간과 황소의 관계의 역사는 인간이 황소를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짐. 근현대 유럽에서 황소의 의미변화는 황소목축체계 변화과정과 관계가 깊음. 지중해변의 프로방스에서 19세기 이전에는 소들이 농경에 사용. 농사일을 하지 않는 시기에 황소들은 자유롭게 방목. 농사에서 황소보다 날이나 노새를 선호하며 황소는 주변으로 밀려남. 멸종직전에 이르렀을 때 황소놀이가 관광의 주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소들의 수가 급증.
- 스페인의 투우경기인 '코리다'와 달리 프로방시의 투우경기인 '쿠르스'는 소모리에서 리본을 떼어내는 경기. 소를 도살할 즈음 목축인들이 행하던 가족적 놀이에 기원을 두고 있음. 투우가 대중적으로 성공하게 된 것은 목축인들이 자신들의 황소를 대여함으로써 많은 수입을 올릴수 있었기 때문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가문화의 등장으로 관광이 활성화 되고, 이러한 경향은 1936년에 유급휴가제도가 법제화되면서 분명해짐. 황소를 방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스펙터클이 될 정도로 황소놀이가 가지는 의미는 커져감.
- 현재 이지역의 황소는 '경제적인 수익성'을 올려주는 존재이자 동시에 '지역적인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기제로 기능. 후자의 측면에서 황소는 중앙집중적인 권력의 공격성에 대응하기 위한 남부지방의 지역문화와 자유를 상징.

용어해설

카니발

- 사육제(謝肉祭). 라틴어의 카르네 발레(carne vale:고기여, 그만) 또는 카르넬 레바레(carnem levare:고기를 먹지 않다)가 어원이다. 기원은 로마시대로서 그리스도교의 초기에

해당하며,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를 믿는 로마 사람을 회유하기 위하여 그들의 농신제(農神祭:12월 17일~1월 1일)를 인정한 것으로, 그리스도교로서는 이교적(異敎的)인 제전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도에 의하여 계승되어 매년 부활절 40일 전에 시작하는, 사순절 동안은 그리스도가 황야에서 단식한 것을 생각하고 고기를 끊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고기를 먹고 즐겁게 노는 행사가 되었다. 12월 25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축제와 주현제(主顯祭, 12월제:1월 6일)를 합하여, 유럽의 북쪽 지방에서는 종교적 의의를 가지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남국에서는 야외 축제인 카니발이 되었다.

형성평가

1. 다음 중 유럽의 문화 발전과 상관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라)

가. 가톨릭 나. 이슬람 다. 프로테스탄티즘 라. 힌두교

2. 다음 중 전통축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다)

가. 타라스크 축제 나. 불꽃축제 다. 에든버러 축제 라. 생엘로와 수레축제

12. 미국의 풍속과 문화

1. 미국사회의 개관

① 역사와 지리

- 1776년 독립선언 당시 식민개척지의 약소국이었으나 현재 3억 명이 넘는 인구를 지닌 최강대국이 됨. 미국은 지속적 전쟁을 통해 인디언과 멕시코로부터 땅을 빼앗고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로부터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등을 구입. 남한의 100배에 가까운 962만 7,000km²의 영토를 확보. 지난 400년 간 이누가 급격하게 팽창한 것은 끊임없이 이민을 받아 들였기 때문임. 1600년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백인들이 동남부로 진출하여 인디언을 쫓아내고 식민지로 개척.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전역에서 이민자들이 이주해오며 백인 주도사회로 성장.

- 1600년대 후반부터 흑인을 노예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독립 이후 흑인인구는 총 인구의 10~20%를 차지. 미국의 전통은 영국풍이 주도하지만 다양한 유럽과 아프리카의 풍습이 유입. 1960년대 이후 히스패닉과 아시아인이 증가하며 아시아와 히스패닉의 풍습이 확산

- 인종적으로 백인이 다수(64%), 히스패닉(15%), 흑인(13%), 아시아인(5%), 원주민(인디언, 알래스카인, 하와이인 등 1%). 이러한 명칭의 사용은 인종이 생물학적 집단이라 말하기 어려움. 히스패닉이나 아시아인이라는 명칭은 지리적 명칭임. 원주민들이 인디언으로 불리게 된 것은 콜럼부스가 카리브해 섬들을 인도의 일부라 생각하였기 때문임. 생물학적으로 인디언은 몽골인종으로 아시아인으로 분류되지만 많은 인도인과 중동사람들은 코카시안 계열임.

② 다양성

- 미국문화의 다양성은 지역적 차이와 민족과 인종의 차이에 의함. 지역에 따른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은 대통령 선거에 나타남. 공화당은 대체로 남부와 중서부를 휩쓸고, 민주당은 북동부와 서부를 휩쓰는 경향이 있음.

- 보스턴, 뉴욕, 볼티모어로 이어지는 북동부는 독립 이후 제조업과 무역을 주도. 남북전쟁 이후 남부에 승리하여 정치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 청교도 집단의 후손들이 득세하고 유럽의 여러 민족들이 이민 와서 청교도 정신이 발전, 미국의 이념이 됨. 신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과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형태가 만들어짐.
- 남부는 흑인노예에 의존한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전. 대농장주와 서민의 격차가 큼. 독립 초기 미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북전쟁 후 북동부가 주도권을 차지. 북동부에 비해 보수적이며 인종차별이 심한 편임. 흑인인구수가 많아 흑인문화의 중심지.
- 서부대평원인 중서부는 오하이오에서 록키산맥에 이르는 광대한 평원. 19세기 후반 미국 동부와 유럽으로 밀과 소를 대량으로 공급. 대륙의 내부로 온도차가 심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인구밀도가 낮음. 백인 외의 인구가 적음.
- 서부는 19세기 중반 급광개적으로 인구가 급증.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산업이 발전. 아시아와의 교역이 계속 증가, 미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 아시아와의 접촉이 많아 영향이 많이 나타남.
- 같은 동북부에서도 뉴욕시와 뉴욕의 농촌지역은 성향이 다름. 같은 뉴욕시에서도 지역에 따라 인종적으로 지역이 나뉘어져있어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함.
- 문화적 다양성은 모든 이민자집단이 백인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용광로(Melting Pot) 정책하에 수면 하에 있다. 1970년대 샐러드 볼(Salad Bowl), 그리고 199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적 정책이 확산되며 표면으로 부각.

2. 미국의 가족과 가치관

① 가족과 친족

- 미국인은 개인을 중요시여기지만 다음으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함. 개인을 보호해주는 성스러운 보루로 인식. 하지만 가족관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님. 가족원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각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가족관계도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한국과 달리 가족을 통한 혈통의 승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 미국의 친족관계는 양계제도임. 가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친족의 역할은 약한 편임. 결혼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식민지 시절부터 보편적이었음. 결혼 후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나 결혼자의 절반 이상이 이혼을 함. 결혼보다 동거가 많아지고 있음.
- 상층은 친족연계가 중요하지만 하층에는 친족연계가 중요하지 않음. 영국보다 연애가 더 큰 역할을 하였고, 결혼에서 사랑이 강조됨.

② 개인주의

- 문화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에서 동일한 흐름이 존재함.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고 자유의 나라이며, 자본주의적인 나라임. 밀바탕에는 개인주의가 있음. 개인주의는 신으로부터 인권을 부여받아 누구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청교도 정신에 기초함. 신 앞에 평등한 인간이라는 정신에 의해 자유와 사생활보호라는 관습이 발전.
-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분리하는 관습이 나타남.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더 주는 직장으로 이직가능. 직장동료, 동창, 교회, 친족이 중요한 공동체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
- 미국의 개인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와 성취할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게 함. 누구나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이 있음. 미국에서는 복지제

도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음.

-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와 관련이 있음.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느 것이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치관임.

③ 실용주의

- 미국식 개인주의는 미국식 실용주의를 낳음. 개인의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중요시. 개인의 노력을 통제하는 공동체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실용적 방식을 찾아 적용하도록함. 법이나 도덕을 벗어나지 않는 한 실용적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실용주의가 많은 기술과 제도를 개선했.

- 부의 획득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 미국에서는 돈이나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적음. 부자를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성장한 가치관으로 평가함.

- 미국식 개신교에 기초한 자유와 인권에 대한 관심은 이상주의적인 성향도 있음.

④ 개척정신

- 국경 자체의 확장은 19세기 후반에 그쳤지만 황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여 세계 최고 국가를 건설했다는 자부심이 교과서나 국민들에게 나타남.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취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남. 모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술 등 새로운 한계에 대한 도전이 강하게 나타남.

- 미국을 군주제, 귀족제도, 봉건제의 구습이 없는 예외적인 국가(American Exceptionalism)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 예외주의는 선민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음. 이에 기초하여 미국인들은 미국이 세계에 자유와 민주를 선사하고 악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경우가 있음

3. 미국의 종교

① 기독교

- 미국은 기독교가 주도하고, 기독교인들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독교 나라임. 신자의 비율은 개신교가 66%, 카톨릭 25%, 유대교 3%임. 1835년 토크빌은 기독교가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서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함. 현재도 신과 신앙심에 대한 언급이 교육이나 공적 의례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남. 신을 매개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선악개념이 뚜렷함. 독립 후 정교분리의 원칙하여 국가기관이 종교의례를 행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이 났지만, 정치인들이 신과 종교에 대한 발언을 자주함.

② 기독교 근본주의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속화되며 미국인들은 점차 정통적인 관점을 띤 근본주의 집단과 개방적인 집단으로 나뉨. 정통파는 공화당 지지자로 남부와 중서부에서 우세, 개방파는 민주당 지지자로 북동부와 서부에서 우세.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 있음. 이는 '문화전쟁'으로 표현할 정도로 다른 가치관을 가짐.

- 근본주의는 1910년대와 1920년대 금주법, 진화론 교육반대, 반낙태운동에 반영. 제2차

세계대전 후 승리감과 반공주의에 힘입어 남부와 중서부에 전국으로 지지를 확대함.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부양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자 반대하는 티 파티(Tea Party)운동이 2009년부터 확산. 이들 세력은 남부의 근본주의 목사들에 의해 선도됨.

③ 이슬람교

- 흑인의 주도적인 종교는 기독교임. 노예해방 이후 독자적인 교회를 세우며 백인기독교와 다른 형태의 설교, 찬송가, 예배 스타일을 만듦. 흑인 기독교는 1950년대 이후 민권운동의 본거지 역할을 하였음.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 킹. 하지만 차별과 빈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실망한 대도시의 흑인빈민 청소년들은 백인을 악마로 저주하는 이슬람에 쉽게 설득됨.

- 가장 유명한 미국의 이슬람교도는 1960년대 과격 민권운동가였던 말콤 X와 세계 복싱 챔피언인 무함마드 알리임. 이들은 백인들이 파괴한 흑인 정체성을 이슬람이 가져다줄 것으로 주장. 이러한 주장은 흑인청년들에게 반향을 일으켜 많은 청소년 흑인들이 말콤 X의 '이슬람 국가(Nation of Islam)'에 가입.

- 미국에서 성장한 흑인이슬람교도보다 중동,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동남아 등지에서 이민 온 이슬람교들이 더 많음. 9.11 이후 이슬람교도를 과격주의자나 이방인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

4. 미국의 생활문화

① 인종문제

- 미국은 개척 초기부터 남부에서 흑인들을 수입하여 주요 노동력으로 사용하며 인디언들을 쫓아냄. 대규모로 추방당하고 살해당하며 인디언들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음. 하지만 미국에서 인디언과 관련된 역사는 왜곡과 망각으로 점철됨.

- 흑백문제는 항상 중요한 인종문제로 설명됨. 1600년대부터 미국 남부에서 플랜테이션이 확산되며 노동력 수요가 커지자 노예제도를 법제화. 노예제도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에 남부군과 북부군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짐. 링컨 대통령은 1863년 노예해방령을 선포. 흑인들은 해방되었지만 가난하고 비참하게 차별받음.

- 1960년대 민권법이 통과한 이후 차별이 줄어들면서 상당수 흑인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었지만 빈곤율이 높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수많은 도시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상점가를 불태움. 2001년도 LA에서 흑인과 라티노들이 폭동을 일으킴.

- 현재는 히스패닉의 인구가 흑인을 추월함. 미국의 인종문제가 흑백문제에서 점차 복합적인 인종문제로 전환. 히스패닉은 매년 3% 성장하여 나머지 인구 0.8%에 비해 빠른 인구성장을 보여줌. 히스패닉은 멕시코와 연결됨.

② 결혼식과 장례식

- 미국에서 연애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이야기되고 관심을 모으고 있음.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가져도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결혼하기로 결심하면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게 다이아몬드나 금반지를 주고 청혼함. 결혼 일주일쯤 전에 브라이들 샤워(Bridal Shower)라고 해서 신부집에 모여 선물을 주는 축하식을 함. 결혼 2,3일 만에 신랑을 중심으로 총각파티(Bachelor Party)가 이루어짐.

- 결혼식은 교회, 집, 공원 등 다양한 곳에서 행해짐. 가까운 친척들이나 들러리들이 신랑

신부와 함께 행진하는 경우가 많음. 장인이 신부를 신랑에게 인계하면 목사의 줄로 결혼반지를 교환하고 성혼선언식과 주례사를 함. 한국의 결혼식이 미국식을 모방하여 그 과정이 상당히 비슷해짐.

- 장례식은 장례식장, 교회, 성당에서 이루어짐. 장례절차는 장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주도.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동료임. 관 앞으로 나가 꽃을 하나씩 올려 놓고 죽은자와 마음속으로 작별을 함. 시체를 화장하여 관을 열어 보여주고 장례식을 하는 것이 다른 점임.

③ 대중문화

- 청교도의 초기 정착민들은 게임과 오락을 나쁜 것으로 규정, 근면을 강조.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고 다양한 민족들이 이민 오면서 놀이나 도박이 증가함.

- 170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 뉴욕 등지의 극장에서 익살, 노래, 무용, 연극 등이 상업적으로 상연. 영화는 1905년부터 상영되었는데 급속히 팽창하여 서민의 중요한 오락거리가 됨. 1910년대 축음기로 재즈가 확산, 1920년대 상업방송이 확산되면서 유행가, 드라마, 로맨스, 코미디 등의 오락물이 퍼져나감. 1945년 이후 상업 TV방송이 활성화.

- 미국은 세계의 연예산업을 선도하고 지배. 미국에서 만든 영상물과 음악이 세계로 퍼져나감. 프로스포츠도 일 년 내내 TV를 통해 방영.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농구, 야구, 미식축구를 특히 좋아함. 1890년대부터 미국의 경제규모가 영국을 추월. 지난 100년 내내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 동아시아의 빠른 성장으로 동아시아의 영향력이 커짐.

용어 해설

흑인민권운동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에서 인종 간의 형평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을 의미한다. 이 운동의 기본 전체는 더 많은 흑인들이 선출직, 정부, 기업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법적 권리와 교육기회를 누리기 위한 충분한 돈을 갖게 되면 흑인의 영향력이 커지리라는 점이다. 이 운동은 근본적으로 흑인 민권운동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추진됨으로서 이 운동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입장을 지닌 흑인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형성평가

1. 다음 중 미국적 사고방식이 아닌 것은? (다)

가. 개척정신 나. 실용주의 다. 혈족주의 라. 개인주의

2. 다음 중 미국의 문화를 주도한 지역은? (나)

가. 남부 나. 북부 다. 중서부 라. 서부

3. 미국의 친족체계는? (라)

가. 부계제 나. 모계제 다. 선계제 라. 양계제

4. 다음 중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가 아닌 것은? (다)

가. 영화 나. 대중음악 다. 명상 라. 프로스포츠

12. 동유럽

1. 동유럽이란 무엇인가

① 동유럽의 의미

－ 동유럽 명칭은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지닌 개념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그리스 보다 서쪽에 위치하지만 동유럽에 속함.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을 가진 유럽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임. 동유럽의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함. 동유럽의 동쪽 경계는 우랄산맥에 의함. 서유럽과의 경계는 연속선상에 있음.

－ 2차 대전 이후 냉전시기와 사회주의 경험에 따라 구분하였으나, 사회주의 체제 이후 남은 정의가 됨. 로마제국의 동서분할은 오늘날까지도 지역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침. 하지만 동로마제국의 판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유럽이라고 부르는 지역 가운데 상당부분이 누락.

－ 이 장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을 가진 유럽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함.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의 일원보다는 별도의 대륙 국가로 간주되지만 편의상 함께 다루고자 함.

② 동유럽의 지리의 역사

－ 알바니아의 해안지대처럼 남쪽에 자리 잡아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없으며 여름에도 무덥지 않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를 지닌 지역이 있지만, 대부분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여름에는 무더운 온대성 기후.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형에 따라 기온과 식생에 차이가 있음.

－ 공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수성의 편차가 큰 것이 동유럽의 자연환경. 문화적으로 여러 민족이 이동하면서 전쟁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복잡성이 더해짐. 유럽의 역사에서 고대를 끝내고 중세를 여는 사건이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서로마제국의 멸망임.

－ 아시아에서 우랄어족의 일파인 마자르인(오늘날의 헝가리인)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고, 칭기스칸의 대정복 이래 아시아쪽으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압력이 계속됨. 게르만족, 슬라브족, 아시아 계통의 민족 사이에 그리고 내부에서 정복과 왕국의 건설, 전쟁 등으로 문화적 정치적 지형이 복잡함

－ 슬라브인들은 동유럽 지역에 정착하면서 8세기 이래 기독교로 개종. 동슬라브족은 동로마제국의 선교에 따라 동방정교회 일원이 됨. 서슬라브족은 가톨릭을 받아들임. 남슬라브족의 일부는 가톨릭, 일부는 동방정교를 받아들임,

2. 사회주의의 경험과 그 이후

①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

－ 1917년 러시아에서는 두 차례 혁명을 통해 세계 최초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 혁명 초기 적군과 백군 사이의 내전, 외국의 간섭, 1차 대전 중의 ‘전시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요소를 대폭 인정하는 신경제계획(NEP)등의 과도기를 거침. 1920년대 중반 이후 전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 작업에 박차를 가함. 그 결과 2차 대전의 발발 전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재를 전제로 한 공산당의 국가권력 독점, 지방별 소비에트 공화국의 자치와 중앙집권적 연방의 성립, 전산업의 국유화, 계획경제에 기초한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이루어짐.

- 국가의 계획과 관리를 통해 실업자는 존재하지 않음. 국가 기구가 방대하고 지나친 관료주의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관습이 만연함.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문학과 예술을 보급하는 한 편 스포츠를 장려함.

- 소비에트 연방은 과학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애씀. 군수산업에 치중한 결과 소비재 산업은 발전하지 못함. 사회주의 정권에서 자본주의에 포위된 상태에서 국가 정책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한 일부 사항조차 국가기밀로 취급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존재.

- 러시아는 혁명을 통해 스스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 역사도 70여년에 이름. 동유럽 나라들의 사회주의 경험은 다른 경로를 거치며 기간도 짧음.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영향력은 막강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독자 노선을 표방하자 무력으로 진압. 1980년대 폴란드에서 연대노조 운동이 오아성해지자 직간접적 개입에 나서는데 이데올로기적 군사정치적 맹주 노릇을 자처. 동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임.

②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

- 1985년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 수반 겸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은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를 가져옴.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시작. 일부 국가들은 정권과 시민 사이의 타협을 통해 집권 엘리트의 자발적 개혁으로, 밑으로부터의 급진적 개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림. 동유럽 국가들은 소비에트 지배에서 벗어나 서유럽식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 독일은 통일을 이루고 발트 3국은 독립을 선언.

-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어마어마한 충격임. 헝가리 루마니아를 제외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급격한 사유화와 물가 자유화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엄청난 수준의 고물가와 연금 삭감, 공공요금의 인상, 임금 가치 하락 및 체불로 생활 고에 시달리게 됨.

3. 여성

① 여성관

- 기독교 정교와 가부장적 질서아래 여성들은 신과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이를 양육하며 가정 살림을 꾸리는 것이 대체적인 풍습. 반면 여성을 성스럽고 순결하며 강인한 정신력과 독립심을 가진 존재로 보는 이중성이 있음. 폴란드나 러시아 같이 전쟁과 정치적 병혁을 자주 겪는 나라에서 여성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통적 여성관에는 급격한 변화가 초래. 혁명 후 러시아에서는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 1918년에는 가족관계법을 제정해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혼절차를 쉽게 함. 육아는 국가가 공동 task를 지어 맡도록 함. 하지만 가사와 육아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여성은 근로의 의무와 함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도 함께 지게 됨.

- 사회주의 체제 수립 초기의 열정이 가라앉으며 여성해방 보다는 출산을 저하 방지나 이혼율 증가에 대한 대비, 가정과 국가의 안정이 중요해짐. 사회주의 시기까지 동유럽에서 여성의 지위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정치활동과 사회 경제 활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권리를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남성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성보다 강해야 하고 신

사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도덕관이 여전히 남아 있음.

-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던 여성의 지위가 하락하는 경향이 보임.
국가적으로 보호되었던 여성의 권리가 침식되면서 여성관에서도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음.

② 결혼과 가족, 성

- 사회주의 시절에는 남녀 모두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흔하였음. 대학생 가운데 기혼자 비율도 높았음. 많은 동유럽 나라에서 이른 나이에 결혼한 뒤 20대 중후반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도 많음. 여성에게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임. 폴란드는 이혼절차가 복잡함.

- 동유럽에서 여성의 고등교육기관 합격률은 남성보다 낮지 않았음. 생산직 노동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남성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여성은 대학을 마치고 전문직에서 종사하기도 함. 루마니아의 경우 부부 사이의 교육 격차는 높은 이혼율의 원인으로 지목.

- 결혼한 부부는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이 일반적관례. 사회주의 시대 이후 주택부족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혼 후에도 주택을 구하지 못해 함께 거주하기도 함. 사회주의적 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다량으로 건축. 부부사이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식 관념은 희박한 편.

-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손주를 돌보는 것도 흔한 일임. 헝가리는 결혼한 뒤에도 일요일마다 부모 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시간을 보냄. 폴란드에서는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가족파티를 자주 가짐. 최근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임. 성에 대한 관념이 자유로워짐. 동거 커플이 증가하고 있음.

- 공식적 제도의 영역에서 성에 관한 담론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사회주의는 성을 억압한 것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종교와 가부장적 영향으로 보수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을 벗어나면 성생활은 자유로웠음. 성에 대한 금기는 없어져가는 양상임. 반면 동성애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존재함.

4. 종교와 가치관

- 동유럽인들은 서유럽인에 비해 종교에 큰 의미를 부여. 사회주의 정권은 종교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함. 폴란드는 사회주의 시절에도 인구의 80%는 카톨릭 신자였으며 공산당원 상당수도 신자였음. 대체적으로 폴란드 교회는 사회주의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은 연대노조 운동에 일정한 보호막을 쳐주고 정당성을 인정하는 역할을 수행. 폴란드인들에게 카톨릭은 종교적인 신성함과 함께 정치적역할을 인정받은 민족적 구심점이며 권위의 상징임.

-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카톨릭 교회는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을 지지. 이러한 입장이 지나친 것으로 받아들여짐. 최근에는 종교적 열기가 가라앉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러시아에서는 기독교 정교회의 영향이 공식적으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빠른 속도로 권위를 회복.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사회주의 몰락, 국제 정치 무대에서 러시아 위상 추락은 정체성의 위기. 러시아인들은 기독교 정교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 동유럽인은 덜 개인주의적이며 공동체지향이지만 이기적인 경향이 나타남. 처음 만남에서는 개방적인 인상을 받지만 한 집단에 받아들여지기 까지는 서유럽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대체적으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지만, 시장경제도입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백만장자들도 탄생. 복잡한 역사와 민족 구성, 체제의 변화는 가치관에서도 모순되는 요소로 작용.

5. 민족문제

① 동유럽의 민족 문제

- 근대 이전 유럽인들에게는 이교도가 '타자'로 인식. 이슬람교도 대표적인 타자였으며, 내부에 존재하는 타자는 유대인들이었음.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으로 내부에서 경계가 만들어짐. 일부 개신교도와 소수 종파가 존재하며, 오스만 제국의 영향으로 이슬람교도 존재. 이러한 복잡성에 따라 근대 이전에도 종교간 갈등이나 영주 사이의 다툼. 제국간의 충돌이 빈번함.

- 절대 왕조와 제국이 해체되고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자신의 국가를 가지지 못한 민족이 생겨남. 동유럽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짐. 폴란드는 한때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지배하는 강대국이었으나 18세기 세 차례에 걸친 분할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로 귀속. 1차 대전 중에는 폴란드가 독립을 선언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위치면서 전쟁이 벌어짐. 러시아 혁명 정부의 붉은 군대가 진격해 위기를 맞았지만 독립을 지킴.

-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진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민족문제도 복잡. 유고슬라비아는 1,2차 대전 종전 과정에서 한 번 씩, 역사상 두 번, 76년간 존재.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이룬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등은 남슬라브족에 속하며 발칸 반도에 플터져 1,200년간을 살아옴. 이들은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들의 각축전에 시달리며 살아오다 민족주의 운동의 발흥에 따라 독립국가를 모색. 1921년 세르비아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 왕국은 1941년 독일의 침공으로 해체. 1980년 티토 사망 이후 세르비아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200만 명의 사상자와 인종청소의 비극을 낳은 내전을 겪고 공화국과 자치주가 독립함.

- 동유럽의 민족 문제가 중요한 것은 민족간 갈등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기 때문임. 유고슬라비아내의 민족갈등이 전쟁이 된 이유는 세르비아뿐 아니라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 보스니아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거주했기 때문임.

② 사회주의와 그 이후의 민족문제

- 사회주의는 공식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자결권을 부여. 민족차별을 폐지, 궁극적으로 민족사회의 경계가 소멸된 사회를 지향 하지만 국내 여권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귀속 집단.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준거틀. 국제 정치에서 소비에트 정권은 자본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며 유럽의 사회주의운동지원 명목으로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

- 러시아는 발트3국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 독일 영토 칼리닌그라드를 지금까지 보유. 반면 동유럽 많은 민족들은 러시아의 영향으로 벗어나 자신들의 독자적 국가를 수립해 문화를 누리고자함.

- 복잡한 갈등과 애증관계로 뒤얽힌 지역의 민족문제는 사회주의 시절 공식적인 민족차별 정책과 억압적인 권력 아래 봉합되어 오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함께 폭발. 갈등의 원인은 다른 민족이 같은 영토에 거주하기 때문임.

- 독립 이후 자국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는 등 민족의식이 첨예화. 러시아인을 차별하는 현상은 발트3국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오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나타남. 많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근대 이전의 민족 이동에 뒤이어 사회

주의 시절 교류 정책에 따라 거주하게 된 러시아인 이외의 여러 소수 민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음. 폴란드는 나치 독일의 점령 아래 대대적인 인종청소가 자행. 폴란드인이 98% 차지.

- 동유럽에서는 독일과의 관계가 복잡미묘함. 오스트리아-합스부르크 왕가는 동유럽의 상당부분을 지배. 프로이센은 이 지역의 강자로 떠오름. 러시아를 포함하여 동유럽 국가의 교육체제는 독일을 본뜬 경우가 많음. 10세기 제정 예카테리나 여제는 독일우대 정책을 펴 많은 독일인이 러시아로 이민 옴. 이들은 러시아 문화에 친숙한 반면 독일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동화에 어려움을 겪음. 독일은 선진문명의 상징이며 파시즘의 나라임.

- 칸트의 고향인 쾨니히스베르크는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였지만 1945년 독일의 패전과 함께 소비에트 연방에 합병. 러시아인 공산당 지도자의 이름을 따 칼라니그라드로 명칭 변경.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러시아 영토로 남아 있음.

6. 여가생활

- 사회주의 체제에서 직장은 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곳을 언어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 복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통로이며, 여가와 취미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직장은 업무 시간 외에서도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공간. 시장경제 체제 도입에 따른 대량해고로 동료들이 흩어지고 직장을 통해 분배되던 사회복지가 축소. 새로운 경제체제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밀려오면서 직장의 의미가 변화. 직장 밖에서 여가를 누리는 경향이 나타남.

- 러시아에서 시작된 다차 문화는 동유럽 몇몇 나라들의 여가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다차란 주말농장과 같은 곳으로 체제 전환의 혼란기에 소비재 부족과 화폐가치 하락, 임금 체불에 대비하는 안전판으로 기능.

- 긴 휴가 기간 동안 장거리 여행을 즐김.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다가 교통비를 비롯한 경비가 저렴함.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당수 동유럽인들에게는 소일하며 다차를 돌보는 일이 현실적인 휴가방식. 일과 후 공원에서 친지와 함께 애완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은 흔하게 마주치는 모습임.

- 동유럽 인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스포츠. 생산적 휴식으로 장려됨. 체제 전환 이후 국가 지원이 줄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음. 독서도 여가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식임.

- 사회주의 정권은 문화예술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대중화하는 일을 정당성이 걸린 중요한 과제로 여김. 영화를 중요한 예술장르로 대우. 러시아와 폴란드의 영화학교는 권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음.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외국영화가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하다 최근에 회복세임.

용어해설

전시공산주의

소련의 국내전·간섭전쟁 시기(1918~1921)에 프롤레타리아혁명의 방위를 위하여 취해진 일련의 경제정책.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으로 이어진 국내전 및 외국에 의한 간섭전에 의해 소련은 국토의 대부분이 전장화하여 혁명의 중심지인 도시가 식량이나 주요 원료공급지와 단절되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잔혹한 유혈의 대가로 쟁취한 정권이 붕괴될 위기를 당

하자, 그 타개책으로 1918년 11월 노동국방회의(의장 V.I.레닌)를 창설하여 교통·산업·자원을 통제하고 국민경제를 전시체제로 편성하였다. 이미 대공업 국유화의 포고를 발한 상태였지만, '모든 것을 전선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공장까지 국유화하고, 사적 상업의 금지와 함께 농산물도 그 때까지의 공정가격에 의한 '수매제'를 강제적인 '징발제'로 전환, 농촌은 식물자의 적발을 위해 노동자로 구성된 징발대가 파견되는 등 극단적인 민중수탈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생산물의 분배는 모두 전표에 의한 배급제도로 바뀌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화폐의 효용은 현저하게 저하되어 그 폐지가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또 '일반 노동의무제'의 포고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구자본가나 지식계급에도 육체노동이 과해졌다. 이 전시공산주의로 총칭되는 일련의 정책은 사회주의 단계를 뛰어넘어 단번에 공산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최단 코스로 착각되어, 전쟁 종료 후에도 지속되어 국민경제는 더한층 황폐해졌다. 농민층의 불만과 소비에트정권에 대한 불신의 증대는 많은 농민반란과 공장노동자들의 반란을 가져왔으며, 1921년 3월 크론시타트요새에서의 해군사병반란으로 혼란상태는 절정에 달하였다. 같은 해 3월 공산당 제10차 대회는 식량징발제를 식량세제(食糧稅制)로 전환함으로써 전시공산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신경제정책(NEP)으로 이행하였다.

신경제정책(NEP)

11월혁명 후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소련에서 실시한 경제정책의 체계. 1918년 여름에 시작된 국내전(國內戰)과 외국의 군사간섭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련은 무자비한 전시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한 결과, 극단적인 민중수탈정책에 반발한 농민은 인공기근(人工飢饉)으로 대항하여 극심한 식량난을 가져왔고, 생산은 위축되어 소련 경제는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레닌은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左翼小兒病)》을 저술하여 극좌적 경향을 억제하고, 1921년 전시공산주의를 중단한 다음, 경제파탄을 수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대폭 도입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전시공산주의 체제하의 식량징발제(食糧徵發制)를 중지하고 식량세제(食糧稅制)로 바꾸는 한편, 잉여농산물의 자유판매, 사적 소경영(私的小經營)의 영리활동의 허용, 국영기업의 부흥, 외국자본의 도입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소련 경제는 1925년에 이르러 대체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책의 실시로 이른바 네프맨(NEP로 인해 파생된 부자)과 크라크(부자)가 발생하게 되자 스탈린은 1928년에 제1차 5개년계획을 착수하면서 이들을 소탕하였다. 소련의 신경제정책은 국민경제의 부흥·재건기(1921~1928)와 농업의 집단화(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5개년 계획기로 대별(일부 학자는 부흥·재건기만을 NEP로 규정하기도 한다)되며, 또한 1936년 스탈린 헌법의 채택에 의해 NEP의 종료, 사회주의 경제의 건설완료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형성평가

1.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라)
- 가. 1917년 러시아에서는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 세계 최초 사회주의 정권 수립
- 나. 1920년대 중반 이후 전사회적 사회주의적 개조 작업에 박차를 가함
- 다. 국가의 계획과 관리를 통해 실업자는 존재하지 않음
- 라. 소비에트 연방은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재 산업을 발전시킴

2. 사회주의 체제 이후 여성관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 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제정.
- 나. 낙태를 합법화되었지만 이혼절차는 복잡해짐
- 다. 육아는 국가가 공동 탁아소를 지어 가사와 육아에 대한 지원이 충분
- 라.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여성의 지위는 더욱 상승

13. 라틴 아메리카

1. 역사적·문화적 배경

① 고대문명의 형성과 쇠퇴

- 기원전 3만 년경 최초의 원주민들이 아시아에서 베링해협을 따라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왔고 1만 년 전에 남아메리카의 끝에 도착함. 이들은 처음에 수렵채집생활을 하다가 약 5,000년 전부터 농업을 시작. 이들이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최초로 살았던 사람임. 아메리카의 3대 문화는 아스테카(Aztec), 마야(Maya), 잉카(Inca)로서 각각 멕시코, 중미, 안데스 지역에 훌륭한 유산을 남김. 아스테카 제국은 1519년 코르테스(Hernan Cortes)에 의해 정복. 마야 문명은 서기 1000년경에 쇠퇴. 잉카는 1535년 피사로(Francisco Pizarro)에 의해 멸망.
- 아스테카와 잉카사회는 유럽인들이 들어올 때 뛰어난 전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다양한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 유럽인들에게 정복당함. 코르테스가 아스테카를 정복하려 올 당시의 황제였던 모테수마(Moctezuma)는 콧살코아틀(Quetzalcoatl) 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음. 깃털 달린 뱀을 상징하는 콧살코아틀은 옥수수 재배법을 인간에게 알려준 유익한 신.

② 유럽의 정복과 식민시대

- 식민시대 초기에는 약3,000-3,500만 정도의 원주민이 살았음. 그들 대부분은 아스테카, 마야, 잉카 문명권에서 생활. 유럽에서 온 정복자들은 우세한 무기와 원주민들 사이의 내분을 이용하여 쉽게 원주민 사회를 무너뜨림. 식민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원주민들은 종교와 토지를 잃어버림. 새로운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임.
- 300여년의 식민지배 동안에 경제적 착취와 억압, 노예화, 종족말살 등 어려움을 겪게 됨. 유럽의 정복자들은 이 지역에 금이 많다고 생각하여 금광을 찾아 헤맸. 스페인에서 무지하고 기술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전설 속의 '황금의 땅(El Dorado)'을 찾아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돌아다님. 실제 금은 별로 없었으며 멕시코와 볼리비아 등지에 은광이 발견. 지역에서 채취된 은이 스페인으로 들어갔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스페인은 막대한 피해를 입음.
- 농업에 관심을 둔 식민정부는 정복자들에게 토지를 부여하고 원주민으로부터 공물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신에 정복자들에게 원주민들을 개종시킬 권한을 부여한 엔코미엔다(encomienda), 농산물이나 광산물의 생산을 위해 식민지 개척자에게 원주민들의 강제노동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레파르티미엔도(repartimiento), 국내 시장을 위한 식량생산을 하며 페온(peon)이라는 부채관계에 얽혀 있는 소작인을 사용하는 아시엔다(hacienda), 그리고 흑인을 위주로 하는 노예노동자를 고용하여 설탕 같은 수출용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같은 대규모 농장을 건설.

- 원주민들은 홍역, 인플루엔자, 천연두, 장티푸스 같은 유럽에서 유입된 질병으로 죽어서 인구가 감소. 정복자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노동자로 들여와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게 함. 식민시대부터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발한 농작물과 가축의 교환이 이루어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토마토, 초콜릿, 담배, 고추, 옥수수, 감자 등이 유럽으로 수출. 유럽에서는 말, 개, 올리브, 포도, 오렌지, 레몬 등이 라틴아메리카로 보내짐. 현재도 식민시대의 농업구조가 그대로 반영.
- 현재도 식민시대의 농업구조가 그대로 반영되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가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음. 중미의 일부 국가들은 '바나나 공화국(Banana Republics)'이라는 별칭으로 불림.
- 식민정부는 원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게 하여 원주민 공동체를 이루도록 함. 소수의 백인들로 많은 원주민들을 통치하기 어렵게 되지 원주민 귀족 출신으로 형성된 지역의 정치세력가인 카시케(cacique)를 활용하여 간접지배 실시. 식민시대 후반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스페인의 통치가 강화. 카시케 권한은 약화.
- 식민시대 원주민들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피해 산으로 피신하거나 저항. 고지대에는 원주민 중심의 '폐쇄적 농민공동체'가 만들어짐. 이 사회에서는 강한 내적 유대와 동질성이 강조. 판매보다는 생계를 위한 영농이 지속. 공동체 내의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주어짐. 이런 생활방식은 저지대의 메스티소 중심의 '개방적 농민공동체'와는 구별됨.
- 개방적 농민공동체에서는 토지의 사유화가 실시되었고, 수출을 위한 상품 생산이 이루어졌음.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사회여서 부와 권력, 위신에 있어서 개인마다 차이가 심함. 원주민들은 폭력적 저항과 수동적 저항 등 여러 방식으로 지배 사회에 대항. 원주민들이 발전시킨 문화에 대한 편견이 강하여서 이들의 의술을 마술로, 종교를 미신으로, 역사를 신화로, 예술을 민속으로, 언어를 방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음.

③ 독립과 국가의 수립

- 19세기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인 크리오요(criollos) 계급과 스페인 출신의 반도인(peninsulares)사이의 갈등이 생기면서 독립운동이 시작. 1810년경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동시에 전개. 독립운동에 앞장선 크리오요들은 식민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음. 스페인의 국내 사정으로 식민지 내의 세금부담이 가중되자 크리오요들은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됨.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 공적 의사결정에서도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백인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중간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고충이 많음
-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메스티소의 수도 증가.
- 당시 인구는 백인이 400만 명, 원주민이 800만 명, 메스티소가 500만 명, 흑인이 100만 명 정도임. 비백인이 증가하면서 대중반란이 빈번해지자 크리오요들은 스페인과 원주민, 흑인, 메스티소 사이에 끼어 상당한 위협을 느낌.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오요들은 독자적 세력을 형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독립운동을 주도.

④ 지리적 특징

- 서반구에 위치한 라틴아메리카는 북미, 중미, 남미, 카리브 지역으로 구성. 지리적으로 북미에는 멕시코가 속해 있음. 중미에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세, 엘살바도르, 니카과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이 있음. 남미에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가이아나, 수리남, 기아나 등이 포함.

- 그 밖의 카리브 지역은 쿠바, 자메이카, 아이티,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공화국 등과 여러섬. 46개의 국가와 지역으로 구성. 면적은 2,000만km²로 세계의 15%를 차지함.
- 크게 양분해보면 남부의 추운나라(칠레, 아르헨티나)와 북부와 중부의 더운 나라(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 등)으로 구분.
- 대부분 인구가 온화한 해안지역에 밀집해 있고 고산지대나 사막, 열대우림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음. 인구분포가 불균형함.
- 강우량의 변화도 심함. 북부인 멕시코 지역은 강이 거의 없고 비가 적어 가뭄의 피해가 심함. 브라질은 아마존 강으로 인해 풍부한 수량이 존재. 열대 우림이 울창함. 카리브 지역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함. 6월에서 11월까지 허리케인이 자주 오는 시기. 비교적 다양한 기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의 종도 다양. 농작물의 종류가 많은 편.

2. 원주민과 종족관계

① 종족의 구성과 변화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원주민사회에 유럽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유입시키려 노력함. 처음에는 원주민사회의 상류귀족층을 식민사회의 귀족층에 흡수하여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였음. 식민시대 초기에 원주민 출신의 귀족들은 식민사회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 이런 동화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둠. 그 결과 원주민과 백인 혼혈의 메스티소(mestizo)가 등장함.
- 현재는 전체 인구의 약5%가 원주민. 그들 대부분은 아스테카, 마야, 잉카의 후손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통치를 피해 산으로 피신, 고립된 생활. 저지대의 원주민들은 수가 적고 아마존 지역과 중미에 살고 있음. 고지대에서는 옥수수, 콩, 호박, 감자 등 전통적 작물을 단순한 기술을 이용해 재배. 원주민 사회에서 의상과 의례행위등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보존.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많아졌고 도시화의 결과 정체성이 상실되거나 원주민문화가 파괴되는 경우도 발생.
- 저지대의 원주민은 화전농에 사냥과 어업을 병행. 고지대의 원주민보다는 공동체 생활이 강하지만 지리적 조건이 열악해 외부인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음. 토지가 없는 메스티소들이 농지를 찾기 위해 원두민이 사는 지역을 침입하는 것이 문제가 됨.
- 원주민을 부르는 명칭으로 과거에는 '인디오(indio)'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경멸의 뜻이 담겨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인디헤나(indigena)'라는 용어를 선호함.
- 흑인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의 종족구조는 훨씬 복잡해짐.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식민지의 억압과 유럽에서 들어온 질병으로 죽자 유럽의 정복자들은 원주민을 대체할 노동력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동자들을 데려옴. 1506년에 이스파니올라(Hispaniola)에 흑인이 도착. 카리브 지역의 원주민은 1570년경에 완전히 사라짐. 흑인들은 카르비 지역과 브라질 등 대서양 연안지역의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주로 일함. 19세기에 와서는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리토, 파나마, 브라질 등지에서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물로토(mulato)의 수가 많아짐
- 오늘날 새로운 이민자들이 많아짐. 기존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인 이외에 17-18세기에는 카리브 지역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면서 유럽인드링 새로 유입. 19세기에 들어서는 이탈리아, 독일, 동유럽 사람들이 이주. 브라질과 칠레에 독일인들이 많이 이주하였고 카리브 지역에는 시리아인과 레바논인이 들어옴.
- 20세기에는 유럽인과 더불어 유대인과 아시아인들이 이주. 20세기 초에는 20만명의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건너감. 3만명은 페루로 향함. 중국인들은 19세기에 30만명이 계약 노동

자로 라틴 아메리카를 찾음. 14만명이 쿠바로 그리고 10만명이 페루로 일거리를 찾아 감. 특히 중국인들은 계약 노동자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며 많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일부 지역에서는 추방되기도 함.

- 한국인들은 1905년에 1,033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에네켄(henequen)농장의 노동자로 최초로 이주. 본격적 이주는 1963년 브라질로 103명이 농업이민을 하면서 시작. 2010년 현재 라틴아메리카에는 약 11만명의 한국인이 거주. 주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파라과이에 대부분 거주.

- 다양한 민족들이 유입되면서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종족구성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됨. 현재 라틴아메리카는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백인들의 비중이 높은 국가; 멕시코,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메스티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 과테말라, 페루, 볼리비아 등 원주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국가; 브라질과 파나마, 카리브 지역 등 흑인이 많은 국가로 구분

② 종족정체성과 원주민사회의 변화

- 식민시대에는 '혈통의 순수성'의 원칙 아래 종족이 구분.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종족이 섞이는 과정에서 순수 혈통을 찾는 일은 불가능해짐. 피부색에 따른 법적 사회적 차별이 확고해지면서 백인, 메스티소, 물라토, 흑인 노예, 원주민 순서로 원주민들이 가장 낮은 지위를 가지게 됨. 식민시대 유색인들은 정치적 지위나 교육의 기회가 제한됨. 식민정부는 유색인 남성과 백인여성의 결혼을 금지. 원주민과 메스티소, 백인사이에는 옷, 예절, 언어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

-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피부색을 기준으로 원주민과 메스티소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실정. 오랜 기간 혼혈정책으로 인해 메스티소들의 피부색이 다양해짐. 동일한 생물학적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 집단이 되었기 때문임. 종족을 구분하는데 생물학적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이 중요해짐.

- 문화적 동화만으로도 원주민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어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관계는 유동적임.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원주민을 정의하는데 그들이 거주하는 지리적 위치나 자신들 스스로의 주관적 인지도 여부를 변수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원주민 언어의 사용등 문화적 변수를 주요 척도로 사용. 누가 원주민인가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범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 규정은 혼란을 일으킴.

- 20세기 들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유럽과 다른 역사적·사회적 전통을 수립하려 노력하면서 원주민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원주민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이런 현상으로 발전. 그 결과 원주민에 대해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은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펴고 있음. 한편으로는 원주민 문화를 찬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주민 문화를 미개한 것으로 인식.

- 원주민 사회의 어려움은 지속. 외부사회와 접촉하게 되면서 원주민의 고유한 정체성이 급격히 상실. 원주민은 가난하고 뒤떨어진 농민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원주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기 어려움.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의 원주민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대도시로 이주하게 되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해짐. 원주민사회의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원주민들이 열등의식을 느끼고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무시

- 종족성과 종족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음. 종족을 구분하는 용어가 사회마다 상이하고 같은 사람에게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으나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서는 차별이 심함. 원주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

- 근래에 멕시코의 치아파스,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지에서 원주민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아직 조직 결성에는 어려움이 따름.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언어도 다르고 접근도 용이하지 않아 연대를 결성하기 어려움. 원주민과 비원주민 조직 사이에도 신뢰의 형성이 힘들어 효율적 유대관계를 맺기 어려움.

③ 원주민사회와 코카

- 라틴 아메리카는 코카인과 마리화나 등 주요 마약의 생산과 소비지로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 마약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었고 이와 관련한 폭력과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는 마약밀매로 인해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되었음. 마약의 생산과 소비에는 원주민의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음.

- 안데스 고지대에 사는 잉카 원주민들은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서 정신을 집중시키고 피로와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코카인을 씹었음. 코카의 사용은 노동, 의례, 종교관행과 관련이 있음. 안데스에서 코카는 인간과 초자연적 존재와의 매개물이자 사회관계를 유지시키는 수단. 종교적 의례를 수행하거나 병을 치료할 때, 산과 언덕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을 달랠 때 사용. 스페인의 정복자들도 광산에서 원주민 노동자들이 코카 잎을 씹는 것을 막지 않음. 이는 원주민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 활력을 얻음으로 사기가 높아지고 식욕이 감소하여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유리.

- 안데스 고지대에서 코카는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생산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작물임. 한 번 심으면 35년 동안 매년 다섯 번 수확 가능. 언덕이나 경사진 땅에서 잘 자라 토지 이용도 효율적이고 질병이 많지 않아 시장가격이 높다. 고지대에서는 기후조건이 나쁘고 토양이 척박해서 대부분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코카 잎만큼 수익성 높은 작물을 찾기 어려움. 그 동안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정부는 마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데스 산간지역에서 차, 커피, 담배 등 코카의 대체작물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함.

- 20세기 들어와서도 마약의 불법재배와 코카인 유통이 증가하자 미국과 페루정부는 코카 재배 원주민들에게 쌀, 카카오, 옥수수, 야자의 재배나 가축사육을 권유하며 재정지원을 함. 만족할 성과를 얻지 못함.

- 이러한 코카가 코카 페이스트와 코카인 생산으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낳았음. 코카인의 생산은 복잡한 기술이나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음. 생산과정을 보면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지에서 생산한 코카 잎에 석유 등 화학약품을 첨가하여 코카 페이스트를 만듦. 코카 페이스트는 다양한 경로로 콜롬비아 등지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코카인으로 만들어진 뒤에 메데인(Medelin)등지를 중심으로 하는 카르텔에 의해 처리, 수송, 분배가 이루어짐. 이렇게 마약자본가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어서 정치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

- 페루의 마오쩌둥 계열의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빛나는 길(El Sendera Luminoso)'에서 코카를 재배하는 농민사회와 코카의 유통을 정부의 군인과 경찰로부터 보호받고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의혹이 제기. 이 단체는 공식적인 개입은 없다고 부인.

- 모든 코카재배가 불법적인 것은 아님. 원주민사회의 전통을 인정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코카인을 재배할 수 있음.

- 코카 재배로 벌어들이는 '코카달러'는 가난한 원주민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수단. 이것이야말로 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데스 지역에서 코카 재배를 완전

히 사라지게 만들 수 없으며 정부도 적극 나서기 어려움.

- 오늘날 코카인으로 인한 피해는 생존을 위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코카를 재배해야 하는 안데스 농민과, 어떤 돈과 대가를 지불하려는 전세계 엄청난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사슬임. 미국과 남미의 국가들이 코카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코카재배 농지를 지속적으로 파괴시켰지만 성과가 없음

- 코카콜라도 코카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생산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코카콜라측은 성분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음. 코카와 코카인의 생산과 소비는 불법이라는 특성과 함께 다음 특징이 있음. (농민들이 소규모 토지에서 경작,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음, 공급과 질에 대한 통제가 없음, 조직범죄와 관련이 깊음). 결과적으로 코카와 코카인의 생산과 소비는 문화적 관습에서 수익성 높은 산업으로 변화한 것임

3. 가족과 사회관계

① 사회관계와 지위

-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쌍대적 관계'가 강조. 쌍대적 관계란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상호간에 호혜적인 교류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런 관계가 지속되며 결국으로 발전. 통상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이나 핵가족을 넘어서는 혈연집단이 발전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노동, 재화, 서비스를 교환.

- 라틴아메리카는 친족관계가 발전하지 못해서 친족 이외의 많은 사람들과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됨. 예수, 성모마리아, 성인 등 초자연적 존재와도 관계를 설정해 특정한 정신적·물질적 축복을 기대함.

- 지위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맺는 양자적 관계의 대표적인 예가 '후견인-수혜자 관계 (patron-client relationsip)'. 각자 다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여러 지원과 보호를 주고받음. 보통 후견인은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 지위를 가진 정치인, 공무원, 성직자. 수혜자는 빚을 짐으로써 후견인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쉽게 깨어질수 있는 관계임.

- 종교적 의미가 부여되는 대부관계(compadrazgo)도 이런 사회관계의 연장선상에 있음. 대부관계는 '유사친족제도'의 하나임. 단순한 혈통으로 이어진 가족과 친족집단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실현시켜 정치적·경제적 협동을 강화하려는 것임. 식민시대 아센다도가 원주민들의 대부역할을 했는데, 이는 상호 간의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는 대표적인 후견인-수혜자 관계임.

- 아센다도는 페온(부채관계에 얽혀있는 소작인)들이 질병이나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도와주며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었음.

-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지속되어 친척이 아닌 사람과 자기 자식들의 대부모를 구성하는 관계를 가지려 함. 다양한 통과의례나 사회적 시기마다 대부모를 선정. 대체적으로 자신보다 사회경제적·정치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대부모로 받아들여려함.

- 도시로 이주한 농민의 경우 대부관계를 활용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자리나 주거문제를 원활하게 해결가능. 가톨릭의 역할과 다양한 사회관계의 확산으로 대부의 의미가 과거보다 덜 중요함. 대부제도는 어렵고 불안한 현대생활에서 계층 간의 경계를 넘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긴장과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제도.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② 마치모스와 성

-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의 지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과거에 여성의 권리는 무시되고 남성지배사회의 희생자로만 기술되었음. 남성성을 표현하는 '마초(macho)'의 의미는 튼튼하고, 성적으로 강인하고, 용감하고, 공격적이며, 크고, 훌륭한 것을 나타내며, 마치스모(machismo)는 극단적인 가부장제에 기반한 남성 중심의 지배체계를 의미함. 남성을 우월하게 인식하는 지중해 문화와 여성을 낮게 평가하는 가톨릭 문화가 결합되어 발전되었는데, 식민시대 유럽인들이 원주민사회를 정복하면서 확산.

-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원주민 여성들과 강압적 성관계를 하면서 메스티소라는 혼혈집단이 등장. 마치스모는 원주민보다 메스티소 사회에서 심각하게 나타남. 하지만 미치스모가 나타나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상이함.

- 여성들에게는 어머니 역할이 강조, 소극적이며 복종을 의미함.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상인 마리아니스모(marianismo)가 강요됨. 대표적인 예로 모성애와 가족과 국가를 위한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Eva Peron)을 들 수 있음. 마리아니스모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활동이나 역할이 제한되면서 사회참여가 취약. 여성의 문맹률이 높은 등 여성의 권리가 미약함.

4. 종교와 의례

① 종교활동과 믿음

- 라틴 아메리카 사회는 식민시대를 거치면서 가톨릭 중심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화하는 중. 종교와 의례활동에 있어 가톨릭은 지역 내 여러 토속종교와 합쳐지면서 유럽적 요소와 원주민의 특징이 나타남. 종교와 의례활동에 있어 가톨릭은 지역 내의 여러 토속종교와 합쳐지면서 유럽적 요소와 원주민의 특징이 함께 나타남. 스페인의 침입 후에도 일정한 수준에서 전통종교를 유지. 가톨릭의 형태를 빌리지만 원래의 내용은 변하지 않음. 원주민의 종교적 관습과 기독교가 결합된 종교적 융합이 식민시대에 광범위하게 등장. 예수의 희생을 통해 인류가 구원된 것이라는 기독교의 교리는 원주민 사회에서 메소아메리카인들을 구하기 위해 인신제물을 바친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여러 신들을 위한 잔치와 축제는 가톨릭 성인들을 기리는 의식과 유사한 것으로 표현.

-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는 보수적 정당과 지주들을 지원함으로써 가난한 대중과 멀어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따라 대중조직을 활성화해서 교회 참석률을 높이려 했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함. 현재까지도 가톨릭은 가장 권위 있는 통합된 종교. 대다수 국민들이 가톨릭 문화지식. 종교적 행사에 대한 참여율은 낮지만 마을이나 단체마다 축제, 행진 등 가톨릭의 성인을 기리는 행사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

-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리에 대한 관심은 적고 비종교적인 개념이나 세속적 일상행위가 가톨릭교회가 지나치게 퍼져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런 이유로 라틴 아메리카의 가톨릭 신자들을 '문화적 가톨릭 신자'라고 부름. 가톨릭 주교는 사회문화적으로 엘리트에 속하고 국가나 군부, 정당 등 엘리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 전통적인 원주민의 신앙은 사물의 공적인 숭배가 많은 편임. 종교적 행위가 공동체의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민간치료법이나 주술행위도 포함됨. 주술과 현실이 뒤섞인 상태에서 성과 속의 구분이 모호함. 이밖에도 아프리카의 종교적 영향을 받은 아이티의 부두(voodoo), 쿠바의 산테리아(santeria) 브라질의 마쿰바(macumba), 칸돔블레

(candomble) 그리고 움반다(umbanda) 등의 영혼주의 믿음도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 변화.

－ 영혼주의적 믿음은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활발. 고대문명의 종교적 전통과 연결. 죽은자의 영혼을 믿고 영혼이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영혼주의적 믿음은 영혼에 대한 설명과 세속적인 문제의 해결에 비교적 보수적 입장을 취함. 아이티나 브라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종교를 통해 종족 정체성을 확립시켜 노예제의 폐지나 독립 문화자치운동에 공헌

② 갈색 피부의 성모 마리아: 멕시코의 과달루페

－ 아스테카의 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이 정복자들에게 함락된지 2년후인 1523년에 최초로 가톨릭 선교사들이 종교적 정복을 위해 도착함. 스페인 남부지역에서 이슬람교도인 무어인들을 개종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했던 이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강인함. 선교사들은 선교활동을 위해 아스테카 사람들의 역사, 풍습, 종교적 관행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 성서번역, 교리 전파

－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최초로 개종을 한 우너부민 중에 환 디에고(Juan Diego)라는 사람이 있음. 1531년 12월 9일에 환 디에고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테페약(Tepeyac)이라는 언덕을 지나감. 그때 번개가 치고 소리가 들리며 갈색 피부를 가진 여자가 출현. 그녀는 자신을 성모마리아라 하고 자신을 기리는 교회를 테페약 언덕에 세울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환 디에고에게 주교인 환 데 수마라가(Juan de Zumarraga)에게 전하라고 함. 주교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가져오게 함. 12월 12일 아픈 삼촌에게 가다가 성모마리아가 다시 나타났고, 장미를 따다 증거물로 전하라고 함. 자신의 망토에 장미꽃을 담아 주교를 만나러 감. 망토에는 성모마리아의 형상이 분명히 새겨져있음. 주교의 명령으로 교회가 세워짐.

－ 원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숭배하던 신이었던 토난친이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가 되었기 때문에 가톨릭을 무리없이 수용. 멕시코인들에게 과달루페는 식민정복으로 발생한 원주민과 유럽인들의 폭력적 대립으로 빚어진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징.

－ 식민시대 후반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어려운일에 부딪칠때마다 과달루페를 모신 테페약을 찾는 것을 의심. 원주민들의 말로는 개종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과거 자신들의 신이었던 토난친을 만나러 테페약이 온다는 것임.

－ 1970년에 새로운 교회가 건축되고 과달루페의 기적은 1745년 교황청에 의해 인정. 1904년 대성당인 바실리카(Basilica)가 새롭게 만들어짐. 1976년 현대적인 바실리카가 과달루페를 위해 새로 완성. 일년에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과달루페를 만나기 위해 바실리카를 방문. 매년 12월 12일이 되면 기도와 노래, 춤, 불꽃놀이가 행해짐. 많은 마을에서 ‘우리의 성녀 과달루페’를 위한 축제가 개최. 환 디에고의 망토는 바실리카에 보존, 일반인에게 공개. 망토에 사용된 천은 16세기의 것으로 확인. 500년이 지났지만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 남아 있음

－ 환 디에고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논란이 제기. 많은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식민사회에서 원주민의 개종을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비판적인 학자들은 토난친을 모시던 테페약을 파괴하도록 명령한 사람이 환 데 수마라 주교라는 사실에 주목.

－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멕시코를 방문하면서 환 디에고가 원주민으로는 처음으로 가톨릭 성인으로 인정.

③ 카르고 제도와 마요르도미아

- 1520년대 이래 식민사회에서 가톨릭은 정치적·사회적 권력을 행사. 교회 자체가 부유한 지주에 속해 있어 교회의 권위는 소수 지주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짐. 식민사회를 거치며 가톨릭은 사회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침. 그 중 하나가 '카르고 제도(cargo system)'이라 불리는 '공민적-종교적 위계구조(civil-religious hierarchy)'
- 카르고 제도는 마을의 성인남자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종교적·공민적 직책을 맡아 주기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함. 낮은 단계에서 출발하여 나이를 먹을수록 높은 단계의 직책을 수행. 일정 단계의 의무를 마치면 원로로 인정받고 높은 사회적 위신을 차지함.
- 종교적 카르고를 마요르도미아(myordomia)라고 함. 이것은 마을마다 정해진 가톨릭 성인을 기리는 공적인 축제로서 의례행위를 수반함. 공민적 카르고에 해당하는 직책은 마을 지도자, 법률고문, 행정위원, 심부름꾼, 경찰, 청소원, 서기 정원 관리인, 치안판사, 회계, 공동토지관리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등. 마요르도미아의 경우 마을마다 자신이 모시는 성인들의 수에 따라 수와 규모가 다름.
- 카르고 제도는 정치적·경제적·종교적 요소가 결합.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사회에서 전통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통제수단.
- 카르고 제도는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을 제한하고 공동의 가치관을 강화시키며 사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전통적인 친족제도를 지지.

5. 전통문화와 축제

① 사회변화와 축제

-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기본적인 축제의 의미와 성격은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음. 이 지역에서 축제는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널리 퍼져 있음.
- 라틴 아메리카의 중요한 전통문화의 하나인 축제는 음식, 언어, 의상 등 여타의 문화적 요소와 마찬가지로 식민사회 이전의 원주민 문화적 전통과 유럽의 가톨릭 문화가 결합. 거의 모든 행사가 가톨릭 절기에 맞춰 지냄. 가톨릭 축제가 토속적 문화전통을 포함하게 된 것은 원주민들의 민간신앙과 융합되었기 때문임.
- 혼성화된 문화 속에서 원주민 문화와 유럽의 문화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원주민들도 식민사회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 가톨릭의 성인을 기리는 의례도 토속적 신을 기쁘게 하던 축제의 형식을 빌어 의식을 치름.
- 라틴 아메리카의 축제는 의미와 형태, 기원, 기능에 따라 네가지로 구분됨
- (1) 고대의 농경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의례
- (2) 도시나 지역 마을,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성인(patron saint)을 위한 축제임
- (3) 성지순례와 관련된 축제. 원주민의 신앙과 관련된 지역이나 예수나 성모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 순례의 장소
- (4) 개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세례, 결혼, 죽음 등의 통과의례에 수반되는 축제
- 오늘날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농촌지역에서 주로 행해지던 축제가 도시지역에 확산. 다양한 문화요소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

② 리우 카니발

- 브라질의 대표적인 축제인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카니발은 매년 사순절 전의 토요일에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4일간 벌어지는 행사. 부활절 7주 전에 벌어지는 카니발은 브라질 축제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 카니발은 가톨릭을 신봉하는 유럽과 미주대륙 많은 나라에서 나타남. 장엄한 퍼레이드, 장시 수레, 정교한 의상, 가장 행렬들이 펼쳐짐.
- 브라질에서 카니발은 17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대표적인 행사인 무도회는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들어옴.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였던 흑인들의 다양한 노래와 춤, 의상이 더해지며 화려해짐. 1870년 이후 북부 커피 플랜테이션 산업의 침체 이후 이 지역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많은 흑인 노예들이 리우로 이주. 흑인들의 전통이 카니발에 반영.
- 1932년 19개의 삼바학교가 최초로 퍼레이드를 시작, 공식적인 삼바퍼레이드는 1935년부터 인정 받음.
- 1984년에는 리우의 중심지에 700m 길이의 공연장인 삼보드롬이 만들어짐. 삼바퍼레이드는 삼바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퍼레이드는 저녁7시에 시작해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계속됨. 삼바학교는 공식 교육기관이 아닌 빈민층 파벨라(favela)나 교회의 주거지역에 같이 사는 이웃들의 자발적 모임.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수시로 모여 연습함.
- 카니발은 빈민촌인 파벨라에 거주하는 흑인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 행사의 내용에서도 흑인들의 문화적 전통이 반영. 집단적으로 흑인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유대를 강화하고 하층계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사회문화적 효과. 정치적·경제적 생활여건 개선은 어려움. 카니발은 수출이 가능한 국가정체성의 상징이 되는 동시에 이웃조직의 결성을 통해 부분적으로 흑인 정체성 확립과 흑인의식운동 촉진에 기여.
- 부유한 유럽인 거주지역에서 열리다가 가난한 흑인 거주지역인 파벨라로 옮겨짐. 축제의 내용과 성격은 흑인들의 실제 생활과 거리가 멀어짐. 정부와 언론 그리고 경제조직에 의해 상품화가 진행. 삼바와 카니발은 방송국의 광고와 더불어 대중적이고 수익성 있는 흥밋거리이며, 관람객은 외국인과 백인들이 상당수임.

용어해설

물라토

- 중남 아메리카에 사는 백인과 흑인의 혼혈 인종. 중남 아메리카에 사는 여러 종류의 혼혈 가운데 특히 백인과 흑인의 제1대 혼혈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물라토는 특히 서인도제도과 브라질에 많이 분포하는데, 브라질의 경우에는 이들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물라토의 신체적 특징으로는 중간 키에 중간 크기의 두부(頭部), 좁은 코, 흑색 또는 갈색의 눈동자, 두꺼운 입술을 들 수 있다. 머리칼은 흑인을 닮아 곱슬거린다. 그러나 피부색은 밝은 갈색에서 암갈색으로 다양한데, 이것은 혼혈의 정도나 지역성 등의 요소와 관계가 있다. 연구가에 따라서는 밝은 색계와 어두운 색계의 물라토로 분류하기도 한다.
- 16세기 중엽 이래 중남 아메리카에서는 정복자로서 이곳에 온 포르투갈인을 비롯한 유럽계 백인과 토착민인 인디오 또는 노예나 식민지 노동자로서 이곳으로 끌려 온 아프리카계 흑인 사이에서 복잡한 혼혈관계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가 증가하면서 복잡한 혼혈형(型)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백인·인디오·흑인이라는 일반적인 인종의 카테고리 외에도 메스티소, 물라토, 퀴드룬 등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독특한 인종 체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메스티소

－ 중남미 원주민인 아메리카인디언과 에스파냐계 ·포르투갈계 백인과의 혼혈인종. 대부분 중남미, 특히 멕시코를 비롯하여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메스티소 아메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총 인구의 60~70%, 나라에 따라서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있다.

크리오요

－ 신대륙발견 후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에스파냐인과 프랑스인의 자손들을 일컫는 말. 에스파냐어(語)로는 크리오요(Criollo)이다. 원래는 신대륙에서 태어난 순수 에스파냐인(人)에 한정되었으나, 북아메리카·라틴아메리카·서인도제도 등에서 태어난 에스파냐인·프랑스인, 이들과 신대륙의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16세기 중엽 에스파냐의 식민지 개척이 한참일 때, 에스파냐에서는 신대륙에서 태어난 크레올을 위험 인물들로 생각해 주요 관직에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초 유럽에 유학해 자유사상을 접한 크레올의 후손들은 본토 출신의 에스파냐인들에게 불만을 품고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지금은 미국 루이지애나주(州)에 정착한 에스파냐인·프랑스인, 또는 이들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및 그 자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는 백인과 흑인의 혼혈을 크레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1910년경부터 1920년경까지 이들 혼혈을 중심으로 유행한 재즈 형식인 뉴올리언스재즈에 힘입은 바가 크다.

형성평가

1. 메스티소는 어떤 종족의 혼혈인가? (다)

가. 백인과 흑인 나. 흑인과 원주민 다. 원주민과 백인 라. 백인과 아시아인

2. 라틴 아메리카에서 극단적인 남성 중심의 사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가. 마치스모 나. 마리아니스모 다. 콤파드라스고 라. 파드리노

3. 다음 중 스페인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나라는? (라)

가. 멕시코 나. 쿠바 다. 페루 라. 브라질

4. 다음 중에서 아프리카 토속종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은? (가)

가. 파차마마 나. 산테리아 다. 부두 라. 움반다

15. 세계화시대의 한국문화

1. 한국문화, 그 역사와 환경 다시보기

① 세계화, '전통'문화, 한국문화

－ 한국사회에서 처음 경험한 세계화의 모습은 80년대 후반 삼저호황 시기의 경제발전을 발판으로 이루어짐. 민족적·국가적 자긍심, 뻗어가는 기세의 표현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젊은 이들의 보고서와 기행문이 쏟아져 나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는 슬로건도 자긍심의 자취가 배어있음.

- 전통의 사회나 문화라는 것은 기술과 도구라는 면에서 몇몇 결정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실제로 언제나 존재하는 '전통'은 존재하지 않음. 유서 깊은 전통마을조차 연원은 4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기 어려움.
- 수백수천 년을 한 자리에 있었음직한 갯벌이나 경작지, 산림조차 끊임없는 개간과 지형 변화, 영림활동의 결과물. '전통' 시대의 그곳에도 국가의 전횡이 있고, 개발과 변화의 광풍이 불며 사람들은 이에 부딪히거나 올라타며 요동을 쳤음.
- 동북아시아의 '전통' 사회에 공통되면서 비교문화론적으로 두드러진 중요한 특징인 세계가 유례없이 많은 수의 소농(小農)들의 사회였음.
- 유럽이나 남미 같은 대토지 경영이나 독일, 동남아 수준의 대규모 농업노동자층이 부재하다는 점이 자본주의의 낮은 발전단계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생각하였음. 이러한 도식의 배후에는 서구의 발흥에 관한 허구적인 신화가 있음.
- 오늘날 한국사회의 발전의 기초에는 소농들이 있었음. 농촌에 축적되어야 했던 농업생산 잉여는 도시노동자들이 도시에 적응하는 동안 가족 내 부분이농구조를 통해 도시로 유출. 해방 직후 농지개혁에 의해 소작지를 분배받은 소농들이 지지세력이 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의 기반을 확보. 전통문화는 전근대로부터 근대, 현대로 이어지는 역사과정 속에서 변신을 거듭함.

② 한국문화를 규정하는 한반도의 자연환경

- 한중일 삼국 사이에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들이 있음. 장마라고 부르는 동아시아 온대계절풍지대의 우기를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다르게 사용함. 장마는 계절풍아시아 문명의 작물인 쌀의 생산에 핵심적 역할을 함. 중국 강남이나 일본의 벼농사지대가 양력 6월의 모내기철에 풍부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비 때문임.
- 모내기철의 가뭄만 지나면 연중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뿌러지는 여름철임. 이는 안정된 수리환경 아래 정교하게 쌀을 재배하는 지역과는 다른 노동문화를 성립. 환경과 기술의 특성은 이 땅의 농민 사회가 이룩한 농경문화유산 도처에 나타남.
- 두레, 논매기와 같은 공동의 노동조직방식이 오래 살아남은 배경에는 강인한 육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일하는 노동문화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임. 논농사가 여성을 배제하는 남성들의 작업이 되고, 여성노동이 밭농사로 집중되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음.

2. 가족과 친족의 사회사

① 소농사회의 형성과 전개, 그 한국적 성격

- 한국문화가 지니는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가족유대와 동족집단의 결합임. 유례를 보기 힘든 한국사회 동족마을의 번성과 강력한 가족유대는 밀접히 관련됨.
- 조선시대 재산상속방식을 보면, 조선중기까지는 제사를 모시기 위해 장남에게 주는 몫을 제외하면 자녀 모두에게 균분상속. 17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장자우대상속제도로 전환. 종손을 중심으로 부계친족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고 딸에 대한 상속분을 줄임. 부계친족집단 중심 동족마을의 강화로 귀결.
- 17세기는 조선사회의 농업경영체제가 작개제(作介制)에서 병작제(竝作制)로 이행한 시기. 조선전기의 특징적인 생산체계인 작개제는 지주가 예속신분인 노비를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게 하는 시스템.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노비들의 태업 등으로 강제성이 통용되지 않게 되면서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요구하게 됨. 병작제는 예속신분이 아닌

자유신분인 작인(농민)과 지주사이의 계약. 병작제 아래에서는 작인의 노력에 의해 생산이 늘어나면 증가분의 반은 작인의 몫이 되기 때문에 소농의 사회가 성립.

- 이러한 변화는 농민들의 근면과 절약, 사회적 조화와 규율 등을 필요로 함. 조선의 사족 신분인 양반은 지방의 향촌에 일반 농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성리학적 사회규범으로 교화시키는 한편, 과거를 통해 중앙관직에 진출하여 관원으로 해야 할 몫을 다한 후에 향촌으로 돌아와 제자와 후손을 키우며 은거하는 것으로 이상으로 여김. 전국 지방 곳곳까지 유교규범이 침투하여 조선사회의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만들어진 것은 이러한 사회시스템의 영향임.

- 일정기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면 양반의 집안도 사족신분에서 일반 농민의 지위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음. 양반은 이러한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이념적, 정치적 장벽을 세워나가게 됨. 각종 특권을 확보하여 신분하락을 막으려는 시도가 능러감.

- 일본의 사무라이는 과거를 통해 등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습적으로 계승되는 체제. 사족과 마찬가지로 도회지에만 거주하던 상인이나 장인들 역시 농민들과는 제도적 현실적으로 분리된 존재. 사농공상의 신분구별은 제도적으로 구조적이었음. 일본 사회에 우리와 달리 수백 년 이어오는 상인, 장인 집안이 많은 것은 제도적인 차이 때문임.

② 구조적 모순과 그 해소 방향

- 한국사회에서 사족집단이 향촌의 마을에 농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번성의 기반을 이루는 방식은 안정적인 제도임. 이는 본질적인 구조적 딜레마를 지니고 있음. 사족집단 내부적으로는 동족 촌락과 종중조직의 형성을 기반으로 한 인구재생산기반의 안정화가 향민들의 경제적 약화와 내부 계급분화를 야기함. 안정적인 재생산의 토대를 마련한 양반호가 자체 팽창을 거듭함으로써 대를 거듭하는 분가의 과정에서 소유지가 영세화됨. 영세해진 양반호는 같은 동족원이 지주이거나 병작지를 얻어 소작하는 작인이 되어야 함.

- 병작지의 작인이 된 양반호 농민과 병작지 작인으로 동족촌락 내에 거주하는 상민호 사이에는 본질적인 우열관계가 존재할 수 없음. 일정한 계층상승을 이룬 상천민들은 마을에서 중인이라 불리며 일반 하인과는 다른 사회적 지위를 확보. 양반호의 상천민호에 대한 우위는 동족촌락 및 부계친족집단 기반의 활용을 통해 담보됨. 이를 통한 반상관계의 유지 확대 재생산은 사활을 건 문제가 됨. 반상관계의 강화를 통한 동족촌락기반의 안정화는 양반호의 상민호, 노비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스스로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음.

- 해방 이후 이루어진 농지개혁은 지주들이 소유한 농지를 작인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꾀하고 농지를 분배받은 소농들을 신생 대한민국의 지지기반으로 끌어 들이려는 시도. 일제강점기 식민지주체의 강화, 전시체제기의 혹독한 착취에 의해 소농들의 처지는 열악해짐. 한말 반상관계가 철폐되었음에도 농촌마을에는 유제가 남아 있음. 미소 양국군대의 진주에 의해 간신히 통제는 되고 있지만 새로운 사회의 모델을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입헌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

- 농지개혁은 이러한 상황에서 필연적 귀결임. 하지만 분배받은 농지만으로는 농촌에 가득한 소농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없었음. 한국전쟁기 북한에서 내려온 대규모의 피난민들로 인해 농촌은 포화상태였으며, 농촌에 주어진 경제적, 정치적 기회는 미미함.

- 이 시기 농촌의 이농전략은 부분이농이라고 불림. 농민부모는 여전히 농촌에 남아 청소년인 가족원과 머슴을 동원하여 농사를 지으며, 장남으로부터 도시로 이주시키는 방식임.

- 이 부분이농 단계에서 한국 가족제도의 중요한 변화는 17세기 이래의 상속방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임. 부분이농 하에 농민가족은 장남의 학업 혹은 취업을 위해 재산을 투자하고 장남이 결혼을 하면 도시에 거점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정 재산을 분할하여 몫을 떼어줌. 결국 장남부터 순서대로 분할상속과 함께 분가하는 방식임.

3. 종교와 의례, 세계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

① 제례의 유교화와 한국화, 그 현재적 의미

- 종교와 의례 등 신앙체계와 관련하여 17세기는 중요한 전환점임. 한반도의 기층문화영역을 구분할 때, 북부 지방의 단오권, 호남을 중핵으로 하는 한반도의 남서부의 추석권,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남동부의 추석단오복합권을 나누는 틀이 일찍이 제기. 단오권은 잡곡재배, 추석권은 논벼재배를 물적 기반으로 삼고 복합권은 혼합양상이 두드러짐. 실제 양상은 잡곡재배문화와 논벼재배문화의 양면이 내재. 이 양면성은 잡곡재배문화가 형성된 상태에서 양반층의 의례를 중심으로 남부로부터 논벼재배문화가 유입 확산된 결과.

- 논벼재배문화의 확산은 이양법 확산에 의함. 이양법이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확산된 것은 17세기 진행된 현상. 한반도의 기층문화영역을 이룬 추석권 및 복합권의 북상 역시 이와 관련하여 설명가능.

- 강남농법이나 종법의 확산이 동북아 규모에서 진행된 운동의 결과이나 이는 조선의 제도 및 관행과 절충되어 재래의 문화들과 혼합되어 형성. 종법의 기원지인 중국에서는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상의 묘역에서 묘지제사를 올림. 반면 조선에서는 사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선조에 대한 묘제를 흥한 일로 여기지 않음. 대종가와 소종가를 막론하고 신주를 매안하기 전부터 사제와 묘제를 병행하는 경향이 있음.

- 묘역과 제사의 수호를 위해 각처에서 ‘계’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종중원들이 일정량 회사하여 기금을 조성, 각급 지파중중의 물적 토대를 건설. 묘역과 제사를 지켜가는 조직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닌, 종중의 자손을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 농업과 수리시설 등 생산의 관리, 광대한 지역에 걸친 사회기강의 확립 역할을 함.

- 1970, 80년대에 유행한 다목적 댐과 도로, 공단의 건설, 1990년대에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행된 신도시 건설, 2000년대 후반 이를 전국적인 현상으로 만든 혁신도시 건설 등 일련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종중재산을 국가의 힘으로 화폐화하는 길을 열음. 이는 부분이농에 의해 전국으로 흩어진 후손들을 한 현장에 집결시킴으로써 사회문제로 부각. 사회사적으로 평가하면 장자우대불균등상속이라는 17세기 이래의 관행이 최소한 법적으로는 폐기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됨.

- 애초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는가에 대한 물음 또는 성찰이 결여된 채, 법적인 상속권과 경제적 가치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점은 결함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질문은 안중에 두지 않고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만을 목적으로 관련 행위자들을 보상권 다툼으로 몰아가는 국가와 제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

② 혼례의 변화로 보는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 ‘전통’시대의 혼례 관행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성리학이 조선화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변화를 나타냈음.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삼는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회지배층은 합당한 사회제도를 만들기 위해 분투. 중국식 혼례인 친영(親迎)의 혼례방식은 조선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함. 조선중기에 확립된 ‘전통적’인 혼례방식은 반친영(反親迎)이라고 불리는 제도임.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흔히 대례라고 불리는 일차

혼례를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 시부모를 알현하는 이차 혼례를 올리는 방식임.

- 현대사회에서 신부가 살림세간을 준비하고 신랑이 신접살림의 거처를 마련하는 관행 역시 장기적인 혼례관행 그리고 상속 및 분가관행의 형성·전개를 통해 만들어진 것임.

- 고려 말~조선 초기 조선사회에 불어 닥쳐 17세기에는 사회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바꾸어낸 힘은 동북아시아 차원의 초국가적인 운동이었으면서 동시에 당대의 내적 특수성을 반영하며 독특한 모습으로 형성된 것이었음.

용어해설

장자우대상속제

호주상속제에서는 일가를 통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자상속이 필요하게 된다. 이 제도 중에는 장자가 차남 이하에게 일정한 재산을 주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한국의 구관습법(舊慣習法)에서는 호주상속인인 장자가 중자(衆子:차남 이하)에게 일정한 비율로 분재(分財)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중자에게 장자에 대한 분재청구권(分財請求權)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법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여 호주의 자녀들은 재산을 공동상속하기 때문에, 중자의 장자에 대한 분재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현행 민법은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꾸어 재산상속에서 분리하여 법률상 인정하면서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直系卑屬長男子)를 호주승계순위의 제1순위로 규정하고 있다(984조 1호 ·985조 2항).

형성평가

1. 소농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

가. 동족마을의 번성

나. 가족유대의 결함

다. 부계친족집단의 결속

라. 예속신분의 농민

2. 조선의 제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가)

가. 사망 후 바로 조상의 묘역에 묘지제사를 올림

나. 사제와 묘제를 병행함

다. 계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

라. 계는 지역의 교육, 농업 등 사회기강 확립 역할을 수행

3. 농지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

가. 지주들이 소유한 농지를 작인들에게 분배

나. 분배 받은 농지로 소농들은 생계가 가능해짐

다. 피난민들도 농지를 분배받음

라. 새로운 입헌 공화국 건설의 방해요인임

